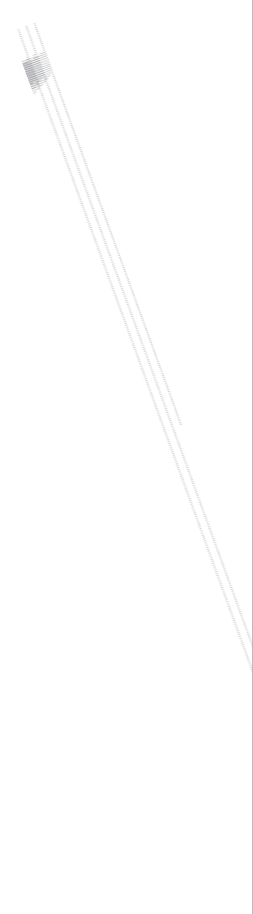


부록



## 신문윤리강령 개정 이후의 심의결정의 변모(1996~2010년)

### 사회상황에 따른 심의결정의 변화

개정안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진 첫해인 1996년에는 새로 신설된 편집지침과 관련된 선정주의 금지 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조항의 미성년피의자 신원 공개 28건, 보도준칙 조항의 보도자료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위반 24건 등 신설된 조항들이 그 뒤를 이었다. 광고에서도 미풍양속 저해 관련이 7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부쩍 늘어났다.

두 번째 해인 1997년 4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가장 많이 심의 처리한 것은 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51건에 이르렀다. 한편 광고심의의 경우 전체 건수가 감소하긴 했으나 법규위반 광고가 전년도 17건에서 144건으로 늘어나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광고가 늘어났었는데 IMF 직전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IMF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맞은 1998년에는 신문 역시 판매신장을 위한 연재소설의 선정성이 많이 지적됐다. 광고도 기사와 혼동케 하는 것들이 108건에 이르렀는데 이 역시 경제침체 상황에서 나름대로 독자들을 현혹케 하는 수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시대상황에서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

1999년도에는 「답변의 기회」 위반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과 단체에 대한 언론의 비판 역할도 중요하지만 비판받은 당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심의의 취지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도 다시 늘어났다.

2000년에는 신문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자의 눈길을 끄는 기사를 경쟁

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선정보도 및 선정주의 편집금지」 위반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의 경우도 「미풍양속 저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위반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2001년도엔 이와 관련한 심의결정 처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심의에서는 ‘음란 전화방’ ‘카드 및 사금융’ 안내 등 「법규 위반 광고」가 127건으로 가장 많아졌다.

2002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언론’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인터넷을 통한 음란하고 선정적인 정보들이 대량 유포되는데 신문 역시 그러한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선정보도의 금지」 위반이 107건으로 가장 많아졌으며, 홍보성 기사와 관련된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위반이 5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고부문에서는 「기사혼동 광고」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3년에는 광고부문에서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전년도보다 2배 늘어났는데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개선된 반면 경제불황에 따라 법규 위반, 과장광고가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의 여파를 겪은 2004년에는 기자들의 업무과다로 인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나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편집지침」 등의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광고물량의 감소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광고성 기사들이 늘어났는데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조항에 저촉된 사례가 전년도 90건에서 141건으로 폭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2005년, 2006년, 2008년까지 이어진다.

2009년에 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탓인지 수년 동안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표절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전년도의 577건에서 155건에 그쳤다. 다만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조항을 위반한 홍보성 기사들이 181건으로 전년도 15건에 비해 12배 이상 급증해 제재건수 1위를 차지했다. 광고 부문은 「과대광고」(168건)가 전년도(7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 제일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2010년에도 신문경영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하듯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터의 독립」 조항 위반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광고 부문 역시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신문윤리강령 개정 이후의 심의내용을 보면 바로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신문경영의 상태도 엿볼 수 있다.

신문윤리강령 개정 이후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했던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 흐름과 대표적인 심의결정문을 연도별로 정리해 본다.

## 연도별 주요 심의결정 현황

### ▶ 1996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1996년 4월부터 1997년 3월까지 한 회기동안 심의 처리한 사안을 조사, 분석한 결과 기사는 전년도에 비해 36건이 늘어난 173건, 광고는 전년도보다 무려 229건이 증가한 384건으로 집계됐다.

결정이유별로는 기사에서 편집지침과 관련된 「선정주의 금지」 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조항의 미성년피의자 신원공개 28건, 보도준칙 조항의 「보도자료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위반 24건, 편집지침 조항의 「기사정정」 불이행 16건 등이었다. 특히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위반과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금지」 위반이 각각 6건과 3건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확대가 더욱 요망되기도 했다.

광고심의에서는 「과대광고」 278건, 「미풍양속 저해」 관련 76건, 「법규위반」 17건, 「기사혼동 광고」 7건 등이 제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덕 문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전화대화방과 신용카드업법을 위반한 카드대출광고, 그리고 성을 상품화한 벗기기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었다.

제1,240호

全南日報 발행인 이정일

#### 〈주 문〉

전남일보 1996년 8월 19, 20, 21, 22일자 13면, 23일자 17면 연재소설 「붉은 大地」(김성종 글·김경수 그림) 제495, 496, 497, 498, 499회 내용 및 제495회 삽화에 대하여 비공개 경고 한다.

〈이 유〉

1. (전남일보) 「붉은 大地」 제495, 496, 497, 498, 499회 등 연 5회에 걸쳐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상사와 부하가 운동권 여학생을 성고문한 후 윤간하는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

〈제495회〉『「여기 옆드려」 중배는 몸을 일으키더니 침대를 가르켰다. 그녀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는 목발로 침대를 툭툭 쳤다.

「난 몸이 아파서 옆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가 옆드려줘야겠어. 상체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높이 쳐들어 주면 내가 하기가 쉽지.」…아무튼 하이에나는 난생 처음 남녀의 교접장면을 보게 되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타하리의 엉덩이는 둥글게 부풀어 있었는데 마치 흰 대리석 조각품을 연상케 하고 있었다. 벌거벗은 중배는 그 엉덩이 뒤에 목발을 잡고 서서 하체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거대한 느낌의 엉덩이에 비해 그의 움직임은 웬지 빈약해 보였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겨드랑이 밑에 걸려있는 권총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미주는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육체가 저주스러웠다.』 운운.

〈제496회〉『…「새끼, 너 흠쳐봤지?」

「무, 문이 열려있기에 잠깐… 히히,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년 엉덩이 하나 끝내 주던데요, 반항하지 않고 잘 대 주던가요.」

「지년이 대주지 않으면 어떡할거야…」

「맞은 어땠습니까? 기막히지 않았습니까?」

「색골이야, 저게 오히려 기분을 내더라구, 기가 막혀서…」

「저기, 선배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

「무슨 부탁이야?」

「저기, 저도 재미 좀 보면 안될까요?」

「뭐가 어째?! 하아, 기가 막혀서…」 …

「아, 임마, 주제파악을 좀 해라. 네 주제에 저 색골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물었다.

「저 이래봐도 그거 하나는 끝내줍니다. 키는 작지만 그것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

「재는 제가 짝사랑하던 애입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제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딱 한 번만 재미보게 허락해 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냐?」

「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

「두고 보십시오.」

「그럼 해봐.」

그 한마디에 하이에나는 입이 찢어질 듯 벌어져서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대신 방문은 열어놔.」 …

하이에나는 그녀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야, 누가 옷을 입으라고 했어? 옷 벗어!」 운운.

〈제497회〉『「내 말 안들려?! 빨리 옷 벗으란 말이야!」

미주는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대학생이죠?」

그는 멍칫하다가 그녀의 잠옷을 움켜잡았다.

「대학생 좋아하네」

그는 잠옷을 확 잡아챘었다.

「S대학생이란거 다 알아요!」

그녀는 거세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하이에나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중배가 소리쳤다.

「이 새끼, 뭐하고 있는 거야?! 잔소리 들으라고 들여보낸 줄 알아? 감질나게 하지 말고 빨리 해치워!」

「이게 저보고 S대학생이라고 하던데요.」

「이름 대보라고 해?」

「야, 그럼 내 이름 말해봐」

「이름은 모르지만 당신 얼굴 기억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야! 빨리 작살내!」

중배가 목발로 바닥을 찍으며 소리쳤다.

「만일 날 건드리면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쫓겨날거고, 언젠가는 강간 범으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될 거예요.」 …

「이 쌍년이 누굴 협박하는 거야?!」

중배는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칼을 움켜잡고 뒤고 젖혔다.

「죽어봐야 알겠어?!」 그는 칼을 그녀의 뺨에 갖다댔다.

「이걸 그어버릴 수도 있어! 대각선으로 그어버리면 이 얼굴이 어떻게 되지? 더 이상 미너라고 콧대 높이고 다닐 수는 없겠지. 너 나한테 약속했지? 체포하지 않는 대신 이걸 주겠다고 말이야!」

그는 그녀를 침대위로 확 밀어버리더니 잠옷자락을 헤치고 그녀의 음부를 한손으로 꼭 움켜잡았다.』 운운.

〈제498회〉 『「아!」 그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소리질렀다.

「약속했어 안했어? 수갑채워서 본부로 끌고 갈까?」

「하, 한 사람만 하기로 했잖아요?」 「언제 한 사람만 하기로 했어? 이놈은 내가 가장 아끼는 부하니까 이놈한테도 대줘! 이건 명령이야! 여러 말 할 것 없어! 자 벌려!」

그가 갑자기 그녀의 다리를 힘껏 잡아벌리는 바람에 그녀는 다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야, 임마! 뭐하고 있어?! 옷벗고 빨리 오지 못해? 이렇게 벌려주기까지 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이에나는 허겁지겁 옷을 벗기 시작했다. 옷옷을 벗지 않고 아랫도리만 벗은 다음 그녀의 다리사이로 접근했다.

미주는 남자가 그녀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진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덜 모욕적이고 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내에게

「이거봐요?! 옷벗을 테니까 이거봐요!」하고 소리쳤다.

중배가 물러서자 그녀는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앞에 아랫도리를 벗은 채 엉거주춤서 있는 조그만 사내의 물건을 쏘아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돌렸다. …

그녀는 잠옷을 천천히 벗으면서 중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가 주세요. 여기 계실 필요 없잖아요.」

「천만에 여기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얼마나 잘 해주는지 봐야겠단 말이야. 두 사람이 흘레하는 걸 보는 것도 일종의 섹스란 말이야.」

「보는 데서는 할 수 없어요.」

「아까 나도 다 봤는데 뭘 그래.」

하이에나가 느물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하이에나를 노려보다가

「보는 데서 할 수 있어요?」하고 물었다.

하이에나는 당황해서 우물거리다가

「그,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말했다.

「라이브 쇼라고 생각하고 한 번 근사하게 해봐. 잘하면 풀어줄거고, 형편없이 하면 풀어줄 수 없어. 잘 할 때까지 몇 번이고 시킬거야.」

「악마들!」 …』 운운.

〈제499회〉 『두 다리까지 가볍게 쳐들러 침대 위에 눕혀진 하이에나가 「어어…」 하는 사이에 그녀는 재빨리 그의 배 위에 몸을 실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일어나려는 사내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그녀는 말을 타듯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안되긴 뭐가 안돼요. 내가 악마한테 계속 당할 줄 알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악마를 정복하면 됐지 정복 당할 수는 없어요!」

중배는 의자까지 끌어다 놓고 구경하면서 그녀의 대답성에 「마타하리는 마타하리다!」하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눈을 속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지켜보았는데, 두 사람의 접촉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하이에나는 처음에는 잔뜩 위축되어 교합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녀가 엉덩이로 그곳을 몇 번 비벼주자 그것은 금방 일어서서 그녀의 엉덩이를 찌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것이 그녀의 하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중배는 질투를 느끼면서 신음을 삼켰다.

몸과 몸이 부딪치는 소리와 여자의 신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

미주는 하이에나를 보지 않고 중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푹푹히 보라는 듯 그 표정을 살피면서 밑에 깔린 하이에나를 거침없이 유린하고 있었다. 그녀가 탄력있는 엉덩이로 힘을 가할 때마다 하이에나는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엉덩이 밑에 깔려 파닥거렸다. 그러나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관계는 의외로 길게 시간을 끌어가고 있었다. 금방 싱겁게 끝내야 했던 중배가 시간이 흐를수록 자존심이 상해가고 있었다. …』 운운하였다.

2. 위 연재소설에서 여대생을 성고문한 후 윤간하는 장면을 잔인하고 부도덕하게 묘

사한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항 및 제13조 어린이보호 ④항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1,512호

京仁毎日 발행인 신연석

朝鮮日報 발행인 방상훈

△ 京仁毎日 1996년 5월 1일자 11면 사이드 톱 「道內 性범죄 잇따라」 제하의 6단기사  
△ 朝鮮日報 1996년 5월 13일자 39면 2단 「10대 한밤 각목 난동 차량 18대 부쉬」 제하  
의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 〈이 유〉

(京仁毎日) 【城南=金祥萬기자】 발 기사로 『요즘 들어 성남시내에는 성범죄가 부쩍  
늘고 있어 부녀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 같은 날(27일) 분당구 신기동에서는 다래  
원이라는 중국집 배달원 고준석 군(20·상평동)과 안종진 군(18·성남동)이 술에 취  
해 귀가하는 서 모양(25)을 탄천 고수부지로 끌고 가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한 후 고군  
은 구속되고 안군은 도주했다.

또한 …성남 K대 1년생인 이종준 군(18)이 이 모양(24)을 뒤따라가다 골목길에서 추행  
하는 등 …』 운운.

(朝鮮日報) 【光州=李建昊기자】 발 기사로 『심야에 청소년 폭력배 9명이 쇠파이프  
와 각목을 휘둘러 차량 18대의 유리창을 부수며 난동….

김종철 군(16·고1) 등 청소년 폭력배 9명은 12일 새벽 1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문흥  
동 말바우시장 입구에서 각화동 주공아파트까지 약 1km를 술에 취한 채 이동하며 길  
가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 등 차량 18대를 파손시키다 전남경찰청 폭력계에 연행됐다.  
…』 운운하였는데.

귀지는 성범죄 및 폭력에 관련된 청소년 비행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18세 이하 청소년  
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미성년보호취지에 어긋났다고 보아 위와 같이 결정함.

제322호

부산매일 발행인 안상영

부산매일 1996년 4월 20일자 22면, 25일자 4면, 5월 3일자 21면 『국가시험정보원의  
「단한번 330만원 투자로 매일 300만원 이상 고정수입? 大特報! 자격증 및 공무원 수험  
서의 모든 것. 대여전문점 탄생!」 전 5단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항 및 동 실천  
요강 강령 4의(4), 신문광고윤리강령에 따른 규제세칙 3의 예3에 저촉된다고 인정, 주  
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 〈이 유〉

위 광고는, 자격증 시대를 맞아 각종 수험서를 지역별로 독점판매하게 하는 전국대여  
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로서 「황금알을 낳는 최고의 선택!! 이만한 사업. 부업이 없다」  
「국가정책사업이다, 반영구적사업으로 국민 모두가 수요자다」 운운하고 330만원 한  
번만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의 수입을 아무나 쉽게 올릴 수가 있다는 상식선을 벗어  
난 과장된 광고를 하여 상식을 벗어난 이익을 강조하면서 독자를 현혹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결정함.

#### ▶ 1997년

1997년 4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신문광고윤  
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심의 처리한 결과 기사는 전년도  
보다 93건(53.7%)이 늘어난 266건이고, 광고는 오히려 75건이 줄어든 309건  
으로 집계됐다. 1996년 근대신문 창간 1백주년인 ‘신문의 날’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언론인들 스스로가 이를 준수하고 실  
천하기 위해 채택한 새 신문윤리강령이 무색할 만큼 기사에 대한 심의결정이  
증가한 것이 특징 아닌 특징이었다.

특히 결정이유별로 보았을 때 기사의 경우 표제의 원칙(기사내용의 과장·  
왜곡 금지) 위반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언론인 모두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것이었다. 이어 기사의 정정 불이행 39건, 연재소설의 선정·음란묘사  
28건,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은 보도준칙 위반 19건,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

반 18건,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위반 15건 등도 언론인들의 각성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한편 광고심의의 경우 전체 건수가 감소하긴 했으나 법규위반광고가 144건에 과대표현광고 91건, 미풍양속저해(품격저하)광고 57건, 기사혼동광고 13건, 명예훼손광고 4건 등은 광고인과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치였다. 특히 스포츠지에 등장하는 폰팅광고의 경우 남녀 간에, 특히 청소년들에게 성적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높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광고는 명백한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였다.

결정 97-1027

朝鮮日報 발행인 방상훈

#### 〈주 문〉

朝鮮日報 1997년 3월 29일자 1면 「親北세력 ‘黃長燁 리스트’ - 與野인사 포함확인」 제하의 머릿기사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신한국당의 鄭亨根 정세분석위원장이 3월 27일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당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황장엽 북한 노동당비서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친북세력, 즉 ‘황장엽 리스트’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는 내용에 따라 엄청난 잠재적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鄭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세분석 보고를 통해 「黃비서가 국내에 들어오면 북한 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든 ‘황장엽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국면은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야권은 黃비서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정국이 안보정국화해 자신들에게 심대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조마조마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가 그렇다고

이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鄭위원장은 「우리는 이것이 터져나올 경우 국내에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 관계 소식통은 「황비서가 베이징 한국영사부에 머물고 있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황장엽리스트’가 대충 파악된 것으로 안다」며 「리스트에는 여야 모두 제법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黃長燁은 귀순과정에서 「남한의 깊은 곳에도 우리 사람들이 박혀있다」고 밝힌 바 있다.』

2. 朝鮮日報는 신한국당의 鄭亨根 정세분석위원장이 당 의원 및 지구당 위원장 연찬회에서 행한 정세분석 보고 중의 ‘黃長燁 리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기사 말미에 여권의 고위소식통이 “황장엽리스트에는 여야 모두 제법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며 덧붙이면서 주표제를 「親北세력 ‘黃長燁 리스트’ - 與野인사 포함확인」이라고 크게 달아 보도하였는데, 이는 마치 그동안 설(說)로 떠돌던 黃리스트가 실재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표제이며 “보도기사는 그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하고 미확인 사실을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黃리스트 說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그것이 몰고올 충격과 파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이에 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하거니와 특히 黃의 망명이 완성된 상태도 아니고 망명의 동기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대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언론의 올바른 자세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및 제10조 「편



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98-1035

서울경제 발행인 김영렬

#### 〈주 문〉

서울경제 1998년 3월 12일자 22면 「자연과 벗삼은 21세기형 ‘청정주택’」 제하의 10단 통 특집기사에 대하여 비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일자의 22면에 동성종합건설이 광주군 쌍현리에 분양하는 〈동성아파트〉를 소개하는 부동산 특집을 10단통의 기사면 전체에 걸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자연과 벗삼은 21세기형 ‘청정주택’ 이란 1단통에 걸친 특대호 활자컷의 주표제 아래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수도권 유일의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경기 광주군이 21세기의 전원아파트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광주군은 서울 분당 등지로의 출퇴근도 쉬워 전원생활을 갈망하는 도시인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 동성아파트의 경우 중부 고속도로와 3번 국도 및 45번 국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서울강남지역까지 40분, 성남 및 분당신도시까지 20분이면 닿는다…

특히 시흥~안산~수원~용인~광주를 잇는 수도권 광역전철망 2단계 사업과 광주읍 우회도로가 2001년께 완공되면 교통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도로 확 포장 및 교통망 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이 일대 아파트에 대한 투자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자연환경과 교통여건에 있어 용인에 뒤질 게 없는데다 분양가가 평당 300만원대로 용인지역 아파트보다 100만원 이상 싸기 때문이다. … 빼어난 환경은 동성아파트의 최대 장점이다.

동성아파트 이웃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구역이어서 아름다운 풍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도권의 환경특구인 셈이다. … 동성종건 관계자는 「입지여건도

좋고 개발전망도 밝아서인지 분양을 시작하기 전부터 선착순 분양시 우선권을 달라는 입주자들의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운운하면서 동아파트의 위치도는 물론 광주군 교통망계획도까지 게재, 자세하게 소개했다.

㉡ 이어 「맥반석 바닥시공 ‘건강설계’ 자랑」이란 표제아래 『동성아파트는 입주자의 건강을 위한 과학적인 설계가 돋보인다. 동성측은 쌍령리 아파트에 「건강설계」를 적용했다고 자랑한다.

안방 바닥은 전평형을 맥반석 모르타르로 시공, 건강 에너지가 살아 숨쉬도록 했다. 모르타르로 시공하면 단열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너지가 절감된다. 원전외선이 열 전달 기능을 활성화시켜 인체에 해로운 독소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다. … 24평형은 알뜰살림을 꾸리려는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주방에는 주부들이 다양한 생활정보를 익히고 음악을 들으며 일할 수 있도록 라디오 및 식기건조기를 설치했다. 많은 양을 조리하고 세척할 수 있도록 대형 개수대와 기구별 정수기를 갖췄다. 발코니는 확장형 설계로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했으며 안방에는 24평형에서는 드문 조명등 리모컨 장치를 설치했다.

33평형은 같은 평형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49평형은 고급빌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33, 49평형에는 식기세척기를 분양가에 포함해 공급하고 49평형의 주방에는 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홈바를 설치했다. …』라고 동 아파트의 설계 및 평형별 특징을 메리트만을 나열하여 자세하게 홍보하였다.

㉢ 동 특집 하단에는 업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분양가 시차할인제’, ‘중간옵션제’, ‘싼 분양가’ 등 구매조건이 다른 업체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한편 오른쪽 하단엔 「주부마음에 쏙드는 아파트」, 「싼가격 패션마감재 ‘이집이구나’ 확산」, 「방 거실 전면배치 통풍 환기도 우수」 등의 표제를 달아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어느 주부의 반응을 상사체제로 돋보이게 기사화 하였다.

2. 이상 서울경제의 보도는 그 표제나 내용으로 볼 때 기사인지 PR지면인지 현혹케 할 정도로 특정업체의 이익에 동조하는 편집체제와 표현을 함으로써 사회공기로서의 신문의 책임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언론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켰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항(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1998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1998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신문윤리위의 제재를 받은 사안을 결정이유별로 보면 기사는 「언론의 품위손상」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론의 기회」 위반 34건,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위반 30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위반 15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 15건 순이었다.

특히 연재소설이 21건이나 됐는데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의 노골적 묘사’가 대부분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신문판매부수 감소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신문들이 불법을 애써 외면한 흔적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였다. 음란문화가 위험수위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비춰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이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었다.

한편 광고의 경우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이 무려 108건으로 독자들을 현혹 오도하고 있으며, 「내용 과장」 48건, 「관련법규 위반」 19건, 「미풍양속 저해」 10건 등이었다. 이 역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이 낳은 또 하나의 현상이었다 할 것이다.

결정 98-1103

경향신문 발행인 홍성만

### 〈주 문〉

경향신문 1998년 6월 26일자 10면 머릿 기사 제목 「弗’타는 에너지 소비 大國」 및 7월 3일자 2면 가로 3단 기사제목 「軍살’ 빼 작고 강한 군대로」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의 위 표제 「弗’타는 에너지 소비 大國」은 IMF체제 이후에도 유류소비가 예년수준에 육박해 귀중한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을 빗대 ‘불타는’이란 우리말을 차용한 듯하며, 「軍살’ 빼 작고 강한 군대로」란 표현은 인력·예산 등의 절감을 위한 국방부 개혁안 내용을 「군살빼기」란 우리말에 한자를 대입시킨 국적불명의 조어라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어법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제목들은 우리말의 순수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한자 사용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며 국어순화에 앞장서야 할 언론본연의 자세를 저버린 것으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및 동 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주의’ 환기와 ‘비공개경고’ 등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98-1060

경상일보 발행인 최종두

### 〈주 문〉

경상일보 1998년 4월 25일자 3면 「선거법 개정안 손 묶고 입 풀어」제하의 머릿기사에 대하여 비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경상일보는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여러 면에서 예전 선거와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 연합공천등 일부 쟁점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했지만 고비용 정치구조를 상당부분 개선,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광역 및 기초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

여야는 광역의원의 경우 그동안 시·군·구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인씩 선출했으나 이번부터 2인씩 뽑기로 해 전체 광역의원수를 30%정도 줄였다.

또 기초의원원은 읍·면·동마다 1인씩 뽑고 5천명 이하인 동의 경우 인접 동과 통합도록 개정, 의원수를 4천5백41명에서 24%정도 줄여든 3천4백30명으로 감축했다.

이와함께 후보자 명함형 소형 인쇄물과 현수막을 폐지기로 하고 법으로 허용되는 유급선거 사무원수도 대폭 감축, 기초단체장선거는 읍·면·동 수의 3배수 이내로, 시·도의원선거는 10인 이내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5인이내로 각각 줄였다.

선거사무소의 경우 시·도지사 선거는 구·시·군 숫자 이내로 하고 선거연락소는

구·시·군내 읍·면·동수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후보자의 주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축의금 및 부의금품 허용한 대신에 논란의 대상이 됐은 배우자의 연설·대답 등 선거운동지원을 공개장소에 한해 허용하고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뿐만아니라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 초청대답 및 보도를 허용, 돈은 묵고 「입」을 푸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대통령선거의 경우처럼 시·도지사선거의 신문광고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되며 방송연설은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가 TV·라디오별로 각 2회이내, 시·도지사 후보가 각 5회 이내로 확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시·도지사 선거에서 구·시·군마다 3회까지 허용했던 정당 및 후보자 연설회는 1회로 축소되고 시·도지사 후보의 방송광고도 전면금지된다.

과열된 사전선거운동을 막고 공정한 선거운동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정도 도입됐다.

개정 선거법은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만 금지해온 각종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로 확대하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광고 출연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치단체 홍보물 발행을 중지토록 해 관련선거 시비 요인을 없앴다.

또 선거법 위반광고물은 선관위가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선거운동 시비」를 차단토록 했다.

노동조합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이며 후보자 자격을 좌우하는 공직사퇴 시한과 후보자 거주요건은 종전 선거일전 90일에서 선거일전 60일로 단축됐다.

그러나 선거법 협상이 늦어지면서 선거일전 60일을 넘게 되자 부칙에 이번 선거의 경우 사퇴시한을 「선거법 개정안 공포·시행일 3일 이내까지」로 예외조항을 뒤 「정치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배○○ 기자」

2. 위 기사는 聯合通信이 제공한 「통합선거법 개정안 풀이」 제하 해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자사기사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기사로 바뀌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98-2014

충청일보 발행인 안병섭

### 〈주 문〉

충청일보 1998년 6월 5일자 12면, 6일자 2면 5단 12cm 「법정사 포교원 정음사원의 암과 난치병 등 완치될 수 있다」 광고에 대하여 비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위 광고는 심령연구학자 김정음 스님이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암 등 난치병을 기(氣)치료, 심령치료로 완치한다고 하면서 “불력(佛力)·기적의 손·신비의 눈! 正音스님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

2.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선전을 하여 암 기타 난치병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보아 신문광고윤리강령 1 및 4, 동 실천요강 강령1의 (1) 및 강령 4의 (1)을 위반하였다고 인정,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1999년

1999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 결정한 결과 제재 건수는 총 287건으로 전년도보다 57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이유를 보면 먼저 「반론권 제공」 위반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정주의 및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 50건, 「보도 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위반 34건,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위반 10건 등이었다.

이는 ‘보도기사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성범죄·폭력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언론의 공익성이 더욱 강조되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혼음·윤간과 성행위 장면을 선정적이고 음란하게 묘사하거나 잔학한 살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신문소설 심의기준」에 저촉된 연재소설에 대해 3건의 공개경고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스포츠신문의 외설성 보도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주요 독자층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광고에서도 「미풍양속 저해(품격저하)광고」 50건, 「기사혼동광고」 47건 등 모두 103건이 제재 조치되었는데, 이 역시 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에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기사에 대해 공개경고 8건, 비공개경고 94건, 주의 185건을 결정, 전년도에 비해 공개경고만 해도 무려 6건이 늘어났으며 광고의 경우에도 공개경고 1건, 비공개경고 53건, 주의 49건으로 적지 않은 제재결정을 내렸다.

## 2000 - 1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명수

### 〈주 문〉

일간스포츠 2000년 1월 13일자 36~37면 「올 누드 여배우 5시간 인터뷰」 제하의 머릿기사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 올 누드 여배우 5시간 인터뷰

에로배우 장현정, 성인웹진 서비스에 네티즌들 ‘충격’



에로배우 장현정이 욕조 속에서 연설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자신의 섹스 취향과 성감대까지 공개했다. 공중과 드라마에 출연하던 96년 〈연애합시다〉의 출연을 계기로 제로 배우로 변신, 〈몽정〉, 〈몰카 자유학원2〉 등에 출연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은 여성 상위, 유두와 등을 애무할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기쁜 순간이라고 밝혔다.

목욕탕 거실 오가며 알몸공개  
성감대·섹스취향까지 밝혀  
“일의 연장일뿐” 소감도 피력

지난 11일 오후 전화 인터뷰에서도 장현정은 동영상 제작에 거절이 없었다. “촬영 거 없다. 일의 연장일 뿐이다”라며 “초대 AV걸로 선정된 게 기뻐서 골라주셨다”고 밝혔다. “초대 AV걸로 선정된 게 기뻐서 골라주셨다”고 밝혔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에로배우 장현정이 욕조 속에서 맨몸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에로비디오 전문 배우 장현정(24)이 올 누드로 네티즌들을 만나고 있다. 장현정은 인터

넷 한 성인웹진과 장장 5시간 동안 올 누드로 인터뷰를 했다.

AV NEWS는 장현정을 제1호 ‘AV걸’로 선정, 지난 7일 인터뷰를 가진 뒤 9일부터 네티즌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장현정의 누드 인터뷰가 나간 이후 이 사이트에는 하루 수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다.

인터넷 카페와 아파트에서 진행된 인터뷰동안 장현정은 무비카메라와 스틸카메라 앞에서 스스럼없는 자세를 보였다.

지난 11일 오후 전화 인터뷰에서도 장현정은 동영상 못지않게 거리낌이 없었다. “창피할 게 없다. 일의 연장일 뿐이다”라며 “초대 AV걸로 선정된 게 기뻐서 즐겁게 촬영했다”고 한다.

160cm의 키에 33-25-32의 장현정은 컴퓨터를 앞에 놓고 의자에 앉거나 목욕탕과 거실을 오가며 자신의 에로비디오 경력과 촬영 당시의 에피소드는 물론 자신의 섹스 취향과 성감대까지 공개했다. 공중과 드라마에 출연으로 활동하던 96년 〈연애합시다〉의 출연을 계기로 에로배우로 변신, 〈껌테기〉, 〈몽정〉, 〈몰카 자유학원2〉 등에 출연했다. 그가 가장 즐기는 체위는 여성 상위, 유두와 등을 애무할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가끔은 터프하게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다.

비디오를 통해 자위하는 모습도 두 번 보여줬다는 장현정은 “평상시에는 영화와는 판이한 모습으로 살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도 “알아보면 또 어때냐”고 한다.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도 몇몇하다며 실제로는 “예상하는 것처럼 에로비디오처럼 살지는 않는다. 그럴거면 몸과는 직업을 가져야 할 것 아닌가”라고 당당하게 되물었다.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으며 에로배우 외에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만한 번듯한 직업도 있다.

한편 장현정은 “난 이야기가 있는 드라마가 좋은데 관객이나 제작자들은 행위예술을 원한다”고 최근 에로비디오의 과도한 노출에 대해 경계하면서 “남자 친구가 직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오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 ‘목욕탕 거실 오가며 알몸 공개’ ‘성감대, 섹스 취향까지 밝혀’라고 내세운 관련제목부터가 선정성에 치우친 위 기사를 보면 「그가 즐기는 체위는 여성 상위, 유두와 등을 애무할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가슴은 터프하게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다」 「비디오를 통해 자위하는 모습도 두 번 보여줬다는 장현정은 …」 등의 내용은 포르노잡지를 연상시킨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독자가 대다수인 스포츠신문에서 인터넷 성인웹진과 올 누드로 인터뷰한 에로

비디오 전문여배우의 다분히 성도착적인 고백을 과대하게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및 동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②항(편집변경 및 선정주의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한 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99 - 1052 신문윤리강령 위반

##### 1. 全北道民日報 발행인 임병찬

##### 2. 전주일보 발행인 강대순

#### 〈주 문〉

全北道民日報 1999년 4월 1일자 12면 「군산시 휘장사업 특혜의혹」 제하의 머릿기사, 전주일보 1999년 4월 1일자 8면 「개항 백주년 캐릭터사업 부실」 제하의 머릿기사에 대하여 각각 비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위 신문들은 군산시가 개항 1백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벌이는 휘장사업(캐릭터 사업)이 부실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全北道民日報) = 『군산시가 개항 1백주년을 맞아 휘장사업을 실시하면서 휘장 사용료를 크게 웃도는 물품을 구매, 휘장사업을 빌미로 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1백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관촉물 전문업체인 J기업에 맡겨 각종 배지와 벡타이핀, 벡타이와 필기류 등 개인용품과 피복류, 사무용품 등에 걸쳐 이미 판매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는 이 휘장사업을 경쟁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현금 5백만 원과 5백만 원 상당의 휘장물품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군산시는 그러나 불과 1천여만의 휘장 사용료를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휘장 물품을 구매할 계획이어서 휘장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불과 1천여만 원의 휘장 사용료를 내면서 휘장물품의 대부분이 시중에 비해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가격 조정권을 가진 군산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전주일보) = 『(群山)군산시가 개항 백주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한 캐릭터 사업이 조잡스런 상품과 높은 가격 등에 의한 시민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산시는 그동안 많은 행정력을 동원,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마스코트·캐치프레이즈를 공모, 선정하는 한편 공식 휘장업체를 선정, 각종 상품화 사업에 응용하는 캐릭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첫 사업으로 대대적인 관촉활동에 앞서 최근 시 종합민원 대기실내에 6평 규모의 휘장기념품 판매소를 정동기업에 임대해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상품화권자의 알팍한 상술과 시의 관리부족으로 상품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저질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가격도 비싸 시민들의 흥미와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손목시계의 경우 시중 가판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을 개당 2만 3천원에서 4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남자용 벨트 2만 8천원, 지갑 2만 4천원, 커피잔 2개에 2만원, 모자 6천원 등으로 대부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게다가 당초 생활용품과 장식·기념품 등 2종을 합쳐 47개 품목 이상을 시제품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동기업이 플래카드에 홍보한 품목수는 50%를 밑도는 23개 종류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마저 찾는 이가 없어 요즘 휘장기념품 판매소는 민원실 자리만 차지한 채 매일 파리만 날리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시는 4월 1일 개항 기념일을 전후해 수천만원 어치의 상품을 혈세를 들여 구입할 것으로 알려져 의도적이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2. 위 기사들은 군산시가 벌이는 휘장사업의 관련 상품이 조잡스런 데다 값마저 비싸 시민들의 관심 밖인데도 지정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어치나 구매할 계획이어서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나, 비난받은 당사자인 시당국의 해명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음은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및 동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 1056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명수

### 〈주 문〉

일간스포츠 2000년 3월 22일자 26면 수요일재 신세대 현장소설 「블루스 슈퍼마켓」  
(소설 남정욱·사진 박민규) 제35회 내용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일부 생략)

〈제35회〉

『...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별다른 특징 없음’이 주인공이었다. 길쭉한 얼굴에 눈빛만 기이하게 반짝이는 불편한 인상이었다. ‘별다른 특징 없음’의 그 말을 시작으로 악당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힙합바지’가 옷옷을 벗어제쳤다. 오, 이런.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머리가 짧아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던 것이다. 아무리 눌러 잡아도 고등학생 이상을 쳐주기 힘든 ‘힙합바지’는 엉덩이를 이리저리 틀어 가며 음탕하게 팬티를 끌어내렸다. 어설픈 거웃을 발랑거리며 뽀리댄스를 하는 모습에는 손톱만큼의 수치심도 붙어 있지 않았다. 곧이어 ‘선글라스’와 ‘꽁지머리’가 옷을 벗어 던졌다. 서로의 성기를 가리키며 킬킬대더니 심지어 마주보고 길이를 재보기도 한다. 아, 이것들이 난교를 할 모양이로구나. 수입비디오에서나 감상할 수 있었던 적나라한 향연이 머릿속을 질주했다. 다섯 명의 벌거숭이들이 얹혀 돌아가는 상상을 꾸려 가던 나는 ‘별다른 특징 없음’의 손에 들려 있는 8밀리 카메라를 보고서야 악당들의 목적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악당들의 회동 이유는 바로 포르노 촬영이었던 것이다. 소파에 걸터앉은 ‘힙합바지’는 마치 음식의 간을 보듯 ‘선글라스’의 늘어진 총대를 헛바닥으로 찍어보기 시작했다. ‘별다른 특징 없음’은 혀와 살이 만나는 곳에 카메라를 들이대고는 푹푹 떨어지는 말투로 연기지도를 했다.

“깊게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뱉으라구. 그렇지. 천천히 더 천천히.”

“이번에는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녹아 흐르지 않게 하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겠지?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더 빨리.”

‘선글라스’가 킁킁대며 열병 앓는 소리를 냈다. ‘별다른 특징 없음’이 소리를 질렀다.

“지금이야. 꺼내서 얼굴에다 뿌려!”

‘선글라스’가 몸을 떨었다. ‘힙합바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연신 볼멘 소리를 했다.

“뛰야 씨발, 눈에 들어갔잖아.”

‘별다른 특징 없음’은 들은 척도 않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잘했어. 조금 쉬었다 하자구. 다음 선수들 준비하구.”

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랫도리가 찹찹했다. 젠장, 나도 해 버린 모양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한심한 꼴이람. 자책과 곤혹스러움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사이 ‘꽁지머리’가 노랑머리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며 ‘별다른 특징 없음’에게 물었다.

“대장, 이번 영화 제목은 뭐야?”

‘별다른 특징 없음’은 건조한 어투로 대꾸했다.

“폭행해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녀석들은 킬킬 웃었다. 이번엔 ‘힙합바지’가 물었다.

“지금 찍은 건 오프닝 타이틀이지? 대장은 왜 그렇게 까다롭게 찍어? 난 땀 애들하고도 찍어 봤는데 개네들은 대충 카메라로 돌리고 나면 쌀 때까지 내버려두는데.”

‘별다른 특징 없음’의 목소리가 바짝 올라갔다.

“그런 싸구려 새끼들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 나는 작품을 찍는 거야. 예술이라구. 돈은 나중에 더 큰 영화를 찍기 위해 모으는 것뿐이야.”

‘별다른 특징 없음’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악당들은 그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바로 입을 다물어버렸다. 담배를 비벼 끈 ‘별다른 특징 없음’은 다시 카메라를 치켜 들었다. ‘선글라스’가 세일러복을 가져왔다. 아하, 저거였군. 노랑머리는 세일러복을 입고는 침대에 누웠다. 어느새 양복 정장을 차려입은 ‘꽁지머리’가 그 앞에 버티고 섰다. 이번에는 동시 녹음인지 ‘별다른 특징 없음’은 손으로만 지시를 했다. 대본까지 있는 모양이다.

꽁지머리 : 이 녀석 아프다고 양호실에 누워 있으면 무사할 줄 알았니? 숙제 안 해온 벌을 받아라.

노랑머리 : 죄송해요. 어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는 바람에 ...

꽁지머리 : 네 주제에 남자 친구가 무슨 군대를 가? 소년원이나 갔겠지.

노랑머리 : 잘못했어요. 흑흑.

꽁지머리 : 네 장래를 위해서라도 따끔하게 벌을 줘야겠다. 뽕끼 그만 치고 어서 일어나 내 것을 1분간 빨거라.

노랑머리 : 으음, 선생님 이상한 맛이 나요.

꽁지머리 : 당면이지. 여기가 꽃집인줄 아느냐?

노랑머리 : 근데 선생님. 숙제는 저만 안 해왔나요?

꽂지머리 : 그럴 리가 있겠니. 영자, 말숙이도 빈손으로 왔단다. 모두 벌을 받았지. 네 걱정이나 해라. 이제 그만 다리를 벌리려무나.

어처구니없는 대사는 거기까지였다. ‘꽂지머리’는 넓다 노랑머리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터널 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간혹, ‘아잉 아잉, 몰라요’ 하는 노랑머리의 애교와 ‘아하 아하, 못 참겠다’ 하는 ‘꽂지머리’의 답변이 삽입되기도 했다. 10여분쯤 지나 문 여는 효과음에 맞춰 ‘꽂지머리’가 뒤를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김 선생님 아니세요. 마침 잘됐어요. 이 녀석 벌을 주는데 워낙 맏집이 좋아 저 혼자 힘으로는 달리는군요.”

김 선생님 역할의 ‘선글라스’가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저도 지금 막 벌을 주고 오는 길이라 기운이 없는데….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교장선생님을 모셔오면 되겠군요. 그때까지만 고생 좀 하십시오.”

그 뒤로도 한참을 이어진 ‘꽂지머리’의 벌주기는 30여분을 끝냈다.

걱정했던 교장 선생님은 등장하지 않았다. 아마 재미있으라고 끼워 넣은 대사인 것 같았다. 촬영을 마치고 ‘별다른 특징 없음’은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오늘, 모두 수고했어. 내일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와 ‘아들아, 미안하다’를 찍을 거니까 예비군복이랑 한복 빼먹지 말구.”

…

“다음엔 멘스할 때 하는 걸 찍어야 하는데 너 언제 해?”

노랑머리는 후욱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나 멘스 안 해. 임신했어.”

…』

2. 위 소설 인용부분은 10대 청소년들을 등장시켜 「폭행해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포르노 영화를 촬영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으로, 남자 선생이 숙제를 안 해온 여학생들에게 벌로서 자신의 심벌을 빨게 하고 그 정액을 여학생 얼굴에 뿌린다는지, 몸이 아프다고 양호실에 누워있는 여학생을 불러 해괴망측한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장면과 음담패설 수준의 대사로 채워져 있다. 이는 주 독자층인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성적 수치심과 극도의 혐오감을 유발할 우려가 크며 신문의 품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문소설 심의기준 2(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노골적으로 묘사한 것),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에 저촉되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99 - 2031 신문광고윤리강령위반

스포츠투데이 발행인 이상우

### 〈주 문〉

스포츠투데이 1999년 4월 17일자 28면 세로 16cm×가로 전단 「쌍용정유 ‘즉석행운권 대잔치’ 대박 터진다!」 제하의 광고 및 20, 21일자 각 36면, 23일자 28면 세로 26.5cm×가로 전단 「영어회화 교재의 한국판 바이블」 제하의 광고와 23일자 40면 세로 20cm×가로 전단 「용가리 상륙했다!!」 제하의 광고에 대하여 비공개경고 한다.

### 〈이 유〉

「쌍용정유…」는 3만 원 이상의 주유고객을 대상으로 그랜저·마티즈 등 자동차와 TV·주유 상품권 등 총 10억 원 상당의 경품을 건 즉석 복권행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하단엔 이와 전혀 다른 음료수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영어회화…」는 하단에 「영어가 당장 급하십니까?」라는 광고와 함께 〈오성식 파노라이브 잉글리시 시리즈〉를 선전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용가리…」 역시 하단의 광고와 함께 심형래의 용가리 복합매장을 선전하고 있다.

위 3개 지면 전체가 기사식 편집체제와 표현을 원용하고 있음에도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독자들을 현혹·오도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전면 광고〉라고 명기하는 다른 신문들과도 비교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99 - 2032 신문광고윤리강령위반

1. 世界日報 발행인 이상희

2. 경향신문 발행인 홍성만

### 〈주 문〉

世界日報 1999년 4월 19일자 12면, 21일자 25면, 경향신문 4월 22일자 25면 세로 17.5cm×

가로 전단 「여성을 위한 뷰티 가이드」 제하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비공개경고 한다.

#### 〈이 유〉

‘여성특집’으로 지면의 성격을 명시한 이 광고는 「골반 수축력 강화」, 「동의보감 다이어트」, 「가슴고민 끝!」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해당 광고주는 전화번호만 표기) 기사식 편집체제로 독자들을 현혹·오도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世界日報의 이 광고〈편집형태는 다소 변경〉에 대해서는 ‘광고표시 없음’을 이유로 99년 3월 3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708차 회의에서 ‘주의’, 3월 31일 제709차 회의에서 ‘비공개경고’ 조치한 바 있으며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제708차 회의에서 ‘주의’를 환기한 바 있음.)

### ▶ 2000년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기사와 광고를 심의한 결과 결정건수는 총 499건으로, 전년에 비해 109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경우 「선정보도 및 선정편집 금지」 위반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신문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부수 신장을 위해 독자의 눈길을 끄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한데 따른 것으로 보였다.

이밖에 「답변의 기회」 위반 49건,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위반 47건, 「사진 등의 출처 명시」 위반 28건, 「연합뉴스 자사기사화」 위반 23건,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위반 14건,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위반 12건 등의 순이었고, 광고의 경우 「미풍양속 저해」 57건, 「과대광고」 54건, 「기사혼동광고」 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 단계별로는 기사에서 ‘공개경고’가 14건, ‘비공개경고’ 86건, ‘주의’ 217건으로 ‘공개경고’만도 전년도 6건이 늘어났으며, 광고도 ‘공개경고’ 7건, ‘비공개경고’ 43건, ‘주의’ 132건으로 ‘공개경고’는 6건이 늘어났다.

이는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아 각종 매체가 등장하면서 ‘음란문화’가 빠른 속

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소재로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기까지 한 스포츠지들의 선정적인 보도자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 - 1086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매일 발행인 박성규

#### 〈주 문〉

중부매일 2000년 5월 5일자 5면 「“꽃… 차… 음식… 허브나라로 오세요” / (주)상수허브랜드 ‘엥클허브축제’ 향연」 제하의 전면기사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 〈이 유〉

중부매일은 〈와이드 특집〉이란 문패아래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소재 개인 농장인 ‘(주)상수허브랜드’가 각종 허브제품의 매출 및 입장료 수입 증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엥클허브축제’라는 영리성 행사를 소개하면서 메리트 위주로 보도한 데 다 큼직한 사진을 4장씩이나 곁들이는 등 전면을 홍보성 내용 일색으로 꾸며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중부매일은 올 들어 4월까지 위 기사와 유사한 홍보성 기사 4건(2월 1건, 3월 2건, 4월 1건)을 계속적으로 실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비공개경고’ 3회, ‘주의’ 1회를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홍보성 기사를 전면 특집으로 게재한 것은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 113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투데이 발행인 조희준

#### 〈주 문〉

스포츠투데이 2000년 8월 8일자 34면 연재만화 「수호지(水滸誌)2000」 (고우영 글·그림) 제336회 대사와 그림에 비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스포츠투데이는 위 적시 만화에서 산적 줄개들이 반대편 사람을 죽이고 간을 빼내 그들의 세 두령에게 생식을 권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336회〉 『음메나 드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압니다.”

“두령님들의 고급 식성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자의 간을 꺼내 드리겠습니다.”

“저…놈…들이…”

“시키지도.”

“얹은 일을!”

“앞가슴을 헤치고…”

“찬 냉수를 짹.”

“…해야 피가 엉기지 않아 간이 맛갈스럽다면시료요.”

“으스스.”

“정말…”

“그 자의…”

“그걸 꺼내겠다는 거냐.”

“꾸물거리서 죄송합니다.”

“두령님들께서…”

“얼마나 잡숫고 싶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으…흠!”

“흠”

“흠…”

“충분히 냉각됐겠지.”

“음”

“으…”

“끄으.”

“호으”

“맛있게 드시옵소서.”

“…형님 먼저…”

“아우님 먼저…”

“…!”

“아니지요. 손님 먼저!”

“본시 유고는 화영이 자네의 원수 아니었나? 먼저 드시게”

“머릿속까지 푸욱 썩은 놈이었습니다. 그 런 놈의 것을 왜 먹습니까”

“응! 그렇다! 그 놈의 간이 어쩐지 상한 것 같다”

“그렇다!”

“그래!”

“상했다!”

“내다 버려라!”

“나, 전문가의 눈에도 상했다!”

유고의 간은 계곡에 버려지고 그리고 간장이 제거된 몸체는 산비탈에 묻혔다고 그러 던데 뭘..』



2. 위 만화 인용부분은 고대 중국 사대기서(四大奇書)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수호지를 변안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슴에 찬 냉수를 뿌리고 간을 꺼내야 피가 엉기지 않아 간이 맛갈스럽다.」 「얼마나 잡숫고 싶으신지…」 「머릿속이 썩어 간이 상했다」 등의 대사와 함께 사람을 묶어 놓고 흥기로 간을 꺼내는 장면 같은 잔인하고 엽기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그리고 있다.

이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 독자층인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 20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명수

## 〈주 문〉

일간스포츠 9월 19일자 47면 가로 37cm×세로 10.5cm 「정보플라자」 제하의 광고에 대

### 정보플라자

미국대학 1-2학년 과정 국내서 배운다!  
명지대 사회교육원 '국제교양과정' 개설

국제교양과정 협정 조인식

Ceremony for Agreement on Int'l General Education Studies

명지대 사회교육원

이제는 미국대학 1-2학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할 수 있게 됐다. 명지대 사회교육원이 미국대학의 교양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대학 3-4학년으로 편입, 학위를 취득하는 '국제교양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이다. 이 과정은 미국대학과 주립대 등 11개 대학의 표준

화된 교양과정으로 학점을 취득하면 명지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년 2학기제로 학기당 5과목(15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영어, 세계사, 컴퓨팅기초 등을 필수로 강요한다. 국내와 대학원생 및 교환학생을 졸업한 뒤에 이상이란 누구나 들어 가능하다. 물론 미국 해당대학 입학자격이나 유학비자도 결재유기가 있어야 한다. 오는 9월19일 오후 4시 명지대 대강당에서 설명회가 개최되며 22일까지 등록 마감 예정이다. 문의 02-2009-1486

면서 세련되고 과학적인 어를 갖고 있다. 기간은 9월 20일까지이며 발표는 10월20일이다. 문의02-2009-4367 인터넷 www.somangos.co.kr

롯데케는 프린터 2종 BJC-6200과 BJC-2100SP 수요확산

플러의 스캐너로 사용할 수 있다. BJC-2100SP는 7200DPI의 고해상도 그래픽 출력과 선명한 텍스트 출력은 물론 생생한 4 컬러, 포토 출력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드니 올림픽의 정보가 한눈에-나이키(nike.com/2000) 한국어 사이트 개설

2000시드니올림픽을 맞아 나이키 웹사이트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제다. nike.com/2000 사이트는

하여 비공개경고 한다.

〈이유〉

일간스포츠는 「정보플라자」라는 고정컷 아래 조각 광고들을 짜집기하여 ‘고정광고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식 표현과 편집 체제를 원용하여 기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1년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한 회기 동안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반사항은 기사 281건, 광고 307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광고에서 법규위반 사례를 꾸준히 적발, 전년보다 무려 125건이나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가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수치였다.

위반 이유별 내용을 보면, 소설 만화를 포함한 기사부문에서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위반이 55건으로 가장 많고, 스포츠신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47건, 편파적인 시각으로 ‘공정성’을 해친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위반 27건, 비난받은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도외시한 「답변의 기회」 위반 26건 등으로 나타나 ‘홍보성 기사’ ‘선정적 보도’ ‘불공정 보도’ 부문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언론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고부문에선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음란 전화방’이나 서민들을 괴롭

힐 소지가 높은 ‘카드 및 사금융’ 안내를 남발한 「법규 위반 광고」 127건, 「품격훼손 광고」 48건, 「기사혼동 광고」 3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윤리인식의 제고가 시급한 일부 회원사는 물론이려니와 여타 언론사들도 ‘사실’에 충실한 ‘공정보도’에 주력해야 독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재 단계별 내용으론 기사부문에서 ‘공개경고’ 30건, ‘비공개경고’ 70건, ‘주의’ 181건으로, 광고에선 ‘공개경고’ 4건, ‘비공개경고’ 70건, ‘주의’ 233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기사부문 ‘공개경고’ 30건은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의 표절사례 14건과 스포츠신문들의 선정적인 보도내용 등 7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 - 1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

〈주 문〉

일간스포츠 2001년 7월 20일자 17면 「정양 사이트 '다운직전'」 제하의 머릿기사 및 같은 날짜 21면 「에로배우 정세희 “이번엔 이탈리아 누드 영상”」 제하의 기사, 8월 16일자 30면 「정양 속옷도 '상한가 행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3건의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양 사이트...〉 = 『일흔일곱 할아버지도 정양 누드에 훌쩍 빠졌다. 정양(21) 누드가 가히 핵 폭탄급 위력을 보이고 있다. 사이트 오픈 이틀 만에 회원가입자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순간 체류자 또한 10만여 명을 헤아릴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주 맛보기에 이어 16일 유료(2,000원) 서비스를 시작한 정양 사이트(www.jungyang.co.kr)가 이틀 만에 방문자수 200만 명을 넘어섰다. 가입회원수 45만여 명, 순간 접속자수 10만여 명을 기록하며 누드에 대한 네티즌들의 갈증을 해소 시켜주고



있다.

장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디그룹 측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에 즐거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전긍긍해 하는 형편. 사이트 오픈에 앞서 서버 20대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췄으나 정작 뚜껑이 열리면서 서버가 다운될 지경에 이르자 크게 당혹하고 있는 것.

서버 20대는 이론상으론 동시 접속자수 20만 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용량이나 현실적으로는 10만 명만 동시접속 해도 위태위태한 수준. 자연 동영상에 다운 받는다면지 결제를 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그룹 측은 19일부터 코리아닷컴 하이텔 인티즌 메가캐스트 심마니 등에 정양 누드를 접속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양 사이트 방문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령자는 77세의 할아버지로 밝혀졌고 주요 연령층은 60년대생, 즉 30대말에서 40대 초반의 유부남들이 정양 누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응은 남녀 모두 주로 '아름답다'는 등 호의적이나 일부는 '왜 다 안보여주냐'는 투정 섞인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텔런트 출신으로는 처음 알몸을 선보이는 돌출 행위로 인기를 모은 정양은  
지난 6월 태국에서 현재의 누드화보집을 촬영했다.

한편 정양은 조만간 실시될 스크린세이버 판매 수익금(500원) 전액을 소년소녀가장돕기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에로배우 정세희...〉 = 『에로배우 정세희가 이탈리아에서 찍은 누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선보인다.

정세희는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탈리아의 베니스 로마 폼페이등지를 누비며 찍었던 누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www.isehee.com](http://www.isehee.com)에 펼쳐놓았다. 유료(1회 접속 2,000원)인 이 사이트엔 정세희의 이탈리아 사진 1,000여 컷과 14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담겨 있다. 한꺼번에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선보일 수 없어 수시로 편집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세희는 “헤어누드까지 찍었어요. 국내 실정 상 심각한 수준의 헤어누드는 공개하지 못하겠지만 미리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 외에도 재미있는 것이 꽤 많거든요”라고 장

답했다. 또한 “확대 수술한 가슴도 처음으로 공개해요. 궁금하죠?”라고 덧붙였다.

일주일 동안 6명의 스태프와 함께 이탈리아를 누볐던 정세희는 현지에서 ‘공공노출’로 일관해 술한 해프닝과 말썽을 빚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티칸 성당 앞에서 누드 촬영을 하고, 그러다 경찰서에 끌려가 4시간 동안 조사받는 식이었다.

정세희와 촬영을 맡았던 계동수 사진작가는 “항상 공공장소에서 누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구경꾼이 몰려다녔다. 아무리 개방된 사회라도 공공노출은 역시 소란을 피할 수 없었다. 정신없고 힘들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공공노출인 때문에 정세희의 누드 영상은 이탈리아 명소 기행 효과를 아울러 낳는다.

정세희는 “지금까지 웃은 수도 없이 자주 벗어봤지만 이번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벗은 적은 없었어요. 내 에로 활동의 결정판이라 생각해요”라고 밝혔다.』

〈정양 속옷도...〉 = 『몸매만 뇌쇄적인 게 아니었다.

정양(21)이 한 번 입었던 속옷 세트가 무려 5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인터넷 경매업체 e셀피아([www.esellpia.com](http://www.esellpia.com))가 경매에 붙인 정양의 팬티·브라 세트가 입찰 5일 만에 50만 원까지 치솟아 또 한 번 '왕가슴'의 위력을 떨치고 있다.

e셀피아는 현재 정양이 지난 6월 태국 파타야에서 두 번째 누드집 '정양의 마지막 퍼포먼스' 촬영 때 입었던 속옷과 이제껏 공개하지 않은 올 누드 사진 등 모두 11점을 경매에 붙이고 있다.

“그녀의 향기를 직접 느껴보세요”라는 타이틀로 지난 9일 시작된 이번 경매에서 최고의 인기는 단연 정양의 속옷 세트. 순백의 브라와 팬티에 정양의 키스 마크(브라 오른쪽 패드부분)와 친필 사인(브라 왼쪽 패드 부분)이 새겨져 마니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다.

시초가 1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40여 명이 넘는 입찰자들이 몰려들면서 급등, 단숨에 50만원까지 치고 올라갔다.(14일 오후 6시 현재)

게다가 경매가 아직도 9일이나 남은 데다 막판에는 경쟁이 가열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낙찰가는 적어도 현재보다 2~3배는 더 뛴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참가자는 12억 원과 1,200만 원을 써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참고로 지난 해 영화 <미인>의 이지현이 영화 촬영 때 입었던 팬티 3벌의 최종 낙찰가는 50만 원이었고 미국 마돈나의 누드 사진은 1,450달러(한화 약 188만 5,000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다.

또 정양의 비공개 누드 사진은 17명이 경매에 참여하면서 30만 2,000원까지 뛰어 올랐

다. 처음 선보이는 이 사진은 정양이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으로 36인치에 달하는 가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포인트. 아랫도리를 오른 다리를 구부리면서 자연스럽게 커버한 모습도 뇌쇄적이다.

이밖에 비키니 수영복이 17만 원, 검정 속옷세트가 16만 원, 자주색 슬립이 10만 원에 호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양 누드 촬영 소품(속옷 수영복 선글라스 스커트 립스틱 등) 경매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2. 텔런트 정양과 예로배우 정세희에 관련된 위 3건의 기사는 누드 동영상 유료사이트 및 인터넷 소품경매 등을 소개한 내용으로 '77세의 할아버지도 홀딱...' '이틀 만에 방문자 200만 돌파' '가입회원 45만 여명' 등의 홍보성 기술과 '헤어누드까지 찍었어요' '확대수술한 가슴도 처음으로 공개해요. 궁금하죠?' 등 선정적인 표현으로 호기심을 부추기는가 하면 '그녀의 향기를 직접 느껴보세요'라는 타이틀로 펼치는 정양의 속옷과 누드사진 등의 인터넷 경매내용을 세세하게 보도하여 야릇한 변태풍조마저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들 사이트의 주소를 모두 명기하여 청소년 독자들의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및 ⑤항(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2 - 1051 신문윤리강령 위반

#####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

#### 〈주 문〉

일간스포츠 2002년 3월13일자 22면 「아색기가」(글·그림: 양영순) 제365회 내용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 〈이 유〉

위 만화는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온 아버지가 딸의 방에서 함께 놀던 남자 친구를 소개받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지막 컷에서 아버지와 딸의 남자 친구가 악수로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의 손에서 각각 '체액으로 보이는 물질'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딸과 아버지가 매우 황당해 하는 장면을 묘사해 딸과 남자 친구가 딸의 방에서 성희를 은밀히 가졌음을 상정케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란한 성윤리가 가정의 자녀 방에까지 일반화한 듯이 왜곡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장소에 관계없이 무분별한 성희를 부추기는 등 극히 비윤리적인 소재로 신문의 품격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1 - 2044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윤홍열
3. 스포츠투데이 발행인 조희준

#### 〈주 문〉

일간스포츠 2001년 8월 6일자 7면 가로 20cm×세로 6.5cm, 23면 가로 37cm×세로 10.5cm 및 25, 29면 가로 37cm×세로 17cm, 스포츠서울 같은 날짜 22면 가로 37cm×세로 14cm 및 23면 가로 37cm×세로 23cm, 스포츠투데이 8월 14일자 6면 가로 37cm×세로 3cm 및 23면 가로 37cm×세로 6cm 「700 음성정보 서비스전화」 조각광고 모음에 대해 각각 비공개경고 한다.(위 광고는 매일 게재되고 있으나 대표적 사례로 8월 6, 14일자에 한해 예시)

#### 〈이 유〉

위 700 음성정보 서비스전화 광고들은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매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역기능이 많아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스포츠투데이는 지난해 말 "사회 공익로서의 신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소년 탈선을 부추길 수 있는 음성정보 서비스광고의 게재를 전면 중지한다"고 1면 사고(社告)를 통해 밝혔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등 3개 신문도 본 위원회가 "스포츠지들이 선정성 경쟁을 지양,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전한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경고



서한'을 보내자 음성정보 서비스전화 광고를 금년 4월 1일부터 신지 않겠다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스포츠조선을 제외한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투데이 등 3개 신문이 독자와의 공개적인 약속과 자율결의를 깨뜨리고 7월부터 '전화토크방' 등으로 명칭만 바꾼 채 음성정보 서비스전화 광고를 2~4쪽씩 다시 게재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광고수익 증대만을 겨냥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바,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동시에 신문의 품격을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3) 및 동 규제세칙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2년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 회기 동안에는 그동안 여론의 주변부에 떠돌던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뉴미디어들이 여론의 중심에 진입한 해로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이들 언론의 활약상이 작지 않았다.

정보화 시대의 총아로 등장한 '인터넷 언론'은 그 개방성과 신속성, 다양성을 무기로 여론의 흐름을 리드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 언론'의 또 하나의 속성인 익명성으로 인해 무책임한 여론과 정보를 양산하는 역기능도 보여주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음란 선정적 정보들의 무차별 유포는 우리 사회의 성의식과 성윤리를 파괴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대두하였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한 한 해였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02년 기사 344건, 광고 162건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기사 부문 344건은 전년도 281건에 비해 63건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스포츠 신문들의 선정적인 보도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위반 내용을 이유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사 부문에서 「선정보도의 금지」 위반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성 기사와 관련된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위반이 59건, 「억지 조어」 제목을 남발해 언어체계를 혼란시키고

기사의 의미전달을 방해한 「표제의 원칙」 위반이 25건,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위반이 24건, 비난·비판받은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반영하지 않은 「답변의 기회」 위반이 20건, 「사진 등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위반이 15건, 보도와 평론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보도와 평론」 위반이 13건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등을 위반한 연재만화 18건과 정사 장면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묘사해 「신문소설 심의기준」을 위반한 소설이 모두 10건이었다.

광고부문에서는 「기사혼동 광고」 58건, 「허위광고」 32건, 「풍속저해(품격훼손) 광고」 28건, 「과대광고」 23건, 「법규위반 광고」 18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2002 - 1178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변우형

### 〈주 문〉

스포츠서울 2002년 12월 7일자 1면 「“유민 죽이기”-계획적 음모 의혹」 제하의 머릿기사 관련 상단 사진(25판)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민이라는 일본 출신 탤런트가 일본에서 출연했던 '신 설국'이라는 영화의 러브신이 포르노물로 둔갑해 인터넷 동영상으로 떠도는가 하면 염문설에 전화스토킹사건까지 잇달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를 1면 머리로 처리하면서 전라의 남녀가 섹스에 몰입해 있는 옆면 전신 컬러사진을 지면 상단에 게재하고 있다.(같은 날짜 55판 예선 삭제)



2. 인터넷 동영상으로 떠도는 사진 자체가 기사의 핵심적 요소라 할지라도 클로즈업된 섹스장면을 전신전라(全身全裸)의 컬러사진으로 신문의 1면에 공개한 것은 유례없는 일로 스포츠신문의 주 독자층인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독자들에게도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문의 품격마저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작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및 제10조 「편집지침」 ②항(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 106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학준
2. 중앙일보 발행인 홍석현
3. 대한매일 발행인 유승삼
4. 경향신문 발행인 장준봉
5.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

#### 〈주 문〉

東亞日報 2002년 4월 5일자 A27면 「강남 여대생 피살사건 용의자 몽타주 배포」 제하의 1단 기사, 중앙일보 4월 5일자 35면 「피살 여대생 수사 용의차량 추적중」 제하의 1단 기사, 대한매일 4월 5일자 27면 「여대생 살해 용의자 몽타주 배포」 제하의 1단 기사, 경향신문 4월 5일자 19면 「여대생 공기총 피살사건 납치 용의자 몽타주 배포」 제하의 1단 기사, 일간스포츠 4월 10일자 33면 「조선족 행동대원이 청부살해?」 제하의 머릿기사에 대하여 각각 비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 등은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 『여대생 하모씨(22)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하씨가 납치되기 전 사흘 간 하씨의 아파트 앞에서 서성거리는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우유배달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3명 중 1명의 몽타주(사진)를 작성해 4일 전국에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유배달원 최모씨(44·여)는 “20대 남자 3명을 태운 진한 청색 스타렉스 승합차가 하씨가 납치되기 직전인 지난달 3~5일 오전 5시 반경 하씨의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하씨가 아파트 진입로를 나선 뒤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아파트 폐쇄회로 TV 필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식한 결과 승합차 1대가 뒤따라가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경기도 광주시 검단산에서 머리에 공기총 여섯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H양(22)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실종 이틀 전부터 H양 집 앞에 서 있던 피차량의 차종·색깔·번호 일부를 최면술 기법을 통해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 차량 안에 있던 납치 및 살인 용의자 3명 중 1명의 얼굴 몽타주 1만장을 작성해 배포하고 신고 포상금 3백만 원을 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키 170~175cm 정도에 20대 초반의 몽타주 용의자는 얼굴이 마르고 가름한 형으로 얇은 입술과 오뎅코, 귀밑까지 내려온 긴 노란색 염색 머리고 볼과 이마에는 여드름이 나 있다. 당시 용의자는 어두운 계통의 가죽 점퍼와 면바지, 검은색 구두를 착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차량을 목격한 우유배달원 최모(40)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면술 수사를 한 결과, 최씨가 서울 변호관의 진녹색 스타렉스 승합차로 기억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차량과 같은 색깔·차종의 5백30여대를 대상으로 차적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매일) = 『지난달 16일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하모(22)씨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하씨 집 주변에서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는 최모(41·여)씨로부터 “하씨 실종 2~3일 전부터 승합차 한 대가 주변에서 있었고, 청년 2,3명이 서성거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하씨를 납치하기 위해 하씨의 생활 습관을 알아내고 범행 시점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청년

#### 강남 여대생 피살사건 용의자 몽타주 배포



여대생 하모씨(22)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하씨가 납치되기 전 사흘 간 하씨의 아파트 앞에서 서성거리는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우유배달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3명 중 1명의 몽타주(사진)를 작성해 4일 전국에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유배달원 최모씨(44·여)는 “20대 남자 3명을 태운 진한 청색 스타렉스 승합차가 하씨가 납치되기 직전인 지난달 3~5일 오전 5시 반경 하씨의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하씨가 아파트 진입로를 나선 뒤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아파트 폐쇄회로TV 필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식한 결과 승합차 1대가 뒤따라가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한 명의 몽타주 1만여장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최면상태에서 진술한 승합차의 차량번호 일부와 색깔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경향신문)는 『여대생 하모씨 공기총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목  
격자 최모씨(41·여·우유배달업)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몽타주 1만여장을 작성해  
전국에 배포했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지난달 6일 숨진 하씨가 실종되기 이틀 전부터 하씨의 아파트 입구에 3명 이상의 남자가 탄 진녹색 승합차가 서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 대한 최면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중 한 명에 대한 몽타주를 작성한데 이어 차량번호가 서울 xx8xx4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사건현장에 3일 정도 계속 나타났다면 이들이 사건과 연루된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청부살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직폭력배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일간스포츠) = 『판사 변호사 등 S대학교 법대졸업생 3인, 이른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대기업의 회장 사모님까지 등장한 미모의 여대생 하모찌(21·법대생) 납치·살해 사건에는 전국구 조직폭력배가 동원된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34일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이 치정관계가 아닌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검·경은 하씨 납치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타렉스 승합차 20여대를 추적하는 한편, 조선족을 고용한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 등의 행적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중략)

이 폭력조직은 수년 전부터 잃을 것이 없는 조선족을 고용, 행동대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목격자인 우유 배달부 최모씨(41·여)가 최면술 조사 등을 통해 진술한 '서울 XX 8XX4'라는 번호판을 단 진녹색 스타렉스 승합차인 용의차량에 대한 차량 조회 및 분석을 통해 20여대를 추적하고 있다.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엽기적인 하씨 납치·살해사건은 조직폭력배와 Y씨 간의 관련 여부, 차량추적 등 3가지 줄기에서 확실한 단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 위 기사들은 강남 여대생 피살사건 용의자의 몽타주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목격자의 직업·성별·성(姓)·연령 등을 밝혀 살인범이 역추적을 통해 목격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어렵사리 나선

목격자의 신분을 노출시킴으로써 목격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제공하였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⑤항(취재원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 2049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 1. 東亞日報 발행인 김학준

## 2. 문화일보 발행인 김정국

### 〈주 문〉

東亞日報 2002년 8월 16일자 A2면, 문화일보 20일자 2면 가로 37cm×세로 17cm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제하의 의견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환기한다.

### 〈이 유〉

위 의견광고는 시스템사회운동본부(대표 지만원)라는 임의단체가 저간 북한의 김정일 집단과 남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일명 햇볕정책)에 대해 5개의 소항목을 제시하면서 “1. 김정일의 운명이 다급해 졌습니다. 2. 김정일없는 좌익은 뿌리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김정일보다 더 다급하게 김정일을 살리려 합니다. 3. 정권말기에 들면서 더 정신없이 퍼줍니다. 4. 약점이 단단히 잡힌 모양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사실상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5. 마지막 발악이 시작됐습니다.” 등 시종 ‘극우적’관점에서 조목조목 비판(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아무리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특히 다섯번째 항목의 설명가운데 “쌀,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당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

#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 국민은 증거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국민은 증거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국민 경계령을 발령한 이유는,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익세력은 대국민 경계령을 발령한 후,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익세력은 대국민 경계령을 발령한 후,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21년 장학금 지급이 11월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2.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3.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4.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1.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2.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3.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4.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미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 21 법률 5029호)취지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함은 물론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관단체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및 동 실천요강 강령 3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3년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한 회기동안 기사 318건, 광고 316건이 지적됐다. 기사는 전년도 344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광고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광고부문에선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법규위반·허위과대표현 등이 늘어나 총체적인 저급·저질화가 초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사부문은 특히 스포츠신문들의 건전화가 반영되면서 「선정보도의 금지」위반이 51건에 그쳐 전년의 107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홍보성 기사로 분류되는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위반은 59건에서 90건으로 폭증했는데, 광고물량의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신문이 안고 있는 고민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 2003 - 1057 신문윤리강령 위반

####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

#### 〈주 문〉

일간스포츠 2003년 4월 15일자 20면 「밤꽃향 러브주스 “마셔? 말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액을 삼키는 여성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두유처럼 희멀그레 한 것이, 막상 삼키고 나면…。 그 뭐시냐, 알로에 원액처럼 미끌미끌 찢득찢득하게 목구멍에 착 달라붙어서 잘 내려가지도 않는다.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는 듯도 하고, 뭔가를 날걸로 먹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약간 비위가 상하는 것도 사실이다.

고로, 정액을 삼킨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비위에 거슬릴 수도 있는 물질을 전혀 비위 상하지 않게 받아들여려면, 아래 세 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고양되어 있을 때.

엔도르핀을 최대한 샘솟게 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사로 잡혀 있을 때. 아빠 엄마들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다가 오줌을 맞아도 마냥 허허거리며 행복해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시겠다.

둘째, 남자에게 사랑 받고 있을 때.

자신의 정액을 누군가가 받아 마셔 주는 것에 대한 환상을,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포르노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니가 말이다. 자신에게 하나득이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봉사 정신을 가지며….

그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상대방이 나의 사랑과 노력에 감동하여 좀 더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보상심리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본다.

셋째, 우리가 변태적이라 일컫는 것에 대한 도전 심리.

쌍방간에 합의만 된다면, 이 세상

에 변태란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지만…。 내 기준에서 죽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한때 유행했던 엽기 동영상에서 나온, 등등…의 장면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세상에는 실제로 위의 짓거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정액 마시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의 범주 안에 포함 시켜 놓는 사람도



분명 많을 것이다. 그것은 곧,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파트너는 그 행위를 변태적이라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액을 마시려면... 고 정도 레벨의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어야 하고, 그 취향의 단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본다.

위의 세 가지를 골고루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액을 먹는 일은 고역 그 자체일 것이다. 혹시나, 자신의 애인에게 원치 않는 정액 먹기를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다.

# 지스캇의 변명

일간스포츠에 글이 실리고 난 이후로, ‘화장실 나서 수준의 야설’을 뻔뻔스럽게 써대는 저의가 뭐냐?는 요지의 질문을 수도 없이 받고 있다. 내 손을 떠난 글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니, 내 글과 함께 XX이를 치시든,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여 깨달음을 얻으시든, 세상 말세네~하며 분노하시든 그건 전적으로 독자들의 맘이다.

다만, 나의 쪽스러운 고백들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 “사실은 나도 그랬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게 한다면, 그 것으로 나는 어느 정도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듯 하다.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음란함’도 밝은 데서 보면 충분히 ‘건강함’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foxylove.net 운영자 이연희]

2. 위 기사는 ‘이연희의 지스캇카페에서’라는 외부 필자의 글로 여성이 남성의 정액을 마시는 행위에 관한 혐오스러운 심리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두유처럼 희멀그레 한 것이, 막상 삼키고 나면...알로에 원액처럼 미끌미끌 찢득찢득하게 목구멍에 착 달라붙어서...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는 듯도 하고, 뭔가를 날걸로 먹는...’ 등의 표현처럼 상식적으로는 매우 역겨운 변태적 성 행태임이 분명함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일탈행동’으로 미화하고 있는데 이는 음란 포르노잡지 수준의 낮 뜨거운 내용으로서 청소년은 물론 성인독자들에게도 왜곡된 성의식을 전파함은 물론 신문의 품격마저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및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1031 신문윤리강령 위반

- 1. 국민일보 발행인 노승숙
- 2. 국제신문 발행인 이종덕
- 3. 내일신문 발행인 장명국
- 4. 부산일보 발행인 김상훈
- 5. 세계일보 발행인 사광기

<주 문>

내일신문 2004년 2월 5일자 03면 「2004 총선시민연대 발표 공천반대자 명단」 제하의 기사, 2월 10일자 03면 「2004 총선시민연대 2차 공천반대 명단」 제하의 기사, 釜山日報 2월 10일자 2면 「총선연대 발표 2차 낙천 대상자」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월 11일자 5면 「낙천 대상자 명단」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월 11일자 5면 「2004 총선시민연대 2차 낙천대상자 명단」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월 11일자 4면 「총선연대 2차 낙천대상자 명단」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를 환기한다.

<이 유>

위 신문들은 ‘2004 총선시민연대’가 두 차례로 나눠 공개한 17대 총선 ‘낙천자 명단’을 보도하면서 낙천의 사유만 밝힌 채 낙천 대상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일체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신중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보도자세라 하겠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 2009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조용상
2. 내일신문 발행인 장명국
3. 東亞日報 발행인 김학준
4. 세계일보 발행인 사광기
5. 한국경제 발행인 최준명
6. 국민일보 발행인 노승숙
7. 한국일보 발행인 신상석
8.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재호
9. 헤럴드경제 발행인 홍정욱
10. 대한매일 발행인 채수삼
11. 중앙일보 발행인 홍석현
12. 서울경제 발행인 김서용
13. 문화일보 발행인 김정국

〈주 문〉

경향신문 2003년 11월 13일자 18면, 내일신문 11월 14일자 03면, 東亞日報 11월 14일자 A22면, 세계일보 11월 14일자 3면, 한국경제 11월 14일자 A15면, 국민일보 11월 17일자 5면, 한국일보 11월 17일자 A5면, 파이낸셜 뉴스 11월 17일자 3면, 헤럴드경제 11월 17일자 13면, 대한매일 11월 18일자 3면, 중앙일보 11월 18일자 30면, 서울경제 11월 18일자 5면, 문화일보 11월 19일자 3면 각 가  
로 27cm×세로 28cm 「HD방송 시범아파트, 전국 50곳 계획 / 11월부터 스카이라이프와 LG전자가 공동으로」라는 헤드라인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를 환기한다.



위 광고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전국에 HD방송 시범 아파트 50군데를 선정, “Sky HD”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구매 시 특별할인도 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스카이라이프’가 방송을 시작한 후 1년 8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디지털방송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글자체와 제목, 사진의 배열 등 기사식 표현과 편집 체제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이 분명할 진데, 비록 기사와 구분하는 선을 그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하지 않은 것은 신문광고윤리강령 4 및 동 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4년

2004년 국내의 언론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관계법을 개정했고 언론 관련 단체와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은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편, 경기침체의 여파는 신문사의 경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여기에 온라인 미디어의 확충은 기존 신문 매체의 위상마저 위협하였다.

이에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의 위상을 높이고 자율적 규제를 심화하기 위해 2004년 11월 ‘신문윤리강령의 개정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여는 등 ‘강령’의 새 단장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독자들의 불만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독자불만처리위원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 등으로 신문사는 물론 유관 단체들의 능동적인 지원과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신문윤리위원회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전국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의 기사 및 광고 중에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를 심의한 결과 기사 353건과 광고 291건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부문은 전년도 318건에 비해 다소 늘어났고 광고부문은 전년도 316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사부문에서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은 언론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자와 데스크들의 업무가 늘어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통신기사의 출처명시’나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편집지침」 등의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고부문의 위반 건수 축소와는 달리 기사부문에서 홍보성으로 간주되는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조항에 저촉된 사례가 지난해 90건에서 141건으로 폭증하고 전체 위반 건수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광고물량의 감소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신문업계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저항을 부르는 빌미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2004 - 1074 신문윤리강령 위반

- 1. 경인일보 발행인 우제찬
- 2. 慶南新聞 발행인 김상수

〈주 문〉

경인일보 2004년 5월 3일자 14면 「돈벌면서 즐기는 ‘황제골프’」 제하의 전면 기사, 慶南新聞 5월 4일자 9면 「영남에 ‘자이’ 바람을 일으켜라」 제하의 전면 기사에 대하여 각각 비공개경고 한다.

〈이 유〉

- 1. 경인일보와 慶南新聞은 위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 = 『(전략)지난해 경기침체와 회원권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1차로 150명의 주주 모집에 성공한 용인CC는 현재 개장을 앞두고 2차로 30명의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금액은 1계좌 2억 5천만 원.(대표전화 031-332-3323) ‘주말 1회 부킹 보장=회원가 1억원’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회원권 시장에서 5억, 6억원대 황제 회원권에서나 가능한 주말 4회 부킹 보장인 점을 감안하면 주말 골퍼들에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 편리한 접근성

수도권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해 최근 명문 골프장이 갖춰야할 제1의 조건은 바로 접근성이다. 아무리 환상적 코스를 갖췄다 하더라도 티-오프 시간을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곳에 위치하지 못했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용인CC의 경우 ‘용인’

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반은 접고 들어가는’ 골프장이다. 영동고속도로 용인인터체인지, 양지인터체인지에서 자동차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만큼 서울에서 1시간이내, 수원과 분당 등지에서는 30~40분 이내 거리로 골프장으로서는 최적의 위치라고 할만하다.(중략)

# 주말 4회 라운딩 보장

한창 피크에 달한 골프시즌, 주말 4회의 라운딩이 보장되는 곳이라면 보통 4~5억 원을 호가하는 황제회원권 골프장으로 통한다. 워낙 부킹전쟁이 치열하다보니 골퍼들 사이에는 ‘주말 2회~2억 원, 주말3회=3억 원’ 하는 식으로 회원권 가격 1억원 단위를 주말 부킹 보장 횟수와 연결짓는 것이 상식이 된지 이미 오래다. ‘대중 골프장’에서 가능한 일일까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용인CC가 주주들에게 주말 4회의 라운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주말을 ‘주주의 날’로 지정, 운영하기 때문이다. 모집 주주가 총 200명에 불과해 연중 전원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해 줄 수 있다.(중략)

# 투자가치, 수익창출

안정적인 고수익 창출과 투자원금 보장을 통해 손실 위험을 없앤 점도 매력중의 하나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의 투자수익이 거래가격의 시세차익은 물론 배당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특히 주주가 2006년 6월 이후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물론 액면 금액 100%의 배당우선권을 부여해 연간 200만 원 이상의 배당수익까지 올릴 수 있어 투자대상으로도 손색이 없다.(중략)

# 구릉지에 자리잡은 내추럴 코스

용인CC는 해발 170~230m의 낮은 동남향 구릉지에 완만한 경사를 갖춘 지형에 위치하는데다 남동쪽으로 평야지대가 펼쳐져 뛰어난 조망권을 확보했다. 북서쪽의 구봉산(465m)을 축으로 서쪽에 달기봉(415m), 북쪽에 정배산(280m)이 위치한 분지형 지형으로,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줘 사계절 골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하략)』



(慶南新聞) = 『영남시장을 적극 공략하라』

LG건설이 영남지역 아파트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LG건설 주택영남사업담당에게 내린 특명이다.

지난해 9월 영남시장 개척을 위해 신설된 주택영남사업담당조직은 기존의 지역업체들과 대우·롯데 등이 주도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파고들기 위한, 다양한 틈새시장공략 전략을 수립했다.

그동안 'LG빌리지'라는 브랜드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고급아파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온 LG건설이 '자이(XI)'라는 브랜드를 내 놓은지 약 1년여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LG건설의 이 같은 선택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이후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엔 환과가 몰아쳤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대폭 개편되면서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 신규아파트 청약 및 계약률이 급감하고 미분양사태가 속출하는 등의 상황에서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

무엇보다 수도권에선 토지의 확보가 어렵고 정부의 정책들도 수도권 위주의 많은 규제들이 수주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중략)

▷영남에 '자이' 바람을 = 지난해 8월 김갑렬 LG건설사장은 “영남지역에 '자이'바람을 일으켜라”는 임무를 하달하였고 이 때부터 주택영남사업담당 조직은 '자이' 알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영되던 '자이'광고를 지방시장에 까지 전면 확대편성하여 브랜드이미지 고취에 주력하였고, 광려천 LG메트로 자이의 경우 개별 프로젝트 광고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명기 광려천 LG메트로 자이 분양소장은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경남지역에 '자이'브랜드를 알려 최첨단 고급아파트의 이미지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특화된 상품으로 승부한다 = 소비자중심으로 재편된 시장구조 속에서 LG건설은 타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무인출동경비시스템, 그리고 친환경마감재시공이다.

◇ 최첨단 주거문화의 주역 홈네트워크 시스템 = 홈네트워크는 다양한 디지털 가전 제품들을 네트워크기술을 통해 서로 연결하여 집안밖 어디에서도 언제든지 손쉽게 작동·제어 할 수 있게 하는 첨단기술로 아파트에 접목되어 방문자 확인, 가스누출알림 및 화재예방, 가전제품 원격제어 등을 통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다.(중략)

◇ 철통같은 보안시스템 = 올해 초 LG건설은 KT텔레캅과 출동경비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자이' 아파트에 무인 출동경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방범 취약세대인 1, 2, 3층 발코니와 전세대 거실에 적외선 동체탐지기가 무상으로 설치되고 아파트 단지내에 KT텔레캅 직원이 상주하면서 탐지기를 통해 전달된 세대내 이상신호를 1분 이내에 출동하여 확인, 해결할 수 있게 된다.(중략)

◇ 자연과 가장 가까운 건강아파트 = 마지막으로 LG건설이 주력하고 있는 특화전략은 바로 친환경아파트다.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아토피 등의 폐해를 막고 자연과 가장 가까운 주거공간을 위한 친환경벽지, 바닥재, 도료제품을 사용하여 마감시공을 하고 있고 단지내 녹지공간을 특화하기 위해 본사에 조정설계 전담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집밖은 생태공원과 같이, 집안은 자연에 가장 가까운 보금자리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중략)

▷고객은 왕이다. 서비스로 승부하라 = 이제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 건설사가 왕이 아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은 미분양이라는 철퇴를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및 부가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었다.(중략)

주택영남사업담당조직은 작년 9월 부산에 상륙하여 대구, 부산, 진해, 함안 등 영남 각 지역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벌여, 올해 중으로 모두 5천421가구의 공급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난 3월 대구시장에서의 LG월성자이의 성공분양을 시발점으로 4월 LG진해자이도 뜨거운 열기 속에 분양을 마무리했다.

특히 LG진해자이는 모델하우스 오픈 3일 만에 2만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 LG건설의 특화전략이 영남지역에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고 경남지역 최대 프로젝트인 메메드급 아파트단지인 함안군 오곡리의 광려천LG메트로자이는 부산 메트로시티의 명성을 이어받아 지역내 최고급 아파트로 도약할 것으로 건설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2. 위 기사들은 각각 '기획'과 '경제특집'으로 안내된 지면에 큼지막한 '클럽하우스 및 코스 조감도'사진과 '주주특권'요약문을 비롯해 용인CC 골프장 건설자금이 필요해 2차 주주 30명을 모집(경인일보)한다는 내용과 '광려천 LG 메트로 자이 야경조감도 및 공원조감도'에다 LG건설의 주택영남사업 책임자 사진과 인터뷰(慶南新聞) 등을 곁들이면서 기업광고를 능가하는 메리트 위주의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해당업체의 영리적 목적을 도우려 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문의 품격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4 - 1110 신문윤리강령위반 스포츠투데이 발행인 조희준

### 〈주 문〉

스포츠투데이 6월 25일자 17면 「헉! 강간 다룬 게임」 제하의 상자기사에 대하여 주의  
를 환기한다.

### 〈이 유〉

1. 스포츠투데이는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간 장면이 들어간 게임이 나온다. 게임 주인공이 직접 성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몬스터들의 성추행을 목격하고 해결한다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어쨌거  
나 강간이 국내 제작 게임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성인 온라인게임 ‘A3’(a3project.com)가 7월 중순 업데이트하는 ‘레디안 스토리’에 강간  
장면이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속 악마를 숭배하는 타락한 수도승들이 결혼을  
앞둔 처녀를 납치해 눕혀놓고 옷을 찢는 등 성폭행 행위를 간접 묘사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장면은 비디오게임을 보는 듯한 3차원 그래픽 동영상으로 보여질 예정이다.  
게이머가 수도승을 물리치고 위험에 처한 처녀를 구출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A3를 서비스하고 있는 액토즈 관계자는 “성추행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을 뿐 직접적으  
로 강간 모습을 담은 것은 아니며 카메라 앵글을 제한해 노출도 크게 심하지 않다”며

“성인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  
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 위 기사는 ‘A3’라는 성인 온라인게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강간장면이 삽입된다는 사실을 보도하면  
서 이 게임 사이트의 주소를 명기하고 “이 장면은 비  
디오게임을 보는 듯한 3차원 그래픽 동영상으로 보  
여질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악마를 숭배하는  
타락한 수도승들의 강간 행위를 목격한 게이머가 위  
험에 처한 처녀를 구출해내는 권선징악적 내용’이라  
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같은 보도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

### 헉! 강간다룬 게임

#### 내달 업데이트 ‘레디안...’ 처녀 성추행 장면 삽입

강간 장면이 들어간 게임이 나  
온다. 게임 주인공이 직접 성추  
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몬스터들  
의 성추행을 목격하고 해결한다  
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어쨌거나 강간이 국내 제  
작 게임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성인 온라인게임 ‘A3’(a3proje  
ct.com)가 7월 중순 업데이트하  
는 ‘레디안 스토리’(사진)에 강간  
장면이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속 악마를 숭배하는 타락한  
수도승들이 결혼을 앞둔 처녀를  
납치해 눕혀놓고 옷을 찢는 등  
성폭행 행위를 간접 묘사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은 비디  
오게임을 보는 듯한 3차원 그래  
픽 동영상으로 보여질 예정이다.  
게이머가 수도승을 물리치고 위  
험에 처한 처녀를 구출하는 내용  
으로 전개된다.

A3를 서비스하고 있는 액토즈  
관계자는 “성추행을 암시하는 장  
면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강간 모  
습을 담은 것은 아니며 카메라 앵  
글을 제한해 노출도 크게 심하지  
않다”며 “성인들에게 다양한 내  
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획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형철

는 한편 특정업체의 영리적 목적에 영합했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  
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 보도  
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4 - 2036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방상훈
2. 한국일보 발행인 신상석
3. 東亞日報 발행인 김학준
4. 중앙일보 발행인 홍석현
5. 한국경제 발행인 신상민
6. goodday 발행인 이상우
7. 서울경제 발행인 이종승
8. 스포츠조선 발행인 하 원

### 〈주 문〉

朝鮮日報 2004년 4월 30일자 B6면 「옷 안타는  
참옷 진액 세계 최초 개발 성공」, 한국일보 4월  
30일자 A27면 · 5월3일자 B4면 「옷 안타는 참옷  
진액 세계 최초 개발 성공」, 東亞日報 5월 4일자  
B10면 「옷 안타는 참옷 진액 세계 최초 개발 성  
공」, 중앙일보 5월 3일자 E6면 「옷 안타는 참옷  
진액 세계 최초 개발 성공」 · 17일자 E6면 「대한  
민국 부동의 1위 브랜드 ‘캐쉬백’/세계 최초 개  
발품」, 한국경제 5월 4일자 A7면 「“수맥 돌침대”  
가 해결/세계발명품 금메달 획득」, goodday 5  
월 15일자 4면 · 18일자 15면, 서울경제 5월 17  
일 · 19일자 31면, 스포츠조선 5월 20일자 11면  
「대한민국 부동의 1위 브랜드 ‘캐쉬백’/세계 최  
초 개발품」 제하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를

## 옷 탈 걱정 없는 참옷 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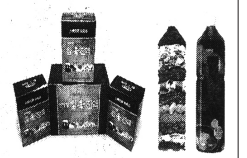
### “부작용 없는 참옷” 세계 최초 개발 서울대 임상실험 완료

십년먹은 체중도 녹인다는 “참  
옷”을 부작용 없이 먹을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나왔다.

한국 농축산 영농 조합에서 한국  
식품 개발 연구원 서울 대학교 생  
명과학 연구소와 함께 옷안타는  
참 옷을 연구 개발하였다. 식품의  
약품 안정청(KFDA)의 인증품으로  
옷이 몸에 좋은 좋은 알지만 옷의  
독성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전통식품의 현대화를 목표로한 농  
림부 국책사업으로서 한국식품 개  
발원(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기  
관) 성기승 박사와 8명이 3년간  
연구개발한 신기술로 제조한 “천  
하무적”은 옷 탈 걱정 없이 누구  
나 안심하고 먹을수 있다.

대한민국 농업과학 기술상을 수  
상하여 더욱 유명해진 참옷 진액은  
중년 남성이나 여성등에 아주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국의 옷담집은 옷의 독성 때문  
에 걱정이 많았는데 2003년 9월에  
식약청에서 식품원료로 정식허가



를 받은 옷담원료로 “천하무적”  
공급 후 본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주문이 많이 들어 오고있다.

“부작용 없는 참옷”으로 MBC(고  
향은 지금), KBS(고향의 아침),  
SBS(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YTN뉴스등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

우리 참 옷과 13가지 한약재로  
만든 “천하무적” 참옷 진액은 80ml  
30포 2박스 2달분이 ₩128,000원에  
공급하며 출시기념으로 옷담원 참  
옷진액 “천하무적” 1.5L 2병(6마리  
용)을 특별 증정한다. 옷담이나 오  
라에 참옷진액을 넣고 끓이면 옷  
담이나 옷오리가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수 있다.

1.5L 1병에 ₩12,000원 6병 12병  
으로 포장되어 있다.

문의 : 02)375-9352

환기한다.

#### 〈이 유〉

분명한 광고주의 표시 없이 ‘웃가네’ 혹은 ‘한국농축산 영농조합’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개발했다고 하는 ‘천하무적’ 상표의 참옷 진액이나 「수맥돌침대」 회사가 발명했다고 하는 ‘수맥돌침대’(한국경제) 그리고 청정 캐쉬백 회사가 개발한 위생 물수건 ‘캐쉬백’ 등은 위 광고 내용 중 특별히 “세계 최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나 유관기관의 특허 또는 인증을 획득한 표시도 없이 “세계 최초 개발 성공”(참옷 진액), “세계 최초의 개발품! 대한민국 부동의 1위 브랜드”(캐쉬백), “세계 발명품 금메달 획득” “세계 천재대회 금상”(수맥돌침대) 수상이라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중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 신문의 품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및 동 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5년

2005년 한 회기 동안 전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기사 및 광고 중에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들을 심의한 결과 기사 468건과 광고 299건이 ‘강령 위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회기에 비해 기사와 광고 건수 모두 늘어난 수치로서 기사부문에서는 여전히 홍보성 내용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광고 역시 법규위반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되는 경영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나 열악한 환경만 탓할 일이 못되는 만큼 업계가 공동으로 ‘신문의 품격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5 - 1143 신문윤리강령 위반(제소사건)

스포츠조선 발행인 하 원

스포츠조선이 2005년 3월 23일자 「최강 TG삼보 팔리나?」 제하의 초판기사와 3월 24일자 「TG삼보 매각결정」 제하의 초판 기사를 연이틀 배달판에서 삭제한 것은 광고주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2005년 6월 16일자로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하였음.

#### 〈주 문〉

2005년 3월23·24일자 ‘TG삼보 매각’관련 기사를 배달판에서 삭제한 스포츠조선의 ‘제작 과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기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조선 3월 23일자 〈최강 TG 삼보 팔리나?〉 = 『정규리그 1위 TG삼보를 다음 시즌에도 볼 수 있을까. 프로농구 TG삼보의 모기업인 삼보컴퓨터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거래소 시장에서 하한가를 거듭했던 삼보컴퓨터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격하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TG삼보농구단에도 조만간 불뚝이 튀지 않을까. 농구계의 걱정어린 시선이다.』

삼보컴퓨터는 주력 사업인 컴퓨터 판매가 지난해 불황이 겹치면서 무척 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이 회사는 누적 적자가 늘어나면서 자본금을 절반 넘게 잠식했고, 주가마저 바닥으로 떨어져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렸다. 물론 지난 18일 전환사채 발행으로 310억원의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발표 덕택에 관리종목으로 추락할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 같은 조치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모 기업의 전례 없는 위기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삼성과의 4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TG삼보농구단의 사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삼보컴퓨터의 경영난을 전해들은 선수들은 장래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 정규리그 1위가 확정된 뒤 연고지인 원주시가 1억원의 훈련 지원금을 쾌척했지만 매년 30억~40억원의 운영비를 감안하면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삼보컴퓨터의 경영난이 알려지면서 농구단 매각설이 다시 불거졌다. TG삼보의 매각

설은 벌써 몇 해 전부터 나왔던 얘기. 특히 지난해엔 강원랜드와 협상을 벌이며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지만 매각대금이 맞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는 뒷얘기가 들렸다. 또 최근엔 포스코가 농구단 창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첩보가 흘러나오면서 “TG삼보농구단의 유니폼을 보는 것은 올 시즌이 마지막”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 3월 24일자 <TG삼보 매각결정> = 『TG삼보농구단의 모기업인 삼보컴퓨터가 극심한 경영난에 휩싸이면서 ‘100억원 마지막노선’을 포기했다.

최근 자본잠식이 알려지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격하할 위기까지 몰렸던 삼보컴퓨터는 기업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TG삼보농구단의 매각방침을 확정하고, 매각 대금도 상당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매각 대금으로 100억원을 고집했던 삼보컴퓨터는 이처럼 높은 액수가 TG삼보 농구단 처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매각 대금을 낮출 계획이다.

삼보컴퓨터는 TG삼보농구단이 ‘에어 카리스마’ 김주성을 영입한 뒤 2002~2003시즌에서 곧바로 챔피언에 오르자 매각을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중저가 컴퓨터 시장의 과당 경쟁으로 적자폭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삼보컴퓨터는 농구단을 통해 더 이상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몇몇 기업과 매각과 관련된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승 프리미엄’에 김주성이란 대어의 가치까지 포함된 100억원이란 액수는 매각 협상에서 장애물이 됐다. 삼보컴퓨터는 지난 2003년 여름 KT와 협상을 벌였지만 100억원의 매각 대금을 고집하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고, KT의 계열사 KTF는 그해 12월 코리아텐더 농구단을 40억원에 인수했다. 또 지난해엔 강원랜드가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삼보컴퓨터가 “100억원 이하는 안된다”고 못을 박아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도 앉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보컴퓨터가 올 시즌 종료와 함께 농구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TG삼보농구단은 상황에 따라 김주성 등 간판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KBL(한국농구연맹)은 코리아텐더농구단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발효했던 선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3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스포츠조선 초판 5면 「최강 TG 삼보 팔리나?」라는 기사가 배달판에서 빠진 것에 대해 광고수주를 위한 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귀 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함.

- 언론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7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스포츠조선에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임.

- 언론노조는 기자가 특정 기업의 약점을 잡아 광고 게재를 강요한 이번 사건이 귀 위원회가 마련하고 대다수 신문사가 채택한 신문 윤리강령에 정면 배치된 것이며 언론의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귀 위원회는 스포츠조선 뿐 아니라 신문 전체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낸 이번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함.

2. 제소사건 관계자들의 소명(요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조선) = 『본 건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는 기사를 통해 ‘특정 기업의 약점을 잡아 광고 게재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가 담당기자를 상대로 확인을 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스포츠조선 담당기자는 ‘TG삼보농구단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간파하여 치밀한 취재 속에 이틀 연속 기사화하였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삼보컴퓨터’는 기사가 나간 뒤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기자의 확인에 따르면 기사가 나간 뒤 당일 오후 TG삼보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광고 관련 대화는 없었습니다. 후에 삼보컴퓨터 홍보실에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기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광고국을 통해 기사가 도움이 안되니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를 했음을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기

# 최강 TG삼보 팔리나?

## 모기업 삼보컴퓨터 극심한 경영난 포스코 창단 움직임에 매각설 술술

1위 TG삼보를 디용사에서도 볼 프론트인 TG삼보의 모기업인 삼보컴퓨터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권철수가 반쯤으로 인조작원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보도 덕분에 관리종목으로 추락할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모기업의 전례없는 위기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삼성가의 4월 28일(수)으로 앞두고 TG삼보 농구단의 사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보컴퓨터의 경영난이 전라지면서 농구단 해산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TG삼보의 백기양을 벌써 몇몇 창단해 나갔던 예가. 특히 지난 1월 18일 권철수가 반쯤으로 인조작원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보도 덕분에 관리종목으로 추락할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모기업의 전례없는 위기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삼성가의 4월 28일(수)으로 앞두고 TG삼보 농구단의 사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모기업 삼보컴퓨터 경영난 심각 대금 낮추고 농구단 매각 확정 상황 따라 김주성 등 트레이드

삼보컴퓨터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권철수가 반쯤으로 인조작원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보도 덕분에 관리종목으로 추락할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모기업의 전례없는 위기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삼성가의 4월 28일(수)으로 앞두고 TG삼보 농구단의 사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보컴퓨터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권철수가 반쯤으로 인조작원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보도 덕분에 관리종목으로 추락할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모기업의 전례없는 위기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삼성가의 4월 28일(수)으로 앞두고 TG삼보 농구단의 사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의 가감·교체 여부는 독립적인 편집권의 행사에 관한 부분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한 ‘미디어오늘’과 기자를 상대로 본사 담당기자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상태임을 밝힙니다.』

(미디어오늘) = 『미디어오늘은 3월 말 즈음 “스포츠조선이 3월 23일과 24일 TG삼보 농구단 매각 관련 기사를 초판에 잇달아 게재한 뒤 광고를 주면 기사를 빼주겠다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재계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받았습니다. 미디어오늘은 TG삼보 농구단의 고위급 관계자 2명으로부터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스포츠조선 기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농구단의 책임 있는 고위급 관계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의혹’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스포츠조선 노동조합) = 『스포츠조선 노동조합은 지난 3월 미디어오늘에 「스포츠조선, TG삼보 매각기사 광고용(?) 제하의 기사가 실린 사흘 뒤 TG삼보 농구단 관계자와 접촉해 스포츠조선 기자가 구단 매각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광고게재를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G삼보 구단 관계자는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1차로 광고를 요구하고, 2차로 광고게재 일자를 확정해달라는 스포츠조선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며 “내가 이려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내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G삼보농구단 관계자) = 『TG삼보 농구단 관계자는 3월 22일 스포츠조선 초판 5면에 게재된 「최강 TG삼보 팔리나?」 제하의 기사를 보고 “무슨 일로 기사를 썼느냐?”고 물어보자 농구담당 기자는 “광고 때문에 쓰게 됐다. 삼보가 광고 문제로 우리를 3차례나 엇 먹였다. 게다가 다른 신문에 광고를 주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농구단의 광고를 집행하는 부서의 부장 및 광고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일간스포츠에 TG삼보 광고가 실렸던 사실을 알게 됐다. 본사 부장은 이에 대해 “광고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스포츠조선 광고국과 상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인 3월 23일 스포츠조선 초판에 「TG삼보 매각결정」 제하의 기사가 재차 보도되자 농구단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로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더 과하게 썼다. 삼보에서 내부적으로 알아봐라. 광고를 언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거냐? 나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본사에서는 거듭 “스포츠조선 광고국과 이야기가 끝났다”고 했으며 그 후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우리 광고국에서 얘기를 잘못 들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은 그 기사를 배달판에서 또다시 삭제했다.

그 뒤 TG삼보농구단은 스포츠조선에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으며, 미디어오늘 기자와 스포츠조선 노동조합에 스포츠조선 기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했다고 농구단 관계자는 밝혔다.』

(스포츠조선 담당기자) = 『이번 건의 핵심은 3월 22일 저와 TG삼보 관계자의 통화 내용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TG삼보 농구단에 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보컴퓨터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농구단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제 기사를 빼는 대가로 광고 게재를 약속했다는 게 논란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귀 위원회의 공문에 따르면 농구단 관계자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농구단 측에서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 핸드폰 통화 내역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농구단 관계자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상식선에서 추론해 봐도 광고를 요구했다면 아마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3월 22일 TG삼보농구단 관계자와의 통화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자: 신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본사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실텐데요.

- 관계자: 농구단 매각 같은 사안은 본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가 없습니다. 들리는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죠.

- 기자: 그러죠.

- 관계자: 그나저나 조금 있다가 본사 홍보실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 기자: 무슨 일 때문입니까?

- 관계자: 통화하시면 알겁니다.

- 기자: 그러죠.

이상의 통화 내용은 농구단 관계자도 모두 기억난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는 광고와 관련된 얘기를 당시 통화해서 제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보컴퓨터 법정관리인) = 『당시는 스포츠조선 보도와 관련하여 TG삼보 농구단 측으로부터 “구단 매각”에 대한 내용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아무 것도 없었으므로 “사실 무근”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농구단은 문제의 기사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였고, 배달판에서 빠지게 된 것이므로 ‘광고 대가성’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후 스포츠조선에 별도로 광고를 제공한 일도 없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스포츠조선·전국언론노동조합·미디어오늘·삼보컴퓨터·스포츠조선 담당기자·TG삼보농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이나 전화로 소명자료를 받아 취합한 결과 위와 같이 광고관련 의혹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위를 명확하게 가릴 수가 없었으며, 조사결과 ‘광고수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TG삼보농구단의 광고는 이 기사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기에 스포츠조선에 별도로 게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스포츠조선이 이들 연거푸 초판에 나간 같은 내용의 특정 기사를 배달판에서 삭제한 ‘제작 과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사의 가감·교체가 ‘독립적인 편집권 행사’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광고국을 통해’ 기업이 선처를 호소한다고 해서 이를 수용해 신빙성 있는 기사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교체’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소명내용에서 드러난 몇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확증’은 없지만 일부에서 ‘광고수수 의혹’을 제기할만한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항(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및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④항(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5 - 2013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학준
2. 세계일보 발행인 사광기
3.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
4. 스포츠투데이 발행인 이정우
5. 한국일보 발행인 이종승
6. 한겨레 발행인 정태기
7. 한국경제 발행인 신상민
8.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행수
9. 경북일보 발행인 최창호

#### <주 문>

東亞日報 2005년 4월 1일자 A26면 「정력확실 男/최신정품(미제)/비아○○ 씨알○○

/1통, 1BOX, 낱알/010-7219-4447」 등·15일자

A25 외 「완전후불/미제정품/비아, 씨알, 레비○○  
○○/1BOX(저렴, 낱개도 판매)/010-3981-7771」

등, 세계일보 4월 1일자 A16면·6일자 A20면

「강한 男/정품(영국,미국)/비아○○ 씨알○○/

(3일 72시간)/확실한 남성100%/010-3040-1242」, 일간스포츠 4월 1일자 6면 「확인 후

결제/미제정품/ 비아○○, 씨알○○/100%효과, 72시간 지속/010-5781-4646」 등·18

일자 6면 외 「확인후 결제/미제정품/비아, 씨알, 레비○○/효과 100% 72시간 지

속/010-5781-4646」 등, 스포츠투데이 4월 2일자 9면·18일자 15면 외 「정품 후불제/비

아, 씨알 직수입 발기효과 100%/특별사은품 여성용 환제품/010-3148-5485」 등, 한국

일보 4월 2일자 16면·15일자 A10면 외 「강력 男/비아, 씨알,레비/1BOX 32만(낱개판

매)/010-8699-8602」 등, 한겨레 4월 4일자 11면·18일자 10면 외 「남성 힘/효과만족

100%〈후불제〉/비아, 씨알/미제정품/010-3148-3276/전국배달가능」 등, 한국경제 4월 4

일자 A27·18일자 A18면 외 「후불제/★미제정품★/비아,씨알,레비/낱개 판매가/010-

6871-6648」 등, 스포츠서울 4월 6일자 22면 「남성 힘/후불제 영국 미국 최신 정품/비

아○○, 씨알○○/발기력 강화, 72시간 지속/010-5844-4696」 등·15일자 19면 외 「후

불제/★미제정품★/비아, 씨알, 레비/1통, 1BOX,낱알/010-7215-1600」 등, 경북일보 4

월 7일자 14면·9일자 11면 「남성의 힘/★미제정품★/비아○○, 씨알○○/소량, 저렴

(낱개)/72시간 지속(후불가)/010-7215-1600」 제하의 조각광고들에 대하여 각각 비공

개광고 한다.

#### <이 유>

위 광고들은 “정력확실 男/최신정품(미제)/비아○○ 씨알○○/1통, 1BOX, 낱알/010-7219-4447” 등의 문구로 누구나 〈비아그라〉〈씨알리스〉〈레비트라〉라고 인식할 수 있는 “비아○○, 씨알○○, 레비○○”또는 “비아, 씨알, 레비”로 표시한 특정 의약품의 통신 판매를 내용에 담고 있다.

이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조제·판매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므로 광고를 통한 일반판매는 법에 저촉되며 나아가 광고주의 명칭이나 주소 표시하지 않고 휴대폰 번호로만으로 연락처를 표기한 위의 통신판매 광고는 자칫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및 동 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6년

2006년에는 기사 686건과 광고 428건 등 모두 1,114건이 ‘강령 위반’ 결정을 받아 전 회기(777건) 대비 무려 4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부문에서는 특히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159건)가 가장 많았으며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144건), 「답변의 기회」(132건), 「표제의 원칙」(58건),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56건),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40건), 「선정성이 지나친 연재소설」(31건), 「언론의 사회적 책임」(17건)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다. 광고 부문은 「법규 위반 광고」(181건), 「과대광고」(161건), 「기사와 혼동되는 광고」(49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경우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등 다양한 형태의 ‘표절 금지’ 위반 사례를 모두 합치면 255건으로 압도적 1위였다. 작년 말까지 한 기사 내용 중에 여러 차례 외신 등을 인용하면서 한 차례만 출처를 밝혀도 불문에 부친 점을 감안할 경우 한국 신문의 후진적 표절 관행은 고질적이어서 미래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신문발전위원회가 기사형 광고를 심의해 경고 누적된 신문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징금을 물리고 있고,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지나친 상업주의가 빌미를 제공해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의 소설·만화·광고를 선정성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기도 했다.

신문계의 자정 노력이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법은 언제든지 국회를 통과하여 신문계를 옥죄 것으로 보여 신문계가 힘을 합쳐 윤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했던 한 해였다.

## 재심 2006 - 2 신문윤리강령 위반

### 한겨레 발행인 정태기

한겨레 2006년 4월 4일자 5면 「여론 다양성 위해 신문 독과점 규제 정당 / 신문관계법 헌법소원 지상 공개변론」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비공개경고’ 결정(4월 26일 제787차 회의)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제790차 회의(8월 30일)에 상정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주 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787차 회의의 신문윤리강령 위반 결정 2006-1057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한겨레가 제기한 재심청구 내용(요지)은 다음과 같다.

가) 한겨레의 신문법과 관련한 전문가 기고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헌법소원 사안에 대해 일반적 형태의 기사만으로는 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위헌’ 이냐 ‘합헌’ 이냐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에 휩싸인 사안에 대해 신문의 주장을 표방하는 사실이 아닌 기획특집을 마련하면서 합헌에 무게를 둔 ‘일방의 의견’만 반영했기 때문에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다루는 것은 기계적 균형을 취할 사안이 아니라, ‘신문논조에 따라 보도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윤리위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나) 朝鮮·東亞는 기사와 기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신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심의는 배제한 채 유독 한겨레만 공정성을 묻는 것이야말로 공정성을 잃은 조치다.

2. 재심 논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의견(사설·칼럼이 아닌 기고문 등)기사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 “제재 수위의 하향 조정” 등 의견을 제시하며 한겨레 측 청구사유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개진했으나 ‘재심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재적위원 13

명 중 9명 - 당일 회의참석자는 11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재심) ②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음.

2006 - 1098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병규

####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이원호 글·난나 그림) 2006년 6월 15일자 29면 제1353회, 6월 16일자 25면 제1354회, 6월 17일자 12면 제1355회, 6월 19일자 22면 제1356회, 6월 20일자 22면 제1357회, 6월 21일자 28면 제1358회 내용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연재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제1353회〉 = 『한미옥은 이미 웨이터한테서 조철봉에 대한 선전은 들었으므로 지금 내용물을 파악하는 단계일 것이다. 조철봉이 말을 이었다.

“첫사랑인 여자가 있었는데 헤어졌다가 결혼 후에 우연히 만났지 뭐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한 모금 술을 삼킨 조철봉이 정색하고 미옥을 보았다.

“다시 가까워졌지요. 그것이 와이프한테 들통이 났고, 그래서 이혼을 당했는데.”

“그래서요?”(중략)

“그래서 끝냈습니다.”

그때 미옥이 소리죽여 숨을 뿔었다. 이미 제 남편 기중과의 비교 따위는 잊었고, 요즘 만나는 정부 백종수도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을 것이었다. 그 대신 몸이 더워지고 있다. 하체가 근질근질할 것이다. 그때 조철봉이 길게 숨을 뿔고 나서 말했다.

“그렇다고 내가 변태는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남성이죠.”

그러고는 정색하고 제 바지 혁대를 풀고 지퍼를 내렸으므로 미옥이 눈을 깜박이며 그것을 보았다. 그때 조철봉이 얇은 채로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었다.

“어머.”

그 순간 미옥의 입에서 놀란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조철봉은 미옥의 시선이 철봉

에 붙여진 채 떼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김복은 철봉이 곧두선 채 건들거리고 있는 것이 성난 코브라 같았다,

“보세요. 난 정상입니다.”

조철봉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건은 좀 큰편이겠지만요.”

“그러네요.”

갈라진 목소리로 말한 미옥이 입안에 고인 침을 삼키더니 조철봉을 보았다. 눈 주위가 붉어져 있었다.

“놀랐잖아요. 갑자기 내놓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하고 미옥이 물었으므로 조철봉은 머리를 끄덕였다. 기중하고는 5년 동안 남남인 여자다. 의리 따질 것 없다.』

〈제1354회〉 = 『조심스럽게 손을 뻗친 한미옥은 철봉을 쥐었다. 마치 마이크를 잡듯이 쥐는 것이다.

“좋네요.”

미옥이 감탄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치 섯덩이 같아, 달아오른.”

“넣어 드릴까요?”

조철봉이 묻자 미옥이 키득 웃었다.

“하고 싶어요.”

“보시다시피 나도 이런 형편이라 여기서 하고 싶지만.”

철봉을 잡힌 채로 조철봉이 정색하고 말했다.

“아무래도 여긴 시간 제한을 받겠지요. 춤추러 나간 내 비서하고 친구도 돌아와야 할 테니까요.”

“그럼 나가요.”

철봉을 힘주어 쥐는 미옥이 흔들기까지 했다.

“호텔루 가요.”

“오늘 늦어도 됩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고는 미옥이 머리를 숙이더니 철봉을 입에다 넣었다가 아쉬운 표정으로 빼내었다.

“몸이 후끈거려 미치겠어.”

“축축해졌어?”

슬쩍 조철봉이 반말로 묻자 미옥은 머리를 끄덕였다.

“응, 흘러내려.”

“나도 한번 만져볼까?”

“응.”

하면서 미옥이 다리를 벌렸으므로 조철봉은 스커트 밑으로 손을 넣었다. 팬티를 들치고 손을 넣었을 때 이미 안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거봐, 젖었지?”

미옥이 상기된 얼굴로 조철봉을 보며 물었다. 두 눈이 번들거리고 있었다.(하락)』

<제1355회> = 『콜택시로 용인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 반이었다.(중략)

몸을 돌린 조철봉은 욕실 문을 열면서 미옥이 따라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금까지 예상이 어긋난 적이 없는 것이다. 조철봉이 샤워를 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예상대로 욕실 문이 열리더니 미옥이 들어섰다. 조철봉의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맨다리가 허벅지부터 드러났는데 날씬했다.

“아이, 돌아서.”

조철봉의 시선을 받은 미옥이 눈을 흘기는 시늉을 했다. 쓴웃음을 지은 조철봉이 몸을 돌리자 잠시 꾸물거리던 미옥이 뒤쪽에서 몸을 붙였다. 젓가슴이 등에 닿았고 다음 순간 두 손이 허리를 감아 안았다.

“으음.”

샤워기 물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조철봉은 입에서 탄성을 뱉었다.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알몸의 여자가, 더욱이 아직 몸을 섞기 전인 신비스런 여자가 뒤에서 감은 것이다. 그때 미옥이 손을 뻗쳐 철봉을 감싸 쥐었다.

“어머.”

미옥의 입에서도 탄성이 터졌다. 철봉은 다시 끈두서 있었던 것이다.

“너무 좋아.”

조철봉의 등에 몸을 붙인 채 미옥이 말했다. 손으로는 철봉을 주무르고 있다.(중략)

미옥이 이제는 두 팔로 조철봉의 목을 감아 안으면서 입술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하반신을 밀착시켰으므로 철봉이 언덕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끼워졌다. 조철봉은 미옥의 입술을 빨았다. 그러자 입술이 열리면서 혀가 들어왔다. 길고 탄력 있는 혀가 영키고 비벼지고 부딪치면서 둘의 호흡은 가빠졌다. 쏟아지는 샤워 물줄기가 둘의 몸을 흠뻑

적셔주었고 어느덧 욕실 안은 수증기로 가득 덮였다. 그때 미옥이 참지 못하고 조철봉의 철봉을 움켜쥐었다.

“넣어 줘.”』

<제1356회> = 『(전략)미옥이 엉덩이를 움직여 철봉을 천천히 받아 넣으면서 신음했다. 조철봉은 심호흡을 했다. 미옥의 섹은 용광로와 같았다. 그래서 철봉의 감각이 더 예민해졌다. 강한 압박을 주면서 매끄럽게 빨아들이는 마굴, 미옥이 고함쳤다.

“아아아.”

철봉이 바닥까지 닿았을 때는 3초쯤 걸렸을 것이다. 두 전문가가 합심한 기록이다. 평범한 인간들이면 그 동안에 10여 차례 왕복을 했을 것이다.

“너무 좋아”

미옥이 이를 조철봉의 어깨에 박았다가 풀면서 소리쳤을 때 철봉은 다시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그때 조철봉이 미옥의 귀에 대고 말했다.

“침실에서 할까?”

“아무데서나”

미옥이 혈떡이며 대답했다.

“여긴 너무 답답해. 나가.”

둘은 물투성이가 되어서 욕실을 나왔지만 아무도 물기를 닦으려고 하지 않았다. 알몸으로 앞장섰던 미옥이 소파 앞에 서더니 조철봉을 돌아보았다. 두 눈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여기서 해.”

그러더니 미옥이 소파에 두 팔을 짚고 엎드렸다. 뒤에서 하라는 표시였다. 조철봉 또한 충혈된 눈으로 미옥의 몸을 보았다. 육감적이다. 지금까지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성행위 때의 분위기 연출이 단연 압권이다.

“어서.”

하면서 미옥이 엉덩이를 흔들었다. 조철본은 자신이 초원의 수컷 짐승이 된 느낌을 받았다.』





〈제1357회〉 = 『조철봉은 흘린 듯이 한미옥의 엉덩이 앞으로 다가가 섰다. 이미 한번 맛을 본 철봉이 무섭게 용솟음을 치는 중이었으며 입안은 바짝 말랐고 두 눈은 충혈되었다.

“아이, 어서.”

하면서 다시 미옥이 엉덩이를 흔들었을 때 조철봉은 미옥의 뺨 끝에 철봉을 붙였다.

“아.”

닿는 촉감만으로도 미옥은 온몸을 굳히면서 짹은 탄성을 뱉었다. 조철봉은 천천히 철봉을 진

입시켰다. 그러나 속도가 느릴수록 마찰 자극은 더 강해지는 법이어서 이를 악물었다.

“enna 이승짐 다니야.”

조철봉이 잇사이로, 그리고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입 안에서 웅얼거리면서 말했다. 오늘은 애국가나 교가를 거꾸로 불러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자극이 강했던 것이

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도 자주 불러재끼는 바람에 머리를 애써 짜낼 필요도 없이 술술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결심을 밝히는 최강의 수단을 쓴다.

“아아악.”

철봉이 반쯤 진입했을 때 엉덩이를 움추릴 듯 당긴 미옥의 입에서 커다란 비명이 터져 나왔다.(중략)

“나 죽어, 여보.”

“이 은갈승짐 야자여, 가네 지군누 아알?”

“나 죽어, 나 죽어, 얼른 얼른.”

“난 지까금지 이 이간순 장가 만지했복행 번이 누우경 다니야.”

“여보, 나 해!”

“짱말 다 고라거헛, 야자여이.”

“아아아악.”

“고싸 면나 냥그 야이끌.”

“아아아아.”

미옥이 썼다. 정말 대단한 반응이었다. 조철봉이 염불을 하는 사이에도 철봉은 분위기에 맞춰 격렬하게 운동했으며 미옥은 터져버린 것이다. 그러고는 빈틈없이 매달려서 한참 동안이나 떨어지지 않았다.』

〈제1358회〉 = 『그날 밤, 다른 때는 이렇지 않았지만 조철봉은 한미옥과의 섹스 시간과 횟수를 계산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까지 4회, 3시간42분. 회당 평균 55분이었지만 첫 회에 미옥이 일찍 싸는 바람에 나중 3회는 한 시간 이상이었고 마지막회는 1시간37분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어디까지나 미옥이 절정에 오른 시간을 말한다. 왜냐하면 조철봉은 대포를 발사하지 않았으니까. 장전한 대로 대포를 발사해왔다면 몸이 배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미옥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는데 지쳐서 시체처럼 늘어져 왔다.

미옥은 오늘처럼 끝내주는 밤이 없었다고 말해 주었는데 그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조철봉 같은 기술자는 처음 만난다는 뜻이었다. 하룻밤에 네 번, 거기예다 네 시간의 작업 기간에 미옥은 그야말로 꿈속을 헤매었다. 회당 마지막 절정까지 걸린 시간이 한 시간 가량이었고 그 과정동안 미옥은 평균 서너 번의 절정을 맛보았으니 그것까지 포함하면 십여 회가 된다. 그래서 다음날이 되어서 미옥이 눈을 겨우 떴을 때는 아침 8시반이 되어 있었다.(중략)

“나,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

조철봉의 가슴에 얼굴을 붙인 미옥이 손을 뻗어 철봉을 쥐었다. 그러자 아직까지 대포를 발사하지 못한 철봉이 벌떡 곤두섰다.

“어머.”

놀람을 넘어 감동한 표정이 되어서 미옥이 철봉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당신 같은 남자는 처음이야.”

“그럼 나하고 같이 살까?”

조철봉이 머리를 들어 미옥을 보았다. 정색한 표정이다.

“몸만 오라고. 나한테 말야.”

미옥이 눈만 깜박였을 때 조철봉이 어깨를 당겨 안았다.

“다른거 다 필요 없어. 난 당신 몸만 있으면 돼.”

“정말?”

미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조철봉을 보았다. 그러나 철봉을 쥐 손은 놓지 않는다. 그러자 조철봉이 쓴웃음을 지었다.

“난 재산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몸만 오라는 거야.”

“얼마나 되는데?”

“계산은 다 안 해봤지만 몇백 억. 글썄, 한 5백억 될까? 좀 더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철봉이 상반신을 세우더니 미옥의 다리를 거칠게 쫓았다.

“이봐, 그냥 할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또?”

“그냥 넣어도 되지?”

“피곤하지 않아?”

하면서도 미옥이 철봉을 샘 끝에 붙였다.

“어제 너무 많이 해서 아파. 살살.”

그러고는 미옥이 조철봉의 목을 두 팔로 감아 안았다.

“나도 자기 없으면 못살 것 같아.”

“그러니까 별거한다는 남편 뉘한테 다 주고 오란 말야. 참, 애들도 있다고 했지?”

“둘이야.”

“그럼 애들까지 같이 넘기면 되겠다.”

그러고는 조철봉이 철봉을 밀어 넣었으므로 미옥이 입을 딱 벌리면서 신음했다.』

2. 천하의 난봉꾼 조철봉이 성불구자가 된 죽마고우의 간청에 따라 그의 아내를 유혹해 몸과 마음을 짓밟고 재산마저 남편에게 되돌려 주게 함으로써 친구의 열패감과 복수심을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는 게 이번 일주일 동안의 중심 줄거리이다.

위 소설은 줄거리도 문제려니와 아무리 가정을 뒤흔친 색녀라 하더라도 또 친구의 간청에 따른 일이라 하더라도 그의 아내를, 그것도 의도적으로 유혹하여 성적 노리개로 삼는 장면을 선정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한 독자들에게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심어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 2027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노승숙
2. 중앙일보 발행인 권영빈
3. 全北日報 발행인 서창훈
4. 東亞日報 발행인 김학준
5.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
6. 매일경제 발행인 장대환

### 〈주 문〉

국민일보 2006년 3월 30일자 18면 「발기부전 불임 갱년기 장애를 자연치유하는 약용 식물 마카」 제하의 광고, 중앙일보 3월 30일자 E8면 「마카는 잃어버린 남성의 힘을 되찾아준다!」 제하의 광고, 전북일보 3월 31일자 10면 「발기부전 불임 갱년기 장애를 자연치유하는 약용 식물 마카」 제하의 광고, 4월 3일자 16면 「발기부전 불임 갱년기 장애를 자연치유하는 약용 식물 마카」, 4월 5일자 5면 「발기부전 불임 갱년기 장애를 자연치유하는 약용 식물 마카」, 東亞日報 4월 1일자 29면 「잃어버린 힘 마카로 되찾는다」 제하의 광고, 4월 7일자 A20면 「약용식물 마카는 남성의 자존심을 찾아준다!」 제하의 광고, 일간스포츠 4월 5일자 14면 「마카는 잃어버린 남성의 힘을 되찾아준다!」 제하의 광고, 매일경제 4월 1일자 A10면 「발기부전 불임 갱년기 장애를 자연치유하는 약용 식물 마카」 제하의 광고, 4월 7일자 A36면 「마카는 잃어버린 남성의 힘을 되찾아준다!」 제하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비공개경고 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들은 모두 「약용식물 마카」라는 제목의 신간서적 소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해당 서적은 시중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데다 광고 문구는 “발기부전과 불임, 갱년기 장애를 낮게 하는 마카” “발기부전치료제보다 효과가 좋았다” “마카는 남성의 불임을 치료한다” “성인병까지 마카의 도움으로 완치시켰다” “마카 덕분에 발기부전과 조루도 고쳤다” “50회의 인공수정 실패를 마카가 단번에 이루어주다”등 책 자체보다는 이 식물이 의약품과 같은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및 동 실천요강 강령 1의 (3),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7년

2007년 한 회기 동안의 윤리강령 위반 사례는 기사 951건, 광고 346건 등 지난 회기보다 180여건 늘어난 총 1,297건으로 집계되었다.

위반 기사를 항목별로 보면 「표절」이 601건(63.2%), 「홍보성 기사」 135건(14.2%), 「선정보도」 80건(8.4%), 「답변의 기회」 75건(7.9%) 순으로, 전체 위반 기사의 93.7%가 4개 항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는 「법규 위반」이 261건(75.4%), 「과장」 70건(20.2%), 「미풍양속 저해」 14건(4.0%) 순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후진적 제작 관행의 대표적 사례인 표절이 전체 위반 기사의 63.2%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회기보다 건수 면에서 2배 이상 늘어났고(255건→601건) 비율도 지난 회기보다 무려 26%포인트 이상 높아졌던 것이다.(37%→63.2%) 이는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한 까닭도 있겠지만 위원회와 일선 기자들 간에 표절에 관한 눈높이가 서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이다.

2007 회기는 특히 분주한 회기이기도 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라는 애정 어린 비판을 받아들여 〈자사 신문 게재 경고〉와 〈3진 아웃제〉를 처음 시행한 결과 〈자사 신문 게재 경고〉가 46건이나 나왔다.

전례가 없다시피한 〈사과〉와 모든 회원사들이 경고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한 단계 강화된 〈공개경고〉도 각각 1건씩 결정되었다.

기존의 〈공개경고〉나 다름없는 〈자사신문 게재 경고〉가 46건이나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공개경고〉가 2006년에 4건, 2005년 3건, 2004년 2건이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사과〉와 〈공개경고〉를 결정하게 만든 것은 문화일보 2007년 9월 13일자 1면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제하 기사 및 3면의 관련 사진 2건 때문이었다.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익명의 문화계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신씨가 ‘성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근거로 출처와 진위가 불확실한 앞뒤 전신 누드 사진 2장을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위 기사와 사진이 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신문의 품위와 전 신문계의 공동 자산인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문화일보 1면에 2단 이상 크기로 사과문과 함께 결정 주문 및 이유 부분 요지를 게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결정문을 통보 받기 전에 장문의 사과문을 1면에 게재한 뒤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위원회는 자발적인 사과문 게재를 ‘상당한 성의 표시’로 받아들여 한 단계 낮춘 ‘공개경고’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사들이 위원회의 결정문 요지를 각자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사건’을 보도하면서 용의자 조승희 씨가 만든 동영상과 스틸사진 가운데 권총이나 칼 또는 망치를 들고 가격하려는 잔인한 모습의 사진들을 게재한 28개 신문·통신사에 대해 〈자사 지면 게재 경고〉 결정을 무더기로 내리기도 했다. 4월 19, 20일자에 용의자 조 씨가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제작한 비윤리적인 사진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다량 게재한 19개 중앙지, 1개 통신 및 8개 지방신문들이 지적되었는데, 이들은 자사 지면에 경고 받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 두 결정은 우리 신문계에 내재하는 ‘상업적 선정주의’라는 일탈된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자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재심 2007 - 1 신문윤리강령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배성로

### 〈주 문〉

영남일보 2007년 6월 8일자 1면 “『盧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선관위 결정 “사전선거운동엔 해당 안돼”」 제하의 기사를 재심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참석 위원 전원이 영남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기각〉 한다.

## 〈이 유〉

1. 영남일보가 제기한 이의 신청 사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지 2007년 6월 8일자 「“盧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위반”」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연합뉴스 기사를 표절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적용하여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의 본지 기사와 연합뉴스 기사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팩트를 앞세운 앞부분은 비슷하지만 해설이 중심이 된 뒷부분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한두 문장이 비슷하거나 문장 배열이 유사하더라도 이를 ‘표절’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기사의 앞부분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판단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는 미흡 △유사한 행위 자체 요청 전자공문 발송 등 핵심적인 팩트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선관위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어느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꼭 포함돼야 합니다.

다만 그 팩트들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신문사들마다 약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뿐인데, 본사 기자 해석이 실린 뒷부분은 연합뉴스 내용과 완전히 다르므로 문제의 기사는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2. 위 영남일보 기사는 모두 15개의 문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앞부분 10개 문장이 7일 내려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뒷부분 5개 문장은 이 결정을 둘러싼 선관위의 움직임과 야당의 반응, 이에 따른 정국 전망 등을 짚고 있다.

영남일보의 기사 중 앞부분 5개 문장은 앞서 전송된 연합뉴스의 기사 문장과 내용, 표현 및 순서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일부 낱말의 위치를 바꾸거나 생략하거나 문장을 나누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영남일보는 재심 신청 이유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팩트는 선관위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어느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도 꼭 포함돼야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 같은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 문장이 그 내용과 순서에서 이렇게 일치하기는 어려운 만큼 앞부분 5개 문장은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1996년 신문윤리강령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대폭적인 개정을 하기 전인 구강령의 표절 조항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조항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신문윤리실천요강 「품격」 장 제4조에 “신문·통신·잡지 등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전재 또는 인용을 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도기준 제9조 「출처 불명시에 관한 보도」에서 (1)통신 기사 내용을 전재하면서 제공사 특파원의 이름 대신 자사 특파원의 이름을 명기하는 경우 (2)타 매체 기사 내용을 전문 전재하면서 출처를 전연 밝히지 않는 경우 (3)앞뒤 부분을 순서만 바꾸는 경우 (4)자작 기사에 통신 기사의 일부를 붙이는 경우는 각각 신문윤리실천요강 「품격」 장 제4조에 위배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자작 기사에 통신 기사의 일부를 붙인 제(4)유형에 속하는 위 기사는 명백한 표절기사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영남일보가 비교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첨부한 경향신문 국민일보 毎日新聞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인앤셀뉴스 한국일보 등 다른 8개 신문의 관련 기사를 보면 문화일보만 연합뉴스의 기사와 문장의 표현 및 순서에서 거의 일치하였다.

우리 언론의 후진적 제작관행의 한 전형인 ‘표절’은 중앙지 지방지 가릴 것 없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신문의 모든 기사를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워, 중앙지는 국제뉴스, 지방지는 국내 주요 뉴스 중심으로 선별해 심의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표절이 분명해 보이는 문화일보 기사는 본 위원회의 제재를 면할 수 있었을 뿐, 이번 재심 안건과 결부해 되짚어보아야 할 당위성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영남일보의 재심 청구는 그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 1169 신문윤리강령위반

2007 - 1- 17 독자불만처리

문화일보 발행인 이병규

## 〈주 문〉

문화일보 2007년 9월 13일자 1면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제하 기사 및 3면의 관련 사진 2건에 대하여 〈사과〉 결정한다.

문화일보는 같은 면에 2단 이상 크기로 사과문과 함께 결정주문 및 이유부분 요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일보의 이 사진과 관련 기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객관적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익명의 인물들의 발언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신문의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전체 신문계의 공동 자산인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침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②항(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②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③항(사생활 등의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은 물론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아야 함에도 신씨와 관련해 상업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 125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하 원

#### 〈주 문〉

스포츠조선 연재소설 「강한 여자」(글 이원호·그림 문성원) 2007년 12월 7일자 22면 제222회 내용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전략) 불을 훔던 강한의 혀가 입술을 거쳐 턱과 목에 닿았을 때 장미가 손을 뻗어 강한의 허리를 잡아끌었다.

“그만해도 돼.”

장미가 혈떡이며 말했다.

“이제 그만.”

하지만 다음 말은 강한이 가슴을 애무하는 바람에 끊겼다.

그리고 신음 같은 짧은 탄성이 울리더니 장미가 하반신을 비틀었다. 강한의 손을 느꼈기 때문이다.

“으음.”

장미는 또다시 신음했다. 강한은 장미의 뜨겁게 달아오른 몸을 확인했다. 이제 강한의 입과 혀, 그리고 손끝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미의 탄성은 점점 높아졌고, 온 몸의 땀구멍에서 땀이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장미는 절정에 올랐다. 몸이 활처럼 둥글게 휘면서 팽팽해졌다. 그러더니 텅텅 소파 위로 쓰러져 몸을 떨기 시작했다. 입에선 비명같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윽고 강한은 장미의 몸 위로 올랐다. 그리고는 장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장미는 아직도 몸을 떨고 있는 중이다. 그때 강한이 몸을 쉬었고 장미는 놀란 듯 몸이 굳었다. 강한은 장미의 어깨를 감아안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쾌감을 즐기기 보다 장미를 위해 몸을 던진다는 자세다. 이윽고 장미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 몰려온 파도는 더 컸고 더 길었다.(중략)

둘은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험뻑였고,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땀에 흠뻑 젖었다. 숨소리에 한참 동안이나 탄성이 섞여 있었다. 달빛이 소파 위에 한덩이가 된 두 알몸을 비췄다. 먼저 호흡을 가쁜 강한이 장미의 입에 가볍게 키스했다.(중략)

“그나저나 얼마나 걸렸지?”

하반신을 조금 흔들어 강한의 몸을 느끼면서 장미가 따라 웃었다.

“한시간? 두시간?”(하략)』

2. 위 소설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남녀 주인공의 성관계 장면을 서술하면서 그 과정을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동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청소년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신문에서 위와 같은 선정적인 내용은 자칫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및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8년

신문윤리위원회는 2008년 기사 628건과 광고 239건 등 모두 867건에 대하여 '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위반 사례들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사 부분에서는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212건),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171건),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156건), 「보도자료의 검증」(118건), 「답변의 기회」(71건), 「표제의 원칙」(34건),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32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25건), 「선정보도의 금지」(22건), 「사회적 책임」(21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18건),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15건)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 부문은 「과대 광고」(168건), 「법규 위반 광고」(166건), 「허위 광고」(151건), 「책임소재 불명 광고」(9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심 사례는 5건으로 광고 1건을 제외한 4건의 사례가 모두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위원회와 일선기자들의 눈높이가 크게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선 기자들의 잇단 재심 청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2008 - 1178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필호

### 〈주 문〉

중앙일보 2008년 9월 10일자 1면 「9·9절 불참 김정일 반신불수… 의식은 있어」 제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김정일(얼굴)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소식통이 9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수주 전 뇌졸중이 발병해 현재 반신불수 상태지만 의식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어느 곳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중략)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재까지는 김 국방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밝혔다.(중략)

한편 AP통신은 미국 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국방위원장의 불참이 뇌졸중(stroke)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김 국방위원장이 수주 전(뇌졸중) 발작을 일으켰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방 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중략)

AFP도 “김 위원장은 명백히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뇌졸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중략)

한편 미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보도를 봤지만 그것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에 관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주 전 뇌졸중이 발병해 현재 반신불수 상태지만 의식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의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현재까지는 김 국방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비공개 소식통들의 신원은 알 수 없으나 이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보도를 봤지만 그것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기사는 적고 있다. 또한 이 기사가 전한 관련 외신 보도들도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떠한 단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 기사 제목은 인용부호도 없이 「김정일 반신불수… 의식은 있어」라고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표현하고 통단 크기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편집은 독자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 1088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하 원

〈주 문〉

스포츠조선 2008년 4월 15일자 6면 「『황재원, 그는 인간도 아니었다』/엣 애인 김주연 씨, 스포츠조선과 단독인터뷰」 제하의 기사, 4월 16일자 2면 「▶황재원-김주연 사건 '진실공방 2R' #1. 황재원 말문 열었다/때린 적 한번도 없다」 제하의 기사, 「#2. 김주연 전화인터뷰 반박/다른 남자 안 만났다」 제하의 기사, 4월 17일자 2면 「▶황재원-김주연 사건 '진실공방 제3탄'/황재원이 낙태 종용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인간도 아니었다”〉 = 『국가대표 축구선수 포항 황재원과 미스코리아 출신 김주연 을 둘러싼 낙태 파문이 다시 불거졌다.

14일 스포츠조선과 A병원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김주연씨는 그동안 털어놓지 못 했던 심경 고백을 했다.(중략)

김주연씨는 단독 인터뷰에서 “황재원이 제게 낙태를 종용했죠.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초음파로 확인한 우리 쌍구(태명)의 뛰는 심장을 보고 지켜줘야겠다 결심했 으니까요”라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대전의 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다가 2월 8일 황재원이 사는 강화도 집을 찾

아갔다. 추운 겨울 새벽 임신한 몸으

로 몇 시간 기다린 끝에 술에 취한 황

재원을 만났다고. 김주연씨는 “결혼은

안 해도 좋으니 대신 아기의 아빠만

되여달라”고 호소했으나 황재원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차마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

몸을 떨며 “그 때 황재원이 제게 그랬

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편해질 테고,

아이도 죽고…라고요. 저는 수치심과



모멸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 손목을 칼로 그었어요” 라고 말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 때문에 병원을 갔으나 3일 후 유산 통보를 받고 아이를 잃었다고.

황재원의 에이전트측은 김씨의 인터뷰가 나온 직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에이전트측은 “양측 대리인이 만나 협상을 진행해 왔다. 처음엔 상대 쪽에서 너무 비 현실적인 요구를 해와 합의가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그쪽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갑자기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처음부터 합의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앞으로의 전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주연 씨의 폭로에 또 한 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황재원 낙태 스캔들에 많은 네티즌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상황이다.』

〈“때린 적 없다”〉 = 『“28년 동안 살면서 여자에게 손찌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황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중략) 이에 대해 황재원은 15일 자신의 최측근에게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자를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 했다.(중략)

이에 대해 황재원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대체 어떤 남자가 눈앞에 여자가 피를 흘리 는데 뒤돌아서서 들어갈 수 있겠나. 그때 바로 김씨를 병원에 데려갔다. 걱정이 돼 산 부인과까지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 결과도 받았다”며 울분을 토했다고 그의 측 근은 전했다.

황재원은 “김씨가 폭행에 대한 진단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의사가 있지도 않은 폭행에 대해 진단서를 써줬는지 모르겠다. 그날 나와 함께 갔던 산부인과의 진단 서를 받아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호소했다고 한다.(중략)

황재원의 한 측근은 “사랑하는 사이였음에도 김씨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는 재원 이에게도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며 “김씨가 재원이와 사귀는 동 안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건 이미 축구판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걸 알 게 된 황재원 본인의 기분은 어땠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른 남자 안 만났다”〉 = 『김주연씨가 황재원의 주변 인물들이 제기한 ‘양다리설’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주연씨는 15일 스포츠조선과 전화 인터뷰에서 “황재원 측근들이 내가 황재원을 사 귀는 동안 다른 선수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악성루머”라며 “그 쪽에서 사실 근거라도 제시한다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을 텐데 억울할 뿐이다”고

밝혔다.

현역 프로축구 선수를 통해 사실 확인 결과, 루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수는 “김주연씨가 현역 선수 A, B, C와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하지만 소문의 근원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A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중략)

B는 루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중략)

A와 B는 이구동성으로 “악성루머에 이름이 오른 선수들 모두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며 “악성루머의 근원이 밝혀진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C는 “김주연이란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고 잘라 말했다.

김주연씨는 “뒤통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며 “악성루머를 퍼트리는 자들의 신상을 확보했고 곧 고소할 예정이다. 또 우리가 황재원 측에 돈을 요구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애초에 돈은 필요 없다고 황재원 측에 밝혔다”고 덧붙였다.』

〈“황재원이 낙태 중용했다”〉 = 『포항 황재원(27)의 낙태 중용과 관련해 김주연씨(24)가 16일 이메일 및 전화통화 내용을 스포츠조선에 단독 공개했다.

자료에는 황재원이 김주연씨에게 낙태를 중용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김주연씨가 황재원에게 낙태와 관련된 말을 언급했을 때 황재원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2일 김주연씨가 ‘오빠…마음 좀 열어봐’란 제목의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황재원이 답장을 보냈다. 김주연씨는 원문에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내겐 지옥이었고, 아기를 지우라던 오빠한테 배신감도 느끼고 버려졌단 생각에 죽고만 싶었어’라고 적었다.

이에 황재원은 ‘힘들게만 해서 미안해… 진짜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생각하고 또 해봐도 두 달 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피하고 싶다. 미안해 주연아 더 상처받기 싫으니까 미혼부, 미혼모로 살아가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돌아갈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했다.

전화통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다. 지난 2월 22일 황재원이 김주연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재원은 “내가 유산시킨 거야?”라고 말했고, 김주연씨는 “2월 8일(김주연씨가 황재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 추운 겨울에 버려졌는데 멀쩡하겠어”라고 반문한다. 황재원은 이후 “내 잘 못 아니다”라고 했고, 김주연씨는 “내가 계속 얘기 지우라고 했잖아”라고 답했다. 이에 황재원은 “그 전 일이잖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연씨는 “황재원이 ‘그 전 일이잖아’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낙태를 중용했고, 통화한 시기에는 이미 유산(2월 11일)이 됐으니 더 이상 공론화 시키지 말고 이쯤해서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재원의 에이전트 류재현씨는 “김주연씨 측에서 낙태 중용을 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낙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건 김씨의 어머니였다”며 “김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황재원을 만나면서 축구선수들과 3대3 미팅을 했다. 그 중 한 선수가 ‘아는 축구 선수가 있냐’고 묻자 김씨는 ‘없다’고 했다. 사귀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뭐냐”고 밝혔다.』

2. 위 스포츠조선 기사들은 프로축구선수 황재원과 그의 연인이었던 미스코리아 출신 김주연 간의 이별 과정에서 빚어진 낙태 중용 및 폭행 시비와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기사들은 첫날 ‘단독 인터뷰’에 이어 둘째,날 ‘진실공방 2R’, 셋째,날 ‘진실공방 3탄’ 등 마치 스포츠경기 중계라도 하듯이 자극적인 문패를 달면서 먼저 김주연의 인터뷰 내용을 전한 후, 다음날 이 내용에 담긴 주장에 대한 황재원 측의 반박과 이에 대한 김주연 측의 반응, 그 다음날에는 다시 김주연 측의 추가 주장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인터뷰 내용은 김주연이 이미 지난 2월 이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실공방 2R’에서 김주연의 주장을 황재원측에 전하고 ‘황재원의 한 측근’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어 김주연의 ‘양다리설’을 전하면서 이 주장에 대한 김주연의 반응, 설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람들의 면담 내용을 들어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 전하는 모습은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게 한다.

또 ‘진실공방 3탄’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김주연이 제공했다는 이메일과 저화 통화내역을 공개했으나 이 역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법정에서나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

두 사람이 모두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다툼과 헤어짐이 대중의 관심사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당사자 외에는 객관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고,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언론 보도를 통해 양측 주장의 큰 줄거리가 알려져 있으며, 양측이 법적 다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조선이 3일 연속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전달한 이 같은 보도는 사실 규명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사생활 보도라는 선을 넘어, 선정적 목적에서 접근한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있어서 절제를 요구하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8 - 2024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칸 발행인 고영재
2.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

#### 〈주 문〉

스포츠칸 2008년 4월 1일자 6면, 10일자 14면 「생활정보 금융광고」 중 일부 대부업체 조각광고들, 일간스포츠 4월 1일자 10면 및 10일자 12면 「안내광고·금융」 중 일부 대부업체 조각광고들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위 조각광고들은 ‘생활정보’ ‘안내광고’라는 고정 컷 아래 거의 매일 「신용불량자 휴대폰」 「신불자 카드발급」 「핸드폰 누구나 개통」 「무방문·무보증·무담보/즉시발급」 등 문구를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유사금융업체들이 신문에 광고를 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업체를 막론하고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대부업 등록번호를 비롯해 전화번호, 연이율, 연체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휴대폰 대출’은 변형된 고리사채로 일명 ‘휴대폰 갱’으로도 불리는 데 대부업자는 결제한 금액을 할인 매각해 차익을 챙기고 이용자는 법정한도(49%)를 훌쩍 넘는 연 수백%의 이자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요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책임소재를 확인할 길 없는 대부업 광고를 매일 같이 싣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법」 등에 저촉될 뿐만 아

|                                                                              |                                                                                |                                                                                                        |
|------------------------------------------------------------------------------|--------------------------------------------------------------------------------|--------------------------------------------------------------------------------------------------------|
| <p><b>핸드폰<br/>누구나개통</b></p> <p>신용·통신불량환영<br/>010-3200-0001<br/>★제민원 모집중★</p> | <p><b>신용불량자<br/>휴대폰</b></p> <p>▶50~150 ▶출장가능<br/>▶당일즉시지급<br/>010-4900-0163</p> | <p><b>신불자카드발급</b></p> <p>※신용불량이신 분도 가능<br/>※연체중이신 분도 가능<br/>자격등급미달 상관없이<br/>무조건 당일발급<br/>1544-2309</p> |
|------------------------------------------------------------------------------|--------------------------------------------------------------------------------|--------------------------------------------------------------------------------------------------------|

니라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및 동 실천요강 강령 4의 (2),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9년

신문윤리위원회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전국 회원사와 서약사들이 발행하는 일간 신문의 기사 및 광고 가운데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들을 종합한 결과 표절 혐의로 지적된 기사가 155건으로 지난 회기 571건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조항을 위반한 홍보성 기사들이 181건으로 지난 회기에 지적된 15건에 비해 무려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기사 부문에서는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88건), 「표제의 원칙」(72건), 「답변의 기회」(39건), 「보도자료의 검증」(36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34건),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33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31건), 「선정보도의 금지」(14건),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12건) 순으로 위반사례가 집계되었다.

광고 부문은 「법규 위반 광고」(266건), 「허위 광고」(266건), 「책임소재 불명 광고」(82건), 「과대 광고」(70건), 「비과학적 광고」(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 광고」와 「허위 광고」의 합이 규제 총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결정이유가 복수인 경우를 반영한 것이다.

#### 재심 2009 - 1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병찬

####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09년 2월 25일자 7면 「라세티 프리미어」 첫 수출길」 제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해 위원회가 제819차 회의(3월 25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가 제기한 이의 신청 사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윤리위는 본보 2009년 2월 25일자 7면 ‘라세티 프리미어 첫 수출길’ 제하 기사의 사진과 관련하여 “뉴시스가 제공한 사진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함으로써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본보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날 게재된 사진은 GM대우 측에서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한 사진을 게재한 것입니다. 지면에 사진 제공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본보의 잘못이오나 특정 통신사 사진을 표절한 것이 아니기에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2. 제819차 회의 ‘결정 2009-1049호’는 전북도민일보 2월 25일자 7면 「라세티 프리미어 첫 수출길」제하 기사와 함께 게재한 관련 사진의 게재 이유로 “뉴시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북도민일보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한 것은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적용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신문사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문제의 사진은 GM대우 측이 각 언론

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고, 뉴시스도 GM대우 측이 제공한 사진을 받아 전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결정 2009-1049호’에서 전북도민일보가 뉴시스 측이 제공한 사진을 표절했다고 게재 이유를 밝힌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사진 제공처가 ‘GM대우’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또한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느 쪽이나 ‘주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신문윤리강령 위반 행위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하되 결정이유는 ‘표절행위’가 아니라 ‘저

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수정한다.

2010 - 1039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춘택

〈주 문〉

全羅日報 2월 8일자 14면 「고향 정읍 위해 다시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년여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보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서운한 감이 더 듭니다. 하지만 도정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더 갖게 된 고향 정읍을 위해 다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9일 퇴임과 동시에 정읍시장 출마에 나서는 송완용 전라북도 정부부지사의 첫마디다. 송 부지사는 재임기간동안 전북도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기업유치 등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중략〉

송 부지사는 향후 기업 유치에 대한 가능성도 높였다.〈중략〉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와 미국 레드 라이온 등 세계 기업과의 투자유치 물꼬를 튼 주역 역시 송 부지사다.〈중략〉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송 부지사의 성격은 도민들을 한 데 모으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 확정까지 도민들의 염원을 한데 모았고 새만금 신행만과 풍력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3대 전략사업의 국책사업 확정에도 도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원만히 수행했다.〈하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출마의 변을 다루고 있다.

지역 내 유력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인물에 대한 찬사 일변도의 내용을 상세한 기사로 처리한 것은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항(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 1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김문순

〈주 문〉

朝鮮日報 2010년 1월 16-17일자 B3면 「경남 합천 지적장에 여고생 성추행 사건의 진실은…/한 소녀, 세 사내, 돈, 그리고…‘야로마을의 비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에 여고생(16)을 성추행한 혐의로 합천군 야로면의 72살 A씨 등 주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YTN 1월 6일 보도〉

합천군 야로면(冶爐面)은 인구가 3000명 가량인 시골 마을이다. 이번 사건에 남자 수십 명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아 마을 전체가 들끓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소녀의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다. 아버지는 재작년 세상을 떠났다. 공사 현장과 낚싯배이 생활을 전전

했던 그는 잦은 병치레를 하다 가족에게 발 한 뼨기 남기지 않고 숨을 거뒀다.

소녀의 어머니는 곁에 없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1년 뒤 소녀와 중학생인 남동생을 남겨두고 도시로 떠났다. 소녀의 할머니는 “애 엄마가 술을 자주 마시고 애들을 돌보지 않았어. 남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했다.

소녀는 할머니가 돌봤다. 할머니는 양로원 주방에서 일하며 월 20만원, 종이와 빈병을 주워 팔아 월 15만원을 벌었다. 정부가 빈곤 가정에 주는 보조금 64만원은 어머니가 받고 있고, 할머니·손자·손녀는 이 35만원으로 살고 있다.

10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할머니는 허리가 반쯤 굽어 있었고 걷는 것도 힘겨워했다. 할머니는 주로 양로원에 딸린 방에서 잤으며, 소녀는 양로원이 있는 면소재지에서 400~500m 정도 떨어진 외곽에서 남동생과 살았다.

소녀의 집 외관은 깨끗했다. 하지만 이 집은 7년 전 새로 지을 때의 용자 2,000만 원과 빚 1,600만 원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갈 처지라고 한다. 밀린 공과금에 전기가 자주 끊겨 남매는 밤에 촛불을 켜기도 했다.

소녀는 ‘정신지체’ ‘지적장애’라는 보도와 달리 정상아였다. 소녀의 고교 친구는 “정신이 이상하거나 저능아가 절대 아니다”고 했고, 한 경찰관도 “(소녀는) 정상인데 왜 지적장애아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녀의 얼굴은 예뻐다고 했다. 그런 소녀에게 남자들이 손길을 뻗친 건 소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2008년부터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남자들은 이웃집 70대 노인, 인근 마을의 30대 남성, 택시기사 등이다.

이들은 소녀를 집에서 혹은 집 밖으로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가을 소녀의 어머니마저 마을을 떠난 뒤부터는 소녀를 찾아오는 남자들의 발길이 훨씬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는 경찰에서 “남자들이 몸을 만질 때마다 2000원, 3000원, 5000원을 줬다”고 말했다. 용의자들은 소녀에게 돈을 준 건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소녀 형편이 어려워 밥이나 우유 사먹으라고 순수한 마음에서 줬다는 주장이다. (중략)

그러나 40대 남자는, “당사자들이 추행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수사를 지켜봐요지요. 애가 먼저 남자를 불렀다는 말도 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런 가운데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꼬리를 몰고 있다. 소녀가 접근해온 남자들 이름과 그들이 준 돈을 적어놓은 다이어리(일기장)가 있다, 리스트에 나오는 남자가 60명이 넘는다는 말이 돈 것이다. 한 남성은 “여기 남자들이몇 명 된다고 60명입니까.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했다. (중략)

합천서는 “증거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하면서도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경찰은



소녀를 추행한 남자들이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소녀의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3명이 전부”라고 했다.

‘남자들 이름이 적혀 있다’는 다이어리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에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는 없다. 지금으로선 소문일 뿐이다. 그렇다고 피해자(소녀) 집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라고 했다.

경찰은 앞서 70대와 30대 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시켰다. 30대는 예전에 길 가던 소녀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다.(중략)

“지난 여름쯤인가. 집이 캄캄해 옥상에 올라가니 손녀가 어른이랑 있더라. 집에 가라고 막 야단쳤지. 그때 지서(경찰서)에 신고만 했어도…” 할머니가 울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한 마을에서 세 남자가 16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추적해 흥미 위주로 보도했다.

기사는 부모 없이 할머니·남동생과 함께 어렵게 사는 피해 여고생의 가정형편과 경찰 진술을 소개했고 당초 ‘지적장애’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여고생은 정상아라는 현지 취재 결과도 전했다.

기사는 이와 함께 성추행을 한 남자가 수십 명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에도 밝혔듯이 사건 발생지는 인구 3,000명 가량의 면에 딸린 시골마을이다. 피해 여고생의 신원은 숨졌다 하더라도 위 기사처럼 성장 과정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낱낱이 공개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금세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피해 여고생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와 남동생(중3) 역시 신원이 노출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깃거리는 물론 같은 마을에서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기사는 “남자들이 몸을 만질 때마다 2,000원, 3,000원, 5,000원을 줬다”는 피해 여고생의 경찰 진술과 더불어 “당사자들이 추행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수사를 지켜봐주세요. 애가 먼저 남자를 불렀다는 말도 있고…”라는 40대 남자 주민의 말도 여과 없이 전했다.

이와 함께 “소녀가 접근해온 남자들 이름과 그들이 준 돈을 적어놓은 다이어리(일기장)가 있다, 리스트에 나오는 남자가 60명이 넘는다는 말이 돈 것이다.”는 확인 안 된

소문 내용까지 그대로 기사화해 피해 여고생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도록 만들었다.

또한 기사와 함께 실린 삽화는 피해 여고생을 알몸 상태로 그려 단순한 성추행 이상의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했다.

피해 여고생과 그 가족으로선 이 같은 보도로 말미암아 자칫 이중 삼중으로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취지에 어긋나고, 이는 신문의 공신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항(사회적 책임),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전문 및 ②항(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 2001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고광현

### 〈주 문〉

한겨레 2010년 1월 5일자 10면 「조카 및 조카 며느리 보아라!」(인천 성베드로 한방병원장 조현익, 최경희), 1월 13일자 10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한겨레 생활광고 〈알림〉난에 게재된 위 5일자 광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친 어머님인 문규옥(문 테레사) 여사가 시골 정읍에서 당뇨와 관절염, 심근경색 등 합병증으로 수술을 4번이나 받았

는데,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찾아오질 않아 매우 통곡하고 있다. 제발 낚아주고 길러준 어머님에 대한 도리를 생각해서 꼭 찾아주길 바란다.

2010. 01. 05. 이모 문 마리아가

### 조카 및 조카 며느리 보아라!

(인천 성베드로 한방병원장 조현익, 최경희)

친 어머님인 문규옥(문 테레사)여사가 시골 정읍에서 당뇨와 관절염, 심근경색 등 합병증으로 수술을 4번이나 받았는데, 지난 3년동안 한번도 찾아오질 않아 매우 통곡하고 있다.

제발 낚아주고 길러준 어머님에 대한 도리를 생각해서 꼭 찾아주길 바란다.

2010. 01. 05.

이모 문 마리아가

위 내용은 특정인(조현익과 최경희)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문구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으로 보아 매우 완곡하게 특정인과 그의 사업체까지 비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자지간의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모가 일방적으로 조카와 조카며느리를 책망하는 뜻을 담은 내용을 공공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조카의 사업체인 한방병원의 명예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

13일자 의견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앞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노 대통령의 영정을 탈취해 간 서정갑(소위 대령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총동문회(전화 02-365-0631)에 의해 '2009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연세인들은 이 사람이 연대 출신임을 혐오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이 사람이 동문회에 의해 '2009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까지 선정되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습니다만, 쥐구멍에는 쥐새끼가 웅크리고 있어 그도 저도 못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서정갑이라는 사람이 연세대 출신이고, 그가 '2009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에 선정된데 대

하여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1월13일 서정갑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연세인 일동

위 내용 역시 특정 단체(연세대총동문회)와 특정 개인(서정갑)을 불특정 다수의 명칭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연세대총동문회와 서정갑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앞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노 대통령의 영정을 탈취해 간 서정갑(소위 대령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총동문회(전화 02-365-0631)에 의해 '2009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연세인들은 이 사람이 연대 출신임을 혐오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이 사람이 동문회에 의해 '2009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으로까지 선정되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습니다만, 쥐구멍에는 쥐새끼가 웅크리고 있어 그도 저도 못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서정갑이라는 사람이 연세대 출신이고, 그가 '2009년 자랑스러운 연세인'에 선정된 데 대하여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1월 13일

서정갑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연세인 일동

## ▶2010년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 회기 동안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국내 90여 신문사들이 발간한 일간신문의 기사와 광고 중에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기사 부문 강령 위반은 모두 775건이고 광고부문의 위반 사례는 총 1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부문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의'가 684건이고 '경고'는 87건이며, 제심을 청구한 4건은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광고 부문의 결정은 '주의'가 154건이고 '비공개경고' 29건, 자사 신문에 경고 사실을 게재하는 '경고'가 3건이었다.

지난 수년간 윤리위원회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 추세에 맞춰 실천요강 중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조항에 저촉되는 기사와 사진에 대해 심의를 대폭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지난 회기에도 지방 신문들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에 대거 저촉돼 125건이나 지적됐고 표절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사례도 44건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례도 94건이나 되었다. 향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국가나 권역이 늘어나면 이 분야에 대한 다툼이 언론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문의 신뢰를 좌우하는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분야는 신문사와 기자 개인에게 재산상이나 인격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에 있어서는 지난 해 보다 10여 건 늘어난 42건이 제재를 받았다. 또 명예 훼손에 피소될 수 있는 사례들도 배로 증가해 85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방의 신생 신문사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빚어지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신문 시장의 경영 악화를 반영하는 실천요강 제1조 ②항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조항 위반도 지난 회기와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난 326건에 이르고 있다. 신문 경영의 자립 없이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홍보성 기사나 광고성 섹션 기사의 생산을 심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

려를 남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광고 부문에서의 위반 사례는 독자(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이 130건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문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을 되새겨 볼 단계에 왔다고 하겠다.

#### 2010 - 108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행환

##### 〈주 문〉

헤럴드경제 2010년 4월 13일자 1면 「연기자 “자살계획 세운 적 있다” 40%/ 20%는 자살용 약·물품 구입 경험…캐스팅 불공정·현실과 연기생활 괴리 스트레스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위 적시 기사는 국내 연기자 가운데 40%가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골자로 한 유명배우 박진희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10명 중 2명꼴로 실제 자살을 위해 약이나 물품을 사는 등의 준비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몇 년 사이에 연예스타들의 자살사건이 잇따른 점에 비추어 기사는 유명배우의 석사 논문을 통해 그 실태와 원인을 짚어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연기자들마저 자살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현실을 진단과 처방은 생략한 채 1면 머릿기사로 크게 소개한 것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자칫 호기심과 모방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자살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 - 1092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인락

##### 〈주 문〉

영남일보 2010년 4월 1일자 golf섹션(15~22면) 17면 「저렴한 그린파… ‘회원제’ 부럽잖은 시설/경주 보문골프클럽」, 19면 「일곱가지 테마 프로그램… 골프와 문화체험 ‘함께’/칠곡 세븐밸리 컨트리 클럽」, 21면 「계단식 코스 설계… 전략적 플레이 매력/가산 노블리제CC」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위 적시 기사들은 모두 특정 골프클럽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는 내용들로 같은 섹션에 해당 골프클럽 또는 골프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 관광개발공사의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해당 지면이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울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며, 소비자인 독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0-2022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영승
2. 동아일보 발행인 김재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대환
4.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선근
5. 서울경제 발행인 이종승
6.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대근
7. 스포츠칸 발행인 송영승
8.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경문
9. 조선일보 발행인 변용식
10. 한국경제 발행인 신상민
11. 한국일보 발행인 이종승

12. 헤럴드경제 발행인 박행환

〈주 문〉

東亞日報 2010년 4월 5일자 A30면·4월 17일자 A12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서울경제 4월 5일자 A32면·9일자 36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경향신문 4월 7일자 32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헤럴드경제 4월 8일자 32면·16일자 20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한국일보 4월 8일자 17면·4월 14일자 15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한국경제 4월 9일자 A32면·16일자 A18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스포츠칸 4월 10일자 8면 「배부르게 먹으면서 건강 다이어트!9일만에 살 빼주는 ‘젠코쿠키 다이어트’」 및 4월 12일자 11면 「끓으며 운동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살빼주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9일」, 머니투데이 4월 12일자 9면·4월 13일자 13면 「배부르게 먹으면서 건강 다이어트!9일만에 살 빼주는 ‘젠코쿠키 다이어트」, 일간스포츠 4월 15일자 20면·16일자 15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스포츠동아 4월 15일자 7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朝鮮日報 4월 15일자 B7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매일경제 4월 20일자 B7면 「9일밖에 안 걸리는 다이어트 “젠코쿠키」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광고는 다이어트 식품 ‘젠코쿠키’를 홍보하면서 구체적 자료의 제시도 없이 ‘일본 다이어트시장에서 2008년, 2009년 재구매율 1위’ 또는 ‘일본 다이어트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인된 임상시험의 결과도 제시하지 않은 채 ‘9일만에 살빼주는 젠코쿠키’ ‘살빼는데 9일밖에 안 걸리는 획기적인 젠코쿠키 다이어트’를 강조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문광고 윤리강령 3, 4 및 동 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표

|         |                                                                             |
|---------|-----------------------------------------------------------------------------|
| 1957년   |                                                                             |
| 04월 07일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총회에서 신문윤리강령 채택                                                  |
| 1961년   |                                                                             |
| 04월 07일 | 편집인협회 제5차 총회에서 신문윤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채택                                 |
| 07월 15일 | 편집인협회 제7차 임시총회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칙을 제정하고 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실천요강 채택                    |
| 08월 03일 | 신문윤리위원회 회칙을 발행인협회와 통신협회에서 인준                                                |
| 08월 26일 | 우승규 이관구 장기영 홍종인 고재욱 등이 구성한 5인 전형위원회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김세완 선출                       |
| 09월 12일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발족                                                                |
| 09월 21일 | 인천신문, 윤리위원회에 첫 피소                                                           |
| 09월 29일 | 윤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해석을 채택하고 이를 각 편집국장에 통지 |
| 10월 19일 | 인천신문 피소사건을 심의, 제소이유 없다고 결정                                                  |
| 11월 28일 | 윤리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대한일보 김연준 발행인에게 사퇴를 권고                                       |
| 1962년   |                                                                             |
| 04월 13일 | 제2대 위원장에 백한성 선출                                                             |
| 06월 12일 | 아시아재단에서 653만 4천원을 윤리위원회에 지원                                                 |
| 07월 02일 | 중앙정보부장이 보낸온 ‘언론인 범법자 명단’을 해당사에 발송                                           |
| 07월 16일 | 중앙정보부에서 보낸온 ‘언론인 범법자 추가명단’을 해당사에 발송                                         |
| 07월 25일 | ‘결정’ 제1집 발간                                                                 |
| 08월 03일 | 고재욱 위원 동아일보 필화사건으로 구속                                                       |

|                |                                                                                            |
|----------------|--------------------------------------------------------------------------------------------|
| <b>10월 18일</b> | 사무국장에 조동건 임명                                                                               |
| <b>11월 29일</b> | 한국일보의 사회노동당 기사 관련, 윤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담화 발표                                                     |
| <b>1963년</b>   |                                                                                            |
| <b>02월 15일</b> | 윤리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제1, 2항에 관한 해석을 채택                                  |
| <b>05월 21일</b> | 신문회관 강당에서 신문인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b>07월 05일</b> | 공보부에서 비공식으로 요청한 윤리위원회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발행인협회, 편집인협회, 통신협회에 회보, 의견을 듣기로 함                       |
| <b>08월 20일</b> | 공보부에서 요청한 회칙개정은 행정부 대표를 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옹서버로 위촉하기로 하고 백한성 위원장과 고재욱 위원이 공보부 장관과 면담한 후 결정하기로 함 |
| <b>08월 27일</b> | ‘각국의 신문윤리강령’ 발간                                                                            |
| <b>08월 29일</b> | 사무국장에 엄기형 임명                                                                               |
| <b>11월 15일</b> | 기자품위에 관한 경고문 채택                                                                            |
| <b>12월 03일</b> | 유봉영, 정충량을 신문회관 정기총회 파견사원으로 선정                                                              |
| <b>1964년</b>   |                                                                                            |
| <b>02월 06일</b> | 각 신문·통신사에 각급 학교 입시 커트라인 발표하지 말 것 통보                                                        |
| <b>03월 20일</b> | 모 출입처 기자단의 금전취득에 대한 경고문 채택                                                                 |
| <b>05월 27일</b> | 윤리위원회 회칙 개정                                                                                |
| <b>07월 22일</b> |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윤리위원회 IPI 한국위원회 등 5개 단체 윤리위 업적과 보강 여부 및 언론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언론규제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
| <b>07월 30일</b> | 언론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언론규제대책위원회의 신문윤리 강화방안 채택                                                       |
| <b>07월 31일</b> | 언론규제대책위원회 신문윤리보강안을 국회의장을 비롯한 관계당국에 전달                                                      |
| <b>08월 02일</b> | 언론윤리위 법안 야간국회 통과                                                                           |
| <b>08년 05일</b> | 각 언론단체 대표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 구성                                                              |
| <b>08년 18일</b> | 한국일보 서울신문 코리언리퍼블릭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쟁위원회에서 탈퇴                                                      |

|                |                                                                 |
|----------------|-----------------------------------------------------------------|
| <b>08년 20일</b> | 윤리위원회 제82차 회의에서 회칙을 전면 개정하고 자율적인 기구와 권한을 보장하는 심의실 설치 규정을 삽입     |
| <b>08년 25일</b> | 편집인협회, 신문윤리위원회 회칙 개정안 인준                                        |
| <b>08년 26일</b> | 통신협회, 신문윤리위원회 회칙 개정안을 조건부로 인준                                   |
|                | 윤리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개정 회칙을 발행인협회 동의를 받은 후 채택하기로 의결                  |
| <b>09월 05일</b> | IPI, 한국의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의문 전달                         |
| <b>09월 08일</b> | 각 언론단체 대표 유성으로 박 대통령 방문해 자율적 규제강화 전제로 언론윤리위법 시행 보류 요청           |
| <b>09월 09일</b> | 박 대통령,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보류와 윤리위원회 소집을 무기 연기한다는 특별 담화 발표               |
| <b>09월 10일</b> |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 자진 해체                                          |
|                | 박 대통령, 언론계 대표들과 사후대책 협의                                         |
| <b>09월 14일</b> | 발행인협회, 신문윤리위원회 회칙 개정안 인준                                        |
|                | 신문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구성                                                |
| <b>09월 15일</b> | 신문윤리위원회 제84차 회의에서 심의실 설치 등을 포함한 자율적 규제강화를 위한 회칙 개정안 채택          |
| <b>09월 22일</b> |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제3차회의에서 심의실을 10월 5일 경 발족시키고 사무실은 신문회관 303호실을 사용토록 함 |
| <b>09월 29일</b> | 윤리위원회 제85차 회의에서 심의실 운영세칙 채택                                     |
| <b>10월 08일</b> | 심의실장에 이한용 임명                                                    |
| <b>10월 13일</b> | 심의원에 권일하, 임광빈 임명                                                |
| <b>10월 19일</b> |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 운영협의회 약정을 채택하고 재정 책임으로 홍종인을 선임             |
| <b>10월 20일</b> | 윤리위원회 심의실 시무식 거행                                                |
|                | 한남희(정치담당) 박창규(경제담당) 김영준(사회담당) 최일수(문화담당) 간사 임명                   |
| <b>12월 01일</b> | 월간 ‘신문윤리’ 창간호 발행                                                |
| <b>12월 27일</b> | ANPA(미국신문 발행인협회)에서 시상하는 세계 신문공적상 수상 후보자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추천         |

| 1965년          |                                                                                                                                   |
|----------------|-----------------------------------------------------------------------------------------------------------------------------------|
| <b>02월 08일</b> |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제11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기금조성 문제를 토의                                                                                           |
| <b>04월 03일</b> | 신문회관 강당에서 제1회 신문윤리세미나 개최                                                                                                          |
| <b>04월 07일</b> | 제3대 위원장에 한격만 선출                                                                                                                   |
| <b>04월 21일</b> | 한국기자협회,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추진                                                                                                          |
| <b>05월 05일</b> | 윤리위원회 제117차 회의에서 타 단체와의 공동성명 등을 일체 발표하지 않기로 의결                                                                                    |
| <b>05월 13일</b> | 윤리위 제119차 긴급회의를 열고 부산일보의 바지트 전재기사와 관련하여 동사 편집국장 최주식, 조사부 차장 김형대의 구속사건을 처리<br>한격만 위원장 최석채 김여원 김증한 위원이 공보부 장관을 방문(두 구속자는 17일 하오 석방) |
| <b>05월 26일</b> | 윤리위원회 제121차 회의에서서 전북일보 4월 17일자 어린이난에 성병 광고를 게재한데 대하여 「성병광고가 있는 면에 어린이난을 하지 말라」고 판시<br>IPI,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평가                          |
| <b>07월 09일</b> |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제15차 회의에서 직원 봉급을 월 2회(매월 10일, 25일)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함                                                           |
| <b>09월 01일</b> | 윤리위원회 제134차 회의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와 평론의 태도’ 장 제4항에 대한 해석 채택                                                                            |
| <b>09월 08일</b> | 코리아타임스에 게재된 벤브룩크 논문의 저속한 표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직권으로 개입, 그 논문 내용에 대해 동사에 해명을 요청하기로 함                                                      |
| <b>09월 28일</b> | 윤리위원회 제138차 회의에서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연재소설에 대한 심의론이 대두되어 심의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 <b>10월 25일</b> | ‘한국의 신문윤리’ 한글판 및 영문판 발간                                                                                                           |
| <b>10월 27일</b> | 윤리위원회 제142차 회의에서 일간신문 연재소설에 대한 심의기준 초안 마련                                                                                         |
| <b>11월 16일</b> |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제19차 회의에서 각 신문·통신사 각출 기금이 751만원 조성되었음을 보고                                                                             |
| <b>11월 24일</b> | 윤리위원회 제146차 회의에서 일간신문 연재소설 심의기준 마련                                                                                                |
| <b>11월 27일</b> | 일간신문 연재소설 심의에 관한 제1차 간담회 신문회관에서 개최                                                                                                |

| <b>12월 11일</b> | 일간신문 연재소설 심의에 관한 제2차 간담회 신문회관에서 개최                                                            |
|----------------|-----------------------------------------------------------------------------------------------|
| 1966년          |                                                                                               |
| <b>01월 12일</b> | 윤리위원회 제152차 회의에서 광고윤리에 대한 자료수집을 검토                                                            |
| <b>02월 17일</b> |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 <b>03월 16일</b> | 윤리위원회 제161차 회의에서 정부로부터의 비위기자 조사의뢰에 따라 우선 자료를 입수한 후 특별조사단을 구성기로 의결<br>윤리위 사무국에 관훈클럽의 현판을 걸도록 함 |
| <b>03월 26일</b> | 일간신문 연재소설 심의에 관한 제2차 간담회 신문회관에서 개최                                                            |
| <b>04월 07일</b> | 제4대 위원장에 고재호 선출                                                                               |
| <b>04월 29일</b> |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제22차 회의에서 감사 1인을 두기로 의결                                                           |
| <b>05월 11일</b> | 윤리위원회 제170차 회의에서 언론의 횡포에 자진개입키로 의결                                                            |
| <b>06월 01일</b> | 윤리위원회 제173차 회의에서 어린이난 판에 성병약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판시문 채택                                              |
| <b>07월 03일</b> |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언론자유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 <b>10월 14일</b> | 윤리위원회 제188차 회의에서 삼성 밀수사건과 관련한 신문보도 및 기자의 품위문제 논의                                              |
| <b>11월 16일</b> | 윤리위원회 제193차 회의에서 기자품위에 대한 경고문 채택                                                              |

| 1967년          |                                                        |
|----------------|--------------------------------------------------------|
| <b>02월 08일</b> | 윤리위원회 제204차 회의에서 집단자살 용어에 대한 판시문 채택                    |
| <b>02월 22일</b> | 윤리위원회 제206차 회의에서 신문 및 통신사의 경영과 관련되는 제소와 진정은 다루지 않기로 결정 |
| <b>02월 28일</b> | 윤리위원회 제207차 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는 하지 않기로 의결             |
| <b>03월 22일</b> | 윤리위원회 제210차 회의에서 신문 연재소설 및 삽화에 대해 심의키로 의결              |
| <b>04월 07일</b> | 제5대 위원장에 배정현 선출                                        |
| <b>04월 26일</b> | 윤리위원회 제214차 회의에서 비공개경고 3회 이상이면 공개경고하기로                 |

|                |                                                                                                                |
|----------------|----------------------------------------------------------------------------------------------------------------|
|                | 의결                                                                                                             |
| <b>05월 02일</b> | 윤리위원회 제215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 요지를 해당신문에 게재키로 의결                                                                   |
| <b>07월 28일</b> | 매스컴관계 6개 윤리위원회 대표, 코리아 하우스에서 제1차 간담회 개최                                                                        |
| <b>08월 23일</b> | 윤리위원회 제227차 회의에서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 인권존중과 현장 검증 사진 신중 보도 판시문 채택                                                      |
| <b>1968년</b>   |                                                                                                                |
| <b>01월 31일</b> |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후보로 한국기자협회를 추천                                                                                    |
| <b>02월 07일</b> | 윤리위원회 제247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 매주 소집 않기로 의결                                                                            |
| <b>02월 13일</b> | 런던타임스 동경지국장 H.스코트 스톡스, 이스라엘 IPI부회장 가브리엘 지프로니, 이스라엘 편집인협회장 다비드 페다즈르 윤리위원회를 방문하고 활동상황을 청취                        |
| <b>02월 21일</b> | 윤리위원회 회칙 일부 개정                                                                                                 |
| <b>03월 27일</b> | 윤리위원회 제252차 회의에서 관계기관에 배포한 결정집을 그 기관에서 인용할 경우 「인권옹호상 결정집에 수록된 인사의 성명은 가명 또는 기호로써 대체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지를 인쇄, 첨부키로 의결 |
| <b>04월 24일</b> | 개정회칙 영문판을 IPI 아시아 총회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배포                                                                             |
| <b>12월 11일</b> | 윤리위원회 제283차 회의에서 일간신문 광고의 원칙적 자율심의의 심의실에 지시                                                                    |
| <b>1969년</b>   |                                                                                                                |
| <b>02월 21일</b> | 내무부, 조선일보 연재소설 「백조산으로」(2, 14, 18회분), 논픽션 연재물 「남녀 신현법」(2, 11, 13회분) 삽화를 윤리위에 고발                                 |
| <b>04월 07일</b> | 제5대 위원장에 김연수 선출                                                                                                |
| <b>04월 16일</b> | 윤리위원회 제291차 회의에서 타 윤리기관과의 공동성명발표에 참여하기로 의결                                                                     |
| <b>05월 14일</b> | 문공부 장관 부산일보 연재소설 「거울」의 내용이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윤리위원회에 고발                                                                |
| <b>05월 21일</b> | 신문협회에 외설, 저속한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 발송                                                                      |

|                |                                                               |
|----------------|---------------------------------------------------------------|
| <b>08월 26일</b>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설립준비 제1차 회의에서 재단 명칭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유지재단」으로 결정     |
| <b>09월 20일</b> |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제39차 회의에서 문공부 보조금 신청명의를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에서 신문윤리위원회로 변경 |
| <b>11월 05일</b> | 심의실에서 일간신문의 전면 PR광고 조사 착수                                     |
| <b>11월 19일</b> | 윤리위원회 제309차 회의에서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PR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광고윤리 초안 소위원회를 구성    |
| <b>12월 09일</b> | 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재단 이사장에 유봉영 선임                   |
| <b>12월 12일</b> | 윤리위원회 제310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작성 신문광고윤리강령(안) 및 실천요강(안)을 승인하고 기간단체에 발송 |
| <b>12월 16일</b> |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제40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설립에 따라 운영협의회의 발전적 해체를 의결     |
| <b>12월 17일</b> | 윤리위원회 제311차 회의에서 전면 PR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에 해명서를 받기로 의결                |
| <b>1970년</b>   |                                                               |
| <b>01월 20일</b> | 사무국장에 이한용 임명                                                  |
| <b>01월 28일</b> | 심의실 간사 명칭을 심의원으로 변경                                           |
| <b>02월 01일</b> | 심의실장에 정만교 임명                                                  |
| <b>05월 20일</b> | 윤리위원회 제323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 회칙 개정                                  |
| <b>06월 13일</b> |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제5차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개정 회칙을 인준                          |
| <b>06월 26일</b> | 기자협회, 윤리위원회 개정 회칙을 인준                                         |
| <b>07월 07일</b> | 신문협회, 통신협회, 편집인협회에서 윤리위원회 개정 회칙을 인준                           |
| <b>07월 08일</b> | 문화공보부에서 주간신문윤리위원회의 해체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사무인계를 종용                     |
| <b>07월 18일</b> |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제7차 이사회에서 주간지 심의기로 의결                              |
| <b>07월 31일</b> | 윤리위원, 윤리위 유지재단 이사, 주간신문협회장 합동간담회에서 8월 1일부터 주간지를 심의기로 합의       |
| <b>09월 02일</b> | 윤리위원회 제330차 회의에서 주간지 심의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논의                        |
| <b>09월 09일</b> | 윤리위원회 간담회에서 4개 주간지 첫 심의                                       |

- 12월 17일** 신문협회, 통신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에 광고윤리강령(안) 인준을 요청
- 12월 23일**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제10차 이사회에서 김남중을 재무이사로 선임

## 1971년

- 09월 13일** 윤리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만찬
- 09월 23일** 유봉영 이사장의 국회 진출에 따라 후임 이사장에 고재욱 추대
- 11월 17일** 윤리위원회 제375차 회의에서 전국의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사 발행인에게 '통신기사의 전재 및 기사를 인용할 때 표절사례가 없도록 출처를 밝히라'는 공한 발송을 의결
- 12월 01일** 윤리위원회 제377차 회의에서 1970년 12월 17일 각 기간단체에 인준을 요청한 바 있는 광고윤리강령(안)에 대해 신문협회는 자체안을 보내오에 따라 다른 기간단체에 원안과 신문협회안을 다시 보내기로 의결

## 1972년

- 04월 07일** 사무국장에 이한용 임명
- 07월 19일** 심의실장에 엄기형 임명
- 11월 13일**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제16차 이사회에서 기금운용소위원회 구성
- 11월 20일**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기금운용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1973년

- 04월 07일** 제6대 위원장에 김제형 선출
- 12월 04일** 윤리위원회 제435차 회의에서 월간 '신문윤리'를 계간으로 등록 변경기로 의결

## 1974년

- 01월 15일** 윤리위원회 제437차 회의에서 현승중 위원을 신문화관 사원으로 추천
- 05월 28일** 윤리위원회 회칙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07월 23일** 윤리위원회 제447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 회칙 일부 개정안 채택
- 09월 03일** 신문협회, 윤리위원회 회칙 개정안 인준

## 1975년

- 04월 07일** 제7대 위원장에 임한경 선출
- 06월 17일** 윤리위원회 제464차 회의에서 '광고의 윤리성 제고와 그 책임을 강조'하는 공한을 각 발행인과 문공부 장관에게 보내기로 의결
- 11월 21일**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제21차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운영자금 조달 논의

## 1976년

- 03월 26일**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간담회를 열어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운영대책위원회를 구성
- 04월 08일** 윤리위원회 제478차 회의에서 주간지 심의가 도서잡지윤리위원회에 이관됨에 따라 심의를 중단기로 의결
- 07월 06일**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대책위원회에서 부이사장제 신설과 이사 수를 조정기로 함
- 09월 28일** 문공부에서 윤리위원회에 일간신문의 광고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 보내움
- 10월 13일** 윤리위원회 제486차 회의에서 광고심의 문제를 광고협의회와 협의기로 의결
- 10월 27일** 윤리위원회 487차 회의에서 광고윤리소위원회에서 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안) 및 실천요강(안)을 채택
- 11월 03일** 신문협회 이사회,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채택
- 1월 10일** 윤리위원회 제489차 회의에서 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따라 신문광고를 심의기로 의결
- 11월 11일** 제3대 이사장에 김종규 선임
- 11월 12일** 윤리위원회 유지재단 제24차 이사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
- 12월 15일** 윤리위원회 제491차 회의에서 광고규제세칙 채택에 이어 1977년 1월 15일부터 시행기로 의결하고 광고심의에 착수

## 1977년

- 01월 25일** 정관을 개정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유지재단'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로 개칭하고 문공부에 사회단체로 등록

- 사무국장에 신문협회 사무차장 정홍석을 겸임 발령
- 윤리위원회는 월 1회 소집키로 함
- 04월 07일** 제8대 위원장에 홍승만 선출
- 09월 29일** 윤리위원회 제499차 회의에서 구인광고 규제 강화 의결
- 10월 26일** 윤리위원회 제500차 회의에서 광고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규제세칙 개정안을 채택

#### 1978년

- 01월 25일** 윤리위원회 제504차 회의에서 연재소설 게재금지조항을 회칙에 삽입하기 위한 회칙개정 관련 논의

#### 1979년

- 04월 14일** 노동청의 '광고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설직업안내 광고 게재 금지 요청' 건을 문공부에서 윤리위원회에 이첩
- 05월 30일** 문공부가 윤리위원회에 이첩한 공문 건은 광고협의회와 협의해 처리키로 함
- 06월 27일** 광고협의회, 당국의 협조요청 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회신
- 10월 31일** 서울시의 구인광고 규제 협조공문을 광고협회에 이첩

#### 1980년

- 02월 05일** 제4대 이사장에 김남중 선임
- 08월 19일** 윤리위원회 직장정화추진위원회 편성

#### 1981년

- 02월 18일 제5대 이사장에 전달출 선임

#### 1982년

- 11월 26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전국 신문·통신사 사회부장 문화부장 간담회' 개최

#### 1983년

- 04월 07일** 제9대 위원장에 양준모 선출

- 09월 30일** 정읍 내장산관광호텔에서 '전국 신문·통신사 사회부 기자 간담회' 개최

#### 1984년

- 03월 28일** 윤리위원회 제561차 회의에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따른 광고규제세칙을 채택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 05월 30일** 서울시 관광버스운영회에서 승용차 안내광고 규제강화 요청
- 06월 27일** 승용차 안내광고문제를 광고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7월 1일부터 각 신문사가 자진 시정키로 함
- 10월 26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전국 신문사 광고국장 간담회' 개최

#### 1985년

- 01월 28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세계 19개국 언론인들이 참가한 국제언론인회에서 양준모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주제로 발표
- 03월 07일** 심의실장에 서재학 임명
- 11월 22일** 수안보관광호텔에서 '전국 신문·통신사 편집부장 간담회' 개최

#### 1986년

- 01월 15일** 양준모 위원장이 신병치료차 도미, 정석규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
- 04월 07일** 제10대 위원장에 나향운 선출
- 11월 04일** 충남 도고호텔에서 '전국 신문사 광고부장 간담회' 개최

#### 1987년

- 02월 27일** 사무국장에 송기성 임명
- 11월 20일** 나향운 위원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음
- 11월 20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전국 신문·통신사 사회부장 간담회' 개최

#### 1988년

- 11월 23일** 유성관광호텔에서 '전국 신문·통신사 사회부장 간담회' 개최

## 1989년

- 02월 22일** 심의실장에 이종윤 임명
- 05월 31일** 윤리위원회 제604차 회의에서 강력범 신고자 보호 '보도기준' 조항을 신설
- 11월 10일** 정읍 내장산관광호텔에서 '전국 신문·통신사 편집국장급 간담회' 개최

## 1990년

- 04월 06일** 제6대 이사장에 강표원 선임
- 11월 26일** 속초 설악프라자패밀리타운에서 '전국 신문·통신사 편집국 데스크 간담회' 개최

## 1992년

- 04월 23일** 제7대 이사장에 신우식 선임
- 06월 24일** 윤리위원회 제635차 회의에서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매일신문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11개사의 카드대출 광고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
- 08월 26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제외한 신문에 대해 카드대출 광고 자제협조요청 공문 발송
- 11월 21일** 제8대 이사장에 김종태 선임
- 11월 23일** 연합통신 "스포츠신문 공대위 신문윤리 개편촉구" 제하의 기사 게재
- 11월 30일** 연합통신 사장에게 "스포츠신문공대위, 신문윤리위 개편촉구" 제하 기사 보도의 건에 대해 유감 표명 공한 발송

## 1994년

- 01월 2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30년사' 발간
- 03월 01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
- 04월 21일** 제11대 위원장에 박우동 선출

## 1995년

- 02월 28일** 심의실장에 김창구 임명
- 05월 17일** 사무국장 직무대행에 신문협회 손선규 사무국장을 겸임 발령

- 08월 12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공보처에 의해 입법 예고됨

## 1996년

- 02월 09일**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02월 16일**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02월 28일** 국회 추천 윤리위원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변경
- 04월 08일**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안 공표
- 05월 1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위원회의 재정을 담당하던 이사회를 통합해 사단법인으로 발족
- 05월 30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 편집부장 세미나' 개최
- 07월 03일** 윤리위원회 회칙 및 운영내규 개정

## 1997년

- 01월 17일** 제9대 이사장에 김대성 선임
- 02월 26일** 윤리위원회 제686차 회의에서 신문소설 심의기준 채택
- 03월 01일** 심의실장에 정상현, 사무국장에 임병찬 임명
- 04월** 국회에 윤리위원 추천을 의뢰한 바, 국회는 여야 각 1명씩 2명을 추천함이 상례이며 1명 추천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통보
- 05월 23일**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신문협회 비회원사에 대해서도 심의비를 징수기로 함
- 10월 16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 광고국장 세미나' 개최
- 10월 29일** 국민일보 서울경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등 4개지에 대해 서약문 게재 위치가 정관 제31조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제호 바로 아래 또는 제호 옆에 게재할 것을 촉구
- 11월 04일** 신문협회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광고 게재 중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 12월 01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소식' 제1호 발행

## 1998년

- 03월 25일** 국내 폰팅광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
- 04월 21일** 제53차 이사회에서 정관과 윤리위원회 회칙을 개정해 국회 추천 윤리위원

|                |                                                                                    |
|----------------|------------------------------------------------------------------------------------|
|                | 수를 2명으로 환원                                                                         |
| <b>04월 29일</b> | 윤리위원회 회의 시작 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키로 함                                         |
| <b>11월 06일</b> | 양양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통신사 사건기자 세미나' 개최                                            |
| <b>1999년</b>   |                                                                                    |
| <b>02월 26일</b> | 윤리위원회 정관 변경                                                                        |
| <b>04월 15일</b> | 제12대 위원장에 윤영철 인준                                                                   |
|                | 윤리위원회 회칙(운영규정)과 심의실 및 사무국 운영내규를 개정                                                 |
|                | 국회에 통합방송법 관련 입법청원서 제출키로 결의                                                         |
| <b>11월 05일</b> | 제주 KAL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통신 정치부 기자 세미나' 개최                                              |
| <b>2000년</b>   |                                                                                    |
| <b>09월 15일</b> | 윤영철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취임                                                                  |
| <b>09월 29일</b> | 제13대 위원장에 김석수 인준                                                                   |
| <b>11월 10일</b> |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 문화·연예기자 세미나' 개최                                               |
| <b>12월 27일</b> | 윤리위원회 제728차 회의에서 5개 스포츠신문의 발행인에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 선정성 기사 자제를 권고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보내기로 결의 |
| <b>2001년</b>   |                                                                                    |
| <b>01월 01일</b> | 심의실장에 배상호, 사무국장에 김종원 임명                                                            |
| <b>01월 31일</b> | 윤리위원회 제729차 회의에서 5개 스포츠신문 발행인에게 보내는 서한 채택                                          |
| <b>09월 07일</b> | 서귀포 KAL호텔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 <b>11월 09일</b> | 속초 켄싱턴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 통신 편집국장급 세미나' 개최                                               |
| <b>2002년</b>   |                                                                                    |
| <b>01월 30일</b> | 윤리위원회 제740차 회의에서 '700 전화연락방' 광고와 인터넷성인방송 광고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스포츠신문 발행인에게 발송키로      |

|                |                                                                                             |
|----------------|---------------------------------------------------------------------------------------------|
|                | 의결                                                                                          |
| <b>08월 09일</b> | 장대환 이사, 국무총리서리에 임명                                                                          |
| <b>08월 28일</b> | 홈페이지(www.ikpec.or.kr) 개설                                                                    |
| <b>09월 07일</b> | 격주 토요일 휴무제 실시                                                                               |
| <b>09월 25일</b> | 김석수 위원장의 국무총리 취임에 따라 새 위원장에 안용득 선출                                                          |
| <b>10월 23일</b> | 제14대 위원장에 안용득 인준                                                                            |
| <b>10월 25일</b> | 경주 콩코드 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 광고국장 세미나' 개최                                                           |
| <b>10월 30일</b> | 윤리위원-문화관광부 장관 간담회                                                                           |
| <b>2003년</b>   |                                                                                             |
| <b>05월 12일</b>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정기간행물(스포츠신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 <b>05월 15일</b> |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                                                                      |
| <b>06월 25일</b> |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 제49조 ①항 제1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b>10월 23일</b> | 서귀포 KAL호텔에서 '임원·윤리위원 간담회' 개최                                                                |
| <b>11월 24일</b> | 제12차 임시총회와 제66차 이사회에서 독자불만처리위원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
| <b>12월 03일</b>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b>2004년</b>   |                                                                                             |
| <b>01월 01일</b> | 심의실장에 이대영 임명                                                                                |
| <b>01월 09일</b>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과 심의실 및 사무국 운영내규를 개정하고 독자불만처리위원 운영규칙을 제정                                          |
| <b>03월 02일</b> | 독자불만처리위원 발족, 초대 독자불만처리위원에 김두식 위촉                                                            |
| <b>05월 06일</b> | 제주 KAL호텔에서 '언론사 미디어담당기자 및 심의위원 세미나' 개최                                                      |
| <b>06월 30일</b> | 위원장 명의의 무속 점술 광고 자제요청 서한을 신문협회 각 회원사 발행인에게 발송                                               |
| <b>12월 31일</b> | 신문관련법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 2005년

|                |                                         |
|----------------|-----------------------------------------|
| <b>09월 28일</b> | 제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통신 편집국장급 세미나' 개최 |
| <b>10월 27일</b> |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통신 편집부장 세미나' 개최     |
| <b>12월 15일</b> | 부여 문화호텔에서 '윤리위원·심의위원 워크숍' 개최            |
| <b>12월 21일</b> | '신문윤리강령/신문윤리위원회' 발간                     |

## 2006년

|                |                                                                                                                                                    |
|----------------|----------------------------------------------------------------------------------------------------------------------------------------------------|
| <b>02월 22일</b> | 문화관광부에서 신문법 제11조(광고) ②항에 따라 상반기 중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전문기구에 업무를 위탁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발표                                                |
| <b>03월 02일</b> | 독자불만처리위원회 유승삼 위촉                                                                                                                                   |
| <b>05월 01일</b> | 신문협회 비회원사 중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신문사 지면 모니터                                                                                                              |
| <b>10월 13일</b> |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의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8차례나 주의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 연재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김명곤 장관이 '신문윤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좀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 |
| <b>10월 23일</b> |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단 일간신문이라 할지라도 연재소설이나 연재만화 등에서 현격하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저해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발언                |
| <b>12월 07일</b> |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독자불만처리위원 운영규칙을 개정                                                                                          |
| <b>12월 13일</b> | 청소년보호법개정법률안 발의                                                                                                                                     |

## 2007년

|                |                                     |
|----------------|-------------------------------------|
| <b>01월 01일</b> | 심의실장에 최형민 임명                        |
| <b>01월 05일</b> |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    |
| <b>01월 11일</b> |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윤리위원회 기능강화 내용 발송          |
| <b>02월 27일</b> | 지방지 발행인에게 표절 및 과대 홍보성 기사 자제 권고서한 발송 |
| <b>03월 25일</b> | 제15대 위원장에 강신욱 인준                    |

|                |                                                                                       |
|----------------|---------------------------------------------------------------------------------------|
| <b>04월 25일</b> | 윤리위원회 제798차 회의에서 '조승희' 사건 관련 사진 게재한 28개사 자사게재 경고                                      |
| <b>05월 17일</b> |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윤리위원-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인 워크숍' 개최                                            |
| <b>06월 27일</b> | 제16대 위원장에 정귀호 인준                                                                      |
| <b>07월 05일</b> | 광주 신양관광호텔에서 '호남지역 신문사 데스크급 워크숍' 개최                                                    |
| <b>09월 14일</b> |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영남지역 신문사 데스크급 워크숍' 개최                                                     |
| <b>09월 28일</b> | 윤리위원회 제802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2007년 9월 13일자 1면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제하 기사 및 3면의 관련 사진 2장에 대해 '사과' 결정 |
| <b>10월 31일</b> | 윤리위원회 제803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재심청구 건에 대해 '공개경고' 결정                                            |
| <b>11월 02일</b> | 제85차 이사회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의견 채택                                                           |
|                | 대전 리베라유성호텔에서 '지역 일간신문(비회원 서약사) 세미나' 개최                                                |
| <b>12월 06일</b> | 청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대전 충청지역 신문사 데스크급 워크숍' 개최                                               |
| <b>12월 13일</b> |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윤리위원·심의위원 워크숍' 개최                                                        |
| <b>12월 26일</b> | 윤리위원회 제805차 회의에서 신문윤리강령 개정의견 의결                                                       |

## 2008년

|                |                                                  |
|----------------|--------------------------------------------------|
| <b>02월 27일</b> | 유승삼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선출                          |
| <b>03월 04일</b> | 독자불만처리위원회 고학용 위촉                                 |
| <b>11월 28일</b> | 조선일보 및 기간3단체에 운영규정 제9조(제재) ①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결정문 발송 |

## 2009년

|                |                                          |
|----------------|------------------------------------------|
| <b>01월 15일</b> | 고학용 위원의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취임으로 독자불만처리위원회 성병욱 위촉 |
| <b>01월 29일</b> | 심의실 및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                        |
| <b>03월 04일</b> | 신문윤리실천요강 부분 개정                           |
| <b>05월 14일</b> | 제17대 위원장에 신성택 인준                         |
|                | 제주 KAL호텔에서 '전국 일간신문 편집국장급 세미나' 개최        |
| <b>10월 08일</b> | 춘천 세종호텔에서 '중앙 일간신문 광고국장-심의위원 간담회' 개최     |

**11월 27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일간신문 편집부장-심의위원 간담회' 개최

## 2010년

**10월 15일** 인터넷신문윤리강령제정위원회 구성

**12월 20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2월 22일** 인터넷신문윤리기구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관 변경

## 2011년

**01월 01일** 심의실장에 최영주 임명

**01월 11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확정

**03월 10일** 독자불만처리위원회에 안병준 위촉

독자불만처리위원 운영규칙 개정

**03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선포

**04월 27일** 제18대 위원장에 고현철 인준  
인터넷신문윤리기구 운영규정 제정

**06월 08일**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성병욱 지명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역대 임원

## 1969년

**이 사 장** 유봉영(조선일보사 부사장)

**이 사** 김연수(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김남중(광주일보 사장)  
| 고흥상(합동통신 전무) | 원경수(동양통신 상무) | 김광탁(경향신문 지방  
국장) | 고재욱(동아일보 사장) | 홍종인(동화통신 회장) | 박두병(전국경  
제인연합회 회장) | 김옥길(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감 사** 최석채(조선일보 주필) | 최태섭(한국유리Co 회장)

**간 사** 이한용(사무국장)

## 1970~1971년

**이 사 장** 유봉영(조선일보사 부사장)

**이 사** 김연수(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김남중(전남일보 사장)  
| 고흥상(합동통신 전무) | 원경수(동양통신 상무) | 김광탁(경향신문 지방  
국장) | 고재욱(동아일보 사장) | 박두병(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최덕신  
(천도교 교령) | 홍종인(동화통신 회장) | 김옥길(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감 사** 최태섭(한국유리Co 회장) | 최석채(조선일보 주필)

**간 사** 이한용(사무국장)

## 1972~1973년

**이 사 장** 고재욱(동아일보 회장)

**이 사** 김연수(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김남중(전남일보 사  
장) | 고흥상(합동통신 감사) | 원경수(동양통신 상무) | 김상진(합동통  
신 기자) | 유봉영(조선일보 부사장) | 박두병(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최덕신(천도교 교령) | 홍종인(동화통신 회장) | 김옥길(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갑 사** 최태섭(한국유리Co 회장) | 최석채(조선일보 주필)  
**간 사** 이한용(사무국장)

#### 1974~1975년

**이 사 장** 고재욱(동아일보 회장)  
**이 사** 김재형(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김남중(전남일보 사장)  
| 홍승희(동양통신 사장) | 유건호(조선일보 전무) | 이재근(서울신문 기  
자) | 유봉영(조선일보 부사장) | 김성곤(동양통신 회장) | 최덕신(천도교  
교령) | 홍종인(동화통신 회장) | 김옥길(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갑 사** 최태섭(한국유리Co 회장) | 김입삼(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간 사** 이한용(사무국장)

#### 1976년

**이 사 장** 고재욱(동아일보 회장)  
**이 사** 임한경(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김남중(전남일보 사장)  
| 김희중(시사통신 사장) | 유건호(조선일보 전무) | 김길홍(신아일보 기  
자) | 유봉영(조선일보 부사장) | 홍진기(중앙일보 사장) | 김종규(서울신  
문 사장) | 홍종인(동화통신 회장) | 김옥길(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갑 사** 이환의(경향신문 사장) | 김입삼(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간 사** 정홍석(한국신문협회 사무차장)

#### 1977년

**이 사 장** 김종규(서울신문 사장)  
**부이사장** 김남중(전남일보 사장)  
**이 사** 홍승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김희중(시사통신 사장)  
| 유건호(조선일보 전무) | 김길홍(신아일보 기자) | 방차영(조선일보 사  
장) | 홍진기(중앙일보 사장) | 박용곤(합동통신 사장) | 홍승희(동양통신  
사장) | 김옥길(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갑 사** 이환의(경향신문 사장) | 장강재(한국일보 사장)  
**간 사** 정홍석(한국신문협회 사무차장)

#### 1978~1979년

**이 사 장** 김종규(서울신문 사장)  
**부이사장** 김남중(전남일보 사장)  
**이 사** 홍승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김희중(시사통신 사장)  
| 유건호(조선일보 전무) | 박실(한국일보 기자) | 방차영(조선일보 사장) |  
홍진기(중앙일보 사장) | 박용곤(합동통신 사장) | 홍승희(동양통신 사장)  
| 김옥길(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갑 사** 이환의(경향신문 사장) | 장강재(한국일보 사장)  
**간 사** 정홍석(한국신문협회 사무차장)

#### 1980년

**이 사 장** 김남중(전남일보 사장)  
**이 사** 홍승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김희중(시사통신 사장)  
| 유건호(조선일보 전무) | 안택수(한국일보 기자) | 이동욱(동아일보 사  
장) | 홍진기(중앙일보 사장) | 박용곤(합동통신 사장) | 정진기(매일경제  
신문 사장)  
**갑 사** 이환의(경향신문 사장) | 장강재(한국일보 사장)  
**간 사** 정홍석(한국신문협회 사무차장)

#### 1981~1982년

**이 사 장** 전달출(매일신문 회장)  
**이 사** 홍승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유건호(조선일보 전무)  
| 안택수(한국일보 기자) | 이동욱(동아일보 회장) | 김종태(광주일보 사  
장) | 김성진(연합통신 사장) | 정진기(매일경제신문 사장) | 이진의(경향  
신문 사장) | 권오현(부산일보 사장) | 장강재(한국일보 회장)  
**갑 사**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간 사** 정홍석(한국신문협회 사무차장)

#### 1983~1984년

**이 사 장** 전달출(매일신문 회장)  
**이 사** 양준모(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 유건호(조선일보 전무)

|                   |                                                                                                                        |
|-------------------|------------------------------------------------------------------------------------------------------------------------|
|                   | 이규규(신아일보 기자)   이동욱(동아일보 회장)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김성진(연합통신 사장)   권오현(부산일보 사장)   장강재(한국일보 회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정홍석(한국신문협회 사무차장)                                                                                                       |
| <b>1985년</b>      |                                                                                                                        |
| <b>이 사 장</b>      | 전달출(매일신문 회장)                                                                                                           |
| <b>이 사</b>        | 양준모(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권오기(동아일보 상무)   정구운(연합통신 기자)   오재경(동아일보 전사장)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정종식(연합통신 사장)   권오현(부산일보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정홍석(한국신문협회 사무차장)                                                                                                       |
| <b>1986년</b>      |                                                                                                                        |
| <b>이 사 장</b>      | 전달출(매일신문 회장)                                                                                                           |
| <b>이 사</b>        | 나항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권오기(동아일보 상무)   정구운(연합통신 기자)   장재구(한국일보 사장)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이광균(연합통신 사장)   이규행(한국경제신문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정홍석(한국신문협회 사무차장)                                                                                                       |
| <b>1987~1988년</b> |                                                                                                                        |
| <b>이 사 장</b>      | 전달출(매일신문 회장)                                                                                                           |
| <b>이 사</b>        | 나항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권오기(동아일보 상무)   정구운(연합통신 기자)   장재구(한국일보 사장)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이광균(연합통신 사장)   이규행(한국경제신문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송기성(사무국장)                                                                                                              |

|              |                                                                                                                       |
|--------------|-----------------------------------------------------------------------------------------------------------------------|
| <b>1989년</b> |                                                                                                                       |
| <b>이 사 장</b> | 전달출(매일신문 회장)                                                                                                          |
| <b>이 사</b>   | 나항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조두흠(한국일보 상무)   이춘발(KBS 기자)   김창열(한국일보 고문)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서정상(전북일보 사장)   이규행(한국경제신문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송기성(사무국장)                                                                                                             |
| <b>1990년</b> |                                                                                                                       |
| <b>이 사 장</b> | 강표원(강원일보 사장)                                                                                                          |
| <b>이 사</b>   | 나항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조두흠(한국일보 논설고문)   이근성(중앙일보 기자)   김창열(한국일보 고문)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서정상(전북일보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송기성(사무국장)                                                                                                             |
| <b>1991년</b> |                                                                                                                       |
| <b>이 사 장</b> | 강표원(강원일보 사장)                                                                                                          |
| <b>이 사</b>   | 나항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안병훈(조선일보 전무)   안병준(서울신문 기자)   김창열(한국일보 고문)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서정상(전북일보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송기성(사무국장)                                                                                                             |
| <b>1992년</b> |                                                                                                                       |
| <b>이 사 장</b> | 신우식(서울신문 사장)                                                                                                          |
| <b>이 사</b>   | 나항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안병훈(조선일보 전무)   안병준(서울신문 기자)   김창열(한국일보 고문)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서정상(전북일보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송기성(사무국장)                                                                                                             |

## 1993년

|              |                                                                                                              |
|--------------|--------------------------------------------------------------------------------------------------------------|
| <b>이 사 장</b> |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나향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안병훈(조선일보 전무)<br>  안병준(서울신문 기자)   김창열(한국일보 고문)   김종태(광주일보 사<br>장)   서정상(전북일보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송기성(사무국장)                                                                                                    |

## 1994년

|              |                                                                                                              |
|--------------|--------------------------------------------------------------------------------------------------------------|
| <b>이 사 장</b> |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나향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안병훈(조선일보 전무)<br>  안병준(서울신문 기자)   김창열(한국일보 고문)   김종태(광주일보 사<br>장)   서정상(전북일보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송기성(사무국장)                                                                                                    |

## 1995년

|              |                                                                                                              |
|--------------|--------------------------------------------------------------------------------------------------------------|
| <b>이 사 장</b> |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나향윤(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안병훈(조선일보 전무)<br>  안병준(서울신문 기자)   김창열(한국일보 고문)   김종태(광주일보 사<br>장)   서정상(전북일보 사장) |
| <b>감 사</b>   | 이종기(중앙일보 사장)   안세영(대전일보 사장)                                                                                  |
| <b>간 사</b>   | 송기성(사무국장)                                                                                                    |

## 1996년

|              |                                                                                                              |
|--------------|--------------------------------------------------------------------------------------------------------------|
| <b>이 사 장</b> | 김종태(광주일보 회장)                                                                                                 |
| <b>이 사</b>   | 박우동(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성병욱(중앙일보 주필)   안재휘<br>(대전일보 정치부 차장)   장재국(한국일보 회장)   서정상(전북일보 사장)<br>  김대성(제주일보 사장) |
| <b>감 사</b>   | 서춘원(대전일보 사장)   김진억(내외경제신문 사장)                                                                                |

## 1997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박우동(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차일석(국민일보 사장)   서정상<br>(전북일보 사장)   성병욱(중앙일보 주필)   남중구(동아일보 논설실장)  <br>남영진(한국일보 지방부 차장) |
| <b>감 사</b>   | 김진억(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이윤원(대전일보 사장)                                                                         |

## 1998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박우동(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조희준(국민일보 사장)   장대환<br>(매일경제 사장)   성병욱(중앙일보 상무이사 겸 주필)   남중구(동아일보<br>논설주간)   조성부(연합통신 경제1부장) |
| <b>감 사</b>   | 이정우(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이윤원(대전일보 사장)                                                                               |

## 1999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윤영철(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조희준(국민일보 회장)   장대환<br>(매일경제 사장)   최승익(강원일보 사장)   남중구(동아일보 통일연구소<br>장)   성병욱(중앙일보 상임고문)   조성부(연합뉴스 경제부장) |
| <b>감 사</b>   | 이정우(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이윤원(대전일보 사장)                                                                                           |

## 2000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윤영철(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이종대(국민일보 사장)   장대환<br>(매일경제 사장)   최승익(강원일보 사장)   남중구(동아일보 통일연구소<br>장)   배기철(한국일보 편집이사)   김영모(문화일보 편집국장석 차장)   남<br>영진(미디어오늘 사장) |
| <b>감 사</b>   | 이정우(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윤종서(대전일보 사장)                                                                                                                   |

## 2001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사장) |
|--------------|--------------|

|            |                                                                                                                                                       |
|------------|-------------------------------------------------------------------------------------------------------------------------------------------------------|
| <b>이 사</b> | 김석수(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노승숙(국민일보 사장)   장대환<br>(매일경제 사장)   최승익(강원일보 사장)   고학용(조선일보 논설위원)  <br>배기철(한국일보 편집이사)   김영모(문화일보 편집국장석 차장)   남영진<br>(미디어오늘 사장) |
| <b>감 사</b> | 김경철(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윤중서(대전일보 사장)                                                                                                                |

## 2002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안용득(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노승숙(국민일보 사장)   장대환<br>(매일경제 사장)   최승익(강원일보 사장)   고학용(조선일보 논설위원)  <br>배기철(전 한국일보 편집인)   이상기(한겨레 편집국 차장)   이필재(중앙<br>일보 이코노미스트 차장) |
| <b>감 사</b>   | 김경철(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윤중서(전 대전일보 사장)                                                                                                                  |

## 2003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안용득(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노승숙(국민일보 사장)   장대환<br>(매일경제 사장)   최승익(강원일보 사장)   최규철(동아일보 논설주간)  <br>김원호(연합인포맥스 사장)   이상기(한겨레 편집국 차장)   최종찬(대한매<br>일 편집팀 기자) |
| <b>감 사</b>   | 홍정욱(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조준호(대전일보 사장)                                                                                                                |

## 2004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사장)                                                                                                                                           |
| <b>이 사</b>   | 안용득(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노승숙(국민일보 사장)   김행수<br>(스포츠서울 사장)   신원호(경상일보 사장)   최규철(동아일보 논설주간)<br>  김원호(연합인포맥스 사장)   이상기(한겨레 편집국 차장)   최종찬(서울<br>신문 편집팀 기자) |
| <b>감 사</b>   | 홍정욱(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조준호(대전일보 사장)                                                                                                                 |

## 2005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회장)                                                                                                                                                                         |
| <b>이 사</b>   | 안용득(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노승숙(국민일보 사장)   조용상<br>(경향신문 사장)   김행수(스포츠서울 사장)   신원호(경상일보 사장)   이<br>태열(대구일보 회장)   문창국(중앙일보 논설주간)   김원호(연합인포맥스<br>사장)   이상기(한겨레 편집국 차장)   최종찬(서울신문 편집팀 차장) |
| <b>감 사</b>   | 홍정욱(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조준호(대전일보 사장)                                                                                                                                               |

## 2006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회장)                                                                                                                                                                       |
| <b>이 사</b>   | 안용득(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노승숙(국민일보 사장)   조용상<br>(경향신문 사장)   하원(스포츠조선 사장)   신원호(경상일보 사장)   이태<br>열(대구일보 회장)   문창국(중앙일보 주필)   김원호(연합인포맥스 사장)<br>  정일용(연합뉴스 북한부 차장)   최종식(경기일보 사회부 차장) |
| <b>감 사</b>   | 홍정욱(코리아헤럴드 · 내외경제신문 사장)   조준호(대전일보 사장)                                                                                                                                             |

## 2007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회장)                                                                                                                                                                    |
| <b>이 사</b>   | 정귀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노승숙(국민일보 사장)   김진영<br>(광주일보 사장)   하원(스포츠조선 사장)   신원호(경상일보 사장)   이태열<br>(대구일보 회장)   변용식(조선일보)   김수길(중앙일보 편집인)   정일용(연<br>합뉴스 북한부 차장)   최종식(경기일보 사회부 차장) |
| <b>감 사</b>   | 홍정욱(헤럴드경제 사장)   김종렬(대전일보 사장)                                                                                                                                                    |

## 2008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회장)                                                                                                                                                                |
| <b>이 사</b>   | 정귀호(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노승숙(국민일보 회장)   김진영<br>(광주일보 사장)   하원(스포츠조선 사장)   신원호(경상일보 사장)   이태<br>열(대구일보 회장)   변용식(조선일보)   김수길(중앙일보 편집인)   김경<br>호(국민일보 부장)   최종식(경기일보 사회부 차장) |
| <b>감 사</b>   | 임종건(서울경제 사장)   김종렬(대전일보 사장)                                                                                                                                                 |

## 2009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회장)                                                                                                                                                       |
| <b>이 사</b>   | 신성택(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노승숙(국민일보 회장)   김진영(광주일보 사장)   하원(전 스포츠조선 사장)   신원호(경상일보 사장)   이태열(대구일보 회장)   배인준(동아일보 주필)   김수길(중앙일보 편집인)   김경호(국민일보 부장)   최종식(경기일보 사회부장) |
| <b>감 사</b>   | 임종건(서울경제 부회장)   신수용(대전일보 사장)                                                                                                                                       |

## 2010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회장)                                                                                                                                                       |
| <b>이 사</b>   | 신성택(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고광현(한겨레 사장)   노승숙(국민일보 회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   이태열(대구일보 회장)   김원식(중도일보 사장)   배인준(동아일보 주필)   김수길(중앙일보 부발행인)   우장균(한국기자협회 회장)   최종식(경기일보 사회부장) |
| <b>감 사</b>   | 남상균(스포츠조선 대표)   신수용(대전일보 사장)                                                                                                                                       |

## 2011년

|              |                                                                                                                                                                    |
|--------------|--------------------------------------------------------------------------------------------------------------------------------------------------------------------|
| <b>이 사 장</b> | 김대성(제주일보 회장)                                                                                                                                                       |
| <b>이 사</b>   | 고현철(윤리위원회 위원장 · 전 대법관)   양상우(한겨레 사장)   조용기(국민일보 회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   이태열(대구일보 회장)   김원식(중도일보 사장)   박보균(중앙일보 편집인)   김수길(JTBC 부사장)   우장균(한국기자협회 회장)   최종식(경기일보 정치부장) |
| <b>감 사</b>   | 남상균(스포츠조선 대표)   남상현(대전일보 사장)                                                                                                                                       |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역대 윤리위원

### 1961년

|              |                                                                             |
|--------------|-----------------------------------------------------------------------------|
| <b>위 원 장</b> | 김세완(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이관구 장기영(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우승규 홍종인(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정종식 기자   김증한(교육계)   김재준 한무숙(기타) |

### 1962년

|              |                                                                            |
|--------------|----------------------------------------------------------------------------|
| <b>위 원 장</b> | 백한성(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고재욱 유봉영(한국신문편집인협회)   장기영 오종식(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현승종(교육계)   이활 유치진(기타)   백남국 기자 |

### 1963년

|              |                                                                            |
|--------------|----------------------------------------------------------------------------|
| <b>위 원 장</b> | 백한성(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고재욱 유봉영(한국신문편집인협회)   장기영 오종식(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현승종(교육계)   이활 정충량(기타)   김홍설 기자 |

### 1964년

|              |                                                                                                       |
|--------------|-------------------------------------------------------------------------------------------------------|
| <b>위 원 장</b> | 한격만(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김여원 김상만(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이원경(한국통신협회)   강영수 김광숙(한국신문편집인협회)   장정호 김영수(한국기자협회)   김증한(대한교육연합회)   최준 정충량(기타) |

### 1965년

|              |                                                                                |
|--------------|--------------------------------------------------------------------------------|
| <b>위 원 장</b> | 한격만(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김상만 김봉기(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정재호(한국통신협회)   최석채 민재정(한국신문편집인협회)   김영수 최현우(한국기자협회)   김증 |

한(대한교육연합회) | 최준 정충량(기타)

## 1966년

**위 원 장** 고재호(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상만 김봉기(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 김희중(한국통신협회) | 정현준 원경수(한국신문편집인협회) | 최현우 조규진(한국기자협회) | 예춘호 유청(국회) | 손주찬(대한교육연합회) | 최준 이봉순(기타)

## 1967년

**위 원 장** 배정현(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 김인배(한국통신협회) | 천관우 임홍빈(한국신문편집인협회) | 곽지용 김진규(한국기자협회) | 윤천주 정상구(국회) | 손주찬(대한교육연합회) | 이은복 이봉순(기타)

## 1968년

**위 원 장** 배정현(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 김인배(한국통신협회) | 천관우 조용중(한국신문편집인협회) | 고재봉 안종익(한국기자협회) | 윤천주 정상구(국회) | 손주찬(대한교육연합회) | 이은복 이봉순(기타)

## 1969년

**위 원 장** 김연수(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 김인배(한국통신협회) | 김영상 임방현(한국신문편집인협회) | 안종익 이억순(한국기자협회) | 윤천주 정상구(국회) | 손주찬(대한교육연합회) | 이봉순 김입삼(기타)

## 1970년

**위 원 장** 김연수(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 이원경(한국통신협회) | 이명영 김영상(한국신문편집인협회) | 이억순 이상원(한국기자협회) | 이성수 정상구(국회) | 손주찬(대한교육연합회) | 김입삼 이봉순(기타)

## 1971년

**위 원 장** 김연수(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 이원경(한국통신협회) | 이명영 김강환(한국신문편집인협회) | 이상원 유병무(한국기자협회) | 유봉영 신도환(국회) | 손주찬(대한교육연합회) | 이봉순 함승기(기타)

## 1972년

**위 원 장** 김연수(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 이활(한국통신협회) | 김강환 박상일(한국신문편집인협회) | 유병무 한규남(한국기자협회) | 유봉영 신도환(국회) | 손주찬(대한교육연합회) | 함승기 이봉순(기타)

## 1973년

**위 원 장** 김제형(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 박충훈(한국통신협회) | 박상일 송건호(한국신문편집인협회) | 한규남 송형목(한국기자협회) | 오주환 채문식(국회) | 현승중(대한교육연합회) | 이봉순 함승기(기타)

## 1974년

**위 원 장** 김제형(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 송건호 이주호(한국신문편집인협회) | 송형목 은종일(한국기자협회) | 오주환 채문식(국회) | 현승중(대한교육연합회) | 박성열 이봉순(기타)

## 1975년

**위 원 장** 임한경(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 채영목(한국통신협회) | 이주호 김동익(한국신문편집인협회) | 은종일 반영환(한국기자협회) | 오주환 채문식(국회) | 이규호(대한교육연합회) | 이봉순 박성열(기타)

## 1976년

|              |                                                                                                                 |
|--------------|-----------------------------------------------------------------------------------------------------------------|
| <b>위 원 장</b> | 임한경(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채영목(한국통신협회)   김동익 서동구(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반영환 조해봉(한국기자협회)   채문식 신상초(국회)   이규호(대한교육연합회)   박성열 김인자(기타) |

## 1977년

|              |                                                                                                                 |
|--------------|-----------------------------------------------------------------------------------------------------------------|
| <b>위 원 장</b> | 홍승만(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채영목(한국통신협회)   서동구 구기석(한국신문편집인협회)   조해봉 정규웅(한국기자협회)   신상초 신도환(국회)   황정규(대한교육연합회)   김인자 김영환(기타) |

## 1978년

|              |                                                                                                                 |
|--------------|-----------------------------------------------------------------------------------------------------------------|
| <b>위 원 장</b> | 홍승만(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채영목(한국통신협회)   서동구 조익규(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정규웅 이민섭(한국기자협회)   신상초 신도환(국회)   황정규(대한교육연합회)   김영환 박현서(기타) |

## 1979년

|              |                                                                                                                 |
|--------------|-----------------------------------------------------------------------------------------------------------------|
| <b>위 원 장</b> | 홍승만(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김남중 장기봉(한국신문협회)   채영목(한국통신협회)   조익규 조영서(한국신문편집인협회)   이민섭 박기병(한국기자협회)   신상초 신도환(국회)   김기두(대한교육연합회)   김영환 박현서(기타) |

## 1980년

|              |                                                                                                   |
|--------------|---------------------------------------------------------------------------------------------------|
| <b>위 원 장</b> | 홍승만(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전달출 정진기(한국신문협회)   조영서 한갑수(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박기병 성병욱(한국기자협회)   신상초 신도환(국회)   김기두(대한교육연합회)   김영환 한말숙(기타) |

## 1981년

|              |                                                                                                   |
|--------------|---------------------------------------------------------------------------------------------------|
| <b>위 원 장</b> | 홍승만(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전달출 정구호(한국신문협회)   한갑수 정달영(한국신문편집인협회)   성병욱 김길홍(한국기자협회)   이대순 김태수(국회)   이희봉(대한교육연합회)   김영환 한말숙(기타) |

## 1982년

|              |                                                                                                   |
|--------------|---------------------------------------------------------------------------------------------------|
| <b>위 원 장</b> | 홍승만(대한변호사협회)                                                                                      |
| <b>윤리위원</b>  | 전달출 정구호(한국신문협회)   정달영 반영환(한국신문편집인협회)   성병욱 한상규(한국기자협회)   이대순 김태수(국회)   이희봉(대한교육연합회)   김영환 구혜영(기타) |

## 1983년

|              |                                                                                                                                                           |
|--------------|-----------------------------------------------------------------------------------------------------------------------------------------------------------|
| <b>위 원 장</b> | 양준모(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전달출(대구매일신문 사장)   정구호(경향신문 사장)   반영환(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안병훈(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성병욱(중앙일보 정치부장)   한상규(경향신문 수도권부장)   김춘수 임재정(국회)   김종철(서울대 교수)   목사균(조선일보 이사)   구혜영(작가) |

## 1984년

|              |                                                                                                                                                                                                      |
|--------------|------------------------------------------------------------------------------------------------------------------------------------------------------------------------------------------------------|
| <b>위 원 장</b> | 양준모(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전달출(대구매일신문 사장)   정구호(경향신문 사장)   안병훈(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신찬균(연합통신 부국장 겸 문화부장)   한상규(경향신문 수도권부장)   성병욱(중앙일보 정치부장)   김춘수(국회의원 · 민정당)   임재정(국회의원 · 민한당)   김종철(서울대 교수)   목사균(한국신문협회 광고협회회장 · 조선일보 이사)   구혜영(작가) |

## 1985년

|              |                                                                                   |
|--------------|-----------------------------------------------------------------------------------|
| <b>위 원 장</b> | 양준모(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전달출(대구매일신문 사장)   정구호(경향신문 사장)   신찬균(연합통신 부국장 겸 문화부장)   홍인근(동아일보 편집부국장)   김재봉(중앙일보 |

사회부 차장) | 한상규(경향신문 수도권부장) | 김형호(국회의원 · 민정당) | 김재광(국회의원 · 신민당) | 정석규(대구대 교수) | 목사균(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조선일보 이사) | 구혜영(작가)

## 1986년

**위 원 장** 나항윤(전 대법관 · 변호사)  
**윤리위원** 전달출(대구매일신문 사장) | 최재욱(경향신문 사장) | 홍인근(동아일보 편집부국장) | 이성춘(한국일보 편집부국장) | 권순용(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 임경록(연합통신 정치부 차장) | 김형호(국회의원 · 민정당) | 김재광(국회의원 · 신민당) | 정석규(대구대 교수) | 목사균(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조선일보 이사) | 구혜영(작가)

## 1987년

**위 원 장** 나항윤(전 대법관 · 변호사)  
**윤리위원** 전달출(대구매일신문 사장) | 노철용(경향신문 사장) | 이성춘(한국일보 편집부국장) | 김문진(서울신문 편집부장) | 권순용(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 임경록(연합통신 정치부 차장) | 박경석(국회의원 · 민정당) | 강삼재(국회의원 · 신민당) | 한준상(연세대 교수) | 목사균(조선일보 이사) | 구혜영(작가)

## 1988년

**위 원 장** 나항윤(전 대법관 · 변호사)  
**윤리위원** 전달출(대구매일신문 사장) | 노철용(경향신문 사장) | 김문진(서울신문 편집부장) | 김경철(중앙일보 논설위원) | 임경록(연합통신 정치부 차장) | 박정수(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 박경석(국회의원 · 민정당) | 강삼재(국회의원 · 신민당) | 한준상(연세대 교수) | 목사균(조선일보 이사) | 구혜영(작가)

## 1989년

**위 원 장** 나항윤(전 대법관 · 변호사)  
**윤리위원** 장명석(경향신문 사장) | 송정제(부산일보사장) | 김경철(중앙일보 논설

위원) | 김태선(동아일보 편집부국장) | 박정수(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 이재일(서울신문 사회부 차장) | 함종한(국회의원 · 민정당) | 박석무(국회의원 · 신민당) | 전성연(고려대 교수) | 유범상(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구혜영(작가)

## 1990년

**위 원 장** 나항윤(전 대법관 · 변호사)  
**윤리위원** 심상기(경향신문 사장) | 송정제(부산일보 사장) | 김태선(동아일보 문화센터 사무국장) | 김두겸(중앙일보 국제국장) | 이재일(서울신문 사회부 차장) | 남영진(한국일보 북한부 기자) | 함종한(국회의원 · 민정당) | 박석무(국회의원 · 신민당) | 전성연(고려대 교수) | 송형목(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조선일보 이사) | 박기원(작가)

## 1991년

**위 원 장** 나항윤(전 대법관 · 변호사)  
**윤리위원** 심상기(경향신문 사장) | 송정제(부산일보 사장) | 김두겸(중앙일보 국제국장) | 김명규(조선일보 편집부국장) | 장재진(국민일보 편집부장) | 남영진(한국일보 외신부 기자) | 신경식(국회의원 · 민주자유당) | 조홍규(국회의원 · 신민주연합당) | 김철수(서울대 법대 교수) | 박기원(작가) | 이인호(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한국일보 상무이사)

## 1992년

**위 원 장** 나항윤(전 대법관 · 변호사)  
**윤리위원** 최종률(경향신문 사장) | 송정제(부산일보 사장) | 김명규(조선일보 편집부국장) | 박창래(동아일보 편집부장) | 장재진(국민일보 편집부장) | 박영배(한국경제신문 외신부 차장) | 신경식(국회의원 · 민주자유당) | 조홍규(국회의원 · 신민주연합당) | 김철수(서울대 법대 교수) | 이인호(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한국일보 상무이사) | 박기원(작가)

## 1993년

|              |                                                                                                                                                                                                             |
|--------------|-------------------------------------------------------------------------------------------------------------------------------------------------------------------------------------------------------------|
| <b>위 원 장</b> | 나항윤(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최종률(경향신문 사장)   호영진(한국경제신문 사장)   박창래(동아일보 편집부장)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지영(경향신문 국제부 차장)   임철(매일경제신문 사회부 차장)   김기도(국회의원 · 민주자유당)   임채정(국회의원 · 신민주연합당)   김철수(서울대 법대 교수)   박기원(작가)   이인호(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한국일보 상무이사) |

## 1994년

|              |                                                                                                                                                                                                           |
|--------------|-----------------------------------------------------------------------------------------------------------------------------------------------------------------------------------------------------------|
| <b>위 원 장</b> | 박우동(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최종률(경향신문 사장)   박용정(한국경제신문 사장)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영덕(조선일보 편집부국장)   김지영(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이용원(서울신문 문화부 기자)   김기도(국회의원 · 민주자유당)   임채정(국회의원 · 신민주연합당)   김철수(서울대 법대 교수)   권광세(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경향신문 이사)   박기원(작가) |

## 1995년

|              |                                                                                                                                                                                                           |
|--------------|-----------------------------------------------------------------------------------------------------------------------------------------------------------------------------------------------------------|
| <b>위 원 장</b> | 박우동(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박용정(한국경제신문 사장)   이정일(전남일보 사장)   이영덕(조선일보 편집부국장)   구건서(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형운(경인일보 정치부 차장)   김경호(내외경제 산업부 차장)   이환의(국회의원 · 민주자유당)   채영석(국회의원 · 민주당)   권영성(서울대 법대 교수)   이병연(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동아일보 광고국장)   조성숙(언론인) |

## 1996년

|              |                                                                                                                                                                                                                |
|--------------|----------------------------------------------------------------------------------------------------------------------------------------------------------------------------------------------------------------|
| <b>위 원 장</b> | 박우동(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박용정(한국경제신문 사장)   안형순(강원도민일보 사장)   황소웅(한국일보 논설위원)   임연철(동아일보 편집부국장)   김형운(경인일보 정치부 차장)   김경호(내외경제 산업부 차장)   이환의(국회의원 · 민주자유당)   채영석(국회의원 · 민주당)   권영성(서울대 법대 교수)   조태산(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서울신문 광고영업본부장)   조성숙(언론인) |

## 1997년

|              |                                                                                                                                                                                              |
|--------------|----------------------------------------------------------------------------------------------------------------------------------------------------------------------------------------------|
| <b>위 원 장</b> | 박우동(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남시욱(문화일보 사장)   안형순(강원도민일보 사장)   정일화(한국일보 편집위원)   임연철(동아일보 편집부국장)   김형운(경인일보 정치부 차장)   허의도(중앙일보 문화부 차장)   이환의(국회의원 · 민주자유당)   채영석(국회의원 · 민주당)   권영성(서울대 법대 교수)   조태산(서울신문 광고영업본부장)   조성숙(언론인) |

## 1998년

|              |                                                                                                                                                                                                       |
|--------------|-------------------------------------------------------------------------------------------------------------------------------------------------------------------------------------------------------|
| <b>위 원 장</b> | 박우동(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남시욱(문화일보 사장)   안형순(강원도민일보 사장)   임연철(동아일보 편집부국장)   장주석(연합통신 출판국장)   허의도(중앙일보 문화부 차장)   신윤석(한국일보 국제부 기자)   강용식(국회의원 · 한나라당)   정동채(새정치국민회의)   권영성(서울대 법대 교수)   김경철(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중앙일보 전무이사)   조성숙(언론인) |

## 1999년

|              |                                                                                                                                                                                                               |
|--------------|---------------------------------------------------------------------------------------------------------------------------------------------------------------------------------------------------------------|
| <b>위 원 장</b> | 윤영철(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홍성만(경향신문 사장)   안형순(강원도민일보 사장)   이상철(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장주석(연합통신 출판국장)   박동수(국민일보 심의실 차장)   신윤석(한국일보 국제부 기자)   강용식(국회의원 · 한나라당)   정동채(국회의원 · 새정치국민회의)   권영성(서울대 법대 교수)   최상태(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한국일보 광고본부장)   조성숙(언론인) |

## 2000년

|              |                                                                                                                                                                                                               |
|--------------|---------------------------------------------------------------------------------------------------------------------------------------------------------------------------------------------------------------|
| <b>위 원 장</b> | 윤영철(전 대법관 · 변호사)   김석수(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홍성만(경향신문 사장)   안형순(강원도민일보 사장)   이상철(조선일보 편집부국장)   권영국(강원일보 이사 겸 서울지사장)   박동수(국민일보 심의실 차장)   유숙렬(문화일보 국제부 차장)   고흥길(국회의원 · 한나라당)   정범구(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권영성(서울대 법대 교수)   마실언(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조선일보 이사)   강교자(대한 |

YWCA연합회 사무총장)

## 2001년

### 위 원 장

김석수(전 대법관 · 변호사)

### 윤리위원

장준봉(경향신문 사장) | 안형순(강원도민일보 사장) | 이근성(중앙일보 편집위원) | 권영국(강원일보 이사 겸 서울지사장) | 김창희(동아일보 경영총괄팀장) | 유숙렬(문화일보 생활건강부장) | 고흥길(국회의원 · 한나라당) | 정범구(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 조건(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 이인배(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중앙일보 상무이사) | 신희운(대한YWCA연합회 사회개발위원장)

## 2002년

### 위 원 장

김석수(전 대법관 · 변호사) | 안용득(전 대법관 · 변호사)

### 윤리위원

장준봉(경향신문 사장) | 안형순(강원도민일보 사장) | 김효재(조선일보 편집부국장) | 권영국(강원일보 이사 겸 서울지사장) | 김창희(동아일보 경영총괄팀장) | 유숙렬(문화일보 생활건강부장) | 이원창(국회의원 · 한나라당) | 이협(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 조건(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 이인배(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중앙일보 상무이사) | 신희운(대한YWCA연합회 사회개발위원장)

## 2003년

### 위 원 장

안용득(전 대법관 · 변호사)

### 윤리위원

하원(스포츠조선 사장) | 안형순(강원도민일보 사장) | 송영언(동아일보 논설위원) | 권영국(강원일보 이사 겸 서울지사장) | 양승현(대한매일 논설위원) | 유숙렬(문화일보 여성전문위원) | 이원창(국회의원 · 한나라당) | 이협(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 이군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김문순(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조선일보 이사) | 신희운(대한YWCA연합회 사회개발위원장)

## 2004년

### 위 원 장

안용득(전 대법관 · 변호사)

### 윤리위원

김두식(독자불만처리위원 · 전 한겨레 발행인) | 하원(스포츠조선 사장) | 신창기(경기일보 사장) | 송영언(동아일보 논설위원) | 허남진(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 양승현(서울신문 경영기획실장) | 장재선(문화일보 사회부 차장) | 김재홍(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 최구식(국회의원 · 한나라당) | 진동섭(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 김문순(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조선일보 상무이사) | 한분순(시인 ·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 2005년

### 위 원 장

안용득(전 대법관 · 변호사)

### 윤리위원

김두식(독자불만처리위원 · 전 한겨레 발행인) | 하원(스포츠조선 사장) | 신창기(경기일보 사장) | 허남진(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 윤창중(문화일보 논설위원) | 양승현(서울신문 경영기획실장) | 장재선(문화일보 문화부 차장) | 김재홍(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 최구식(국회의원 · 한나라당) | 윤종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김문순(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조선일보 상무이사) | 한분순(시인 ·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 2006년

### 위 원 장

안용득(전 대법관 · 변호사)

### 윤리위원

유승삼(독자불만처리위원 · 전 서울신문 사장) | 하원(스포츠조선 사장) | 신창기(경기일보 사장) | 임철순(한국일보 주필) | 윤창중(문화일보 논설위원) | 양승현(서울신문 대구공장장) | 채삼석(연합뉴스 외국어뉴스 국 부국장) | 김재홍(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 최구식(국회의원 · 한나라당) | 윤종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김문순(조선일보 발행인 · 전무이사) | 한분순(시인 ·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 2007년

|              |                                                                                                                                                                                                                                                                                         |
|--------------|-----------------------------------------------------------------------------------------------------------------------------------------------------------------------------------------------------------------------------------------------------------------------------------------|
| <b>위 원 장</b> | 강신욱(전 대법관 · 변호사)   정귀호(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유승삼(독자불만처리위원 · 전 서울신문 사장)   하원(스포츠조선 사장)<br>  신창기(경기일보 사장)   임철순(한국일보 주필)   권순택(동아일보 논<br>설위원)   박노승(경향신문 전략기획조정실장)   채삼석(연합뉴스 한민<br>족센터 기획위원)   김재홍(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최구식(국회의원 ·<br>한나라당)   윤종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문순(조선일보 발<br>행인 · 전무이사)   한분순(시인 ·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박종만<br>(YTN 사외이사) |

## 2008년

|              |                                                                                                                                                                                                                                                                                                  |
|--------------|--------------------------------------------------------------------------------------------------------------------------------------------------------------------------------------------------------------------------------------------------------------------------------------------------|
| <b>위 원 장</b> | 정귀호(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고학용(독자불만처리위원 ·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이영만<br>(경향신문 사장)   이현락(경기일보 사장)   권순택(동아일보 논설위원)<br>  정병진(한국일보 논설위원)   박노승(경향신문 논설위원)   최병수(강<br>원일보 편집국 부국장)   나경원(국회의원 · 한나라당)   전병헌(국회의<br>원 · 민주당)   박용조(진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광현(한국신문<br>협회 광고협의회장 · 조선일보 AD본부장)   박종만(전 디지털타임즈 편<br>집국장)   김재욱(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 2009년

|              |                                                                                                                                                                                                                                                                           |
|--------------|---------------------------------------------------------------------------------------------------------------------------------------------------------------------------------------------------------------------------------------------------------------------------|
| <b>위 원 장</b> | 신성택(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성병욱(독자불만처리위원 · 전 중앙일보 주필)   이영만(전 경향신문 사<br>장)   이현락(경기일보 사장)   정병진(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우석(중앙<br>일보 팩트체커)   성기철(국민일보 취재 · 기획담당 부국장)   최병수(강<br>원일보 편집국장)   나경원(국회의원 · 한나라당)   전병헌(국회의원 · 민<br>주당)   박용조(진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광현(한국신문협회 광<br>고협의회장 · 조선일보 AD본부장)   김재욱(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 2010년

|              |                                                                                                                                                                                                                                                               |
|--------------|---------------------------------------------------------------------------------------------------------------------------------------------------------------------------------------------------------------------------------------------------------------|
| <b>위 원 장</b> | 신성택(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성병욱(독자불만처리위원 · 전 중앙일보 주필)   장명국(내일신문 사장)<br>  이현락(경기일보 사장)   김우석(중앙일보 팩트체커)   김형기(조선일<br>보 편집부국장)   성기철(국민일보 논설위원)   윤영미(한겨레 수도권팀<br>장)   최구식(국회의원 · 한나라당)   장세환(국회의원 · 민주당)   박용조<br>(진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광현(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 조<br>선일보 AD본부장)   이연배(서울YWCA 회장) |

## 2011년

|              |                                                                                                                                                                                                                                                                |
|--------------|----------------------------------------------------------------------------------------------------------------------------------------------------------------------------------------------------------------------------------------------------------------|
| <b>위 원 장</b> | 고현철(전 대법관 · 변호사)                                                                                                                                                                                                                                               |
| <b>윤리위원</b>  | 안병준(독자불만처리위원 ·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장명국(내일신문 사<br>장)   김기웅(한국경제 사장)   김형기(조선일보 논설위원)   허엽(동아일<br>보 편집부국장)   윤영미(한겨레 수도권팀장)   박록삼(서울신문 문화부<br>기자)   최구식(국회의원 · 한나라당)   장세환(국회의원 · 민주당)   안양<br>욱(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광현(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br>조선일보 AD본부장)   이연배(서울YWCA 회장) |

## 심의실 및 사무국

| 심의실         |             | 사무국         |     |
|-------------|-------------|-------------|-----|
| <b>심의실장</b> | 최영주         | <b>사무국장</b> | 김종원 |
| <b>심의위원</b> | 최형민         | <b>총무차장</b> | 박상욱 |
|             | 문명호         | <b>직 원</b>  | 유지은 |
|             | 김지영         | <b>전문위원</b> | 김정순 |
|             | 김명서         |             |     |
|             | 이정원(독자불만처리) |             |     |
|             | 강방준( " )    |             |     |

### 〈심의실〉

#### 심의실장

1. 이한용(64. 10. - 70. 1.)
2. 정만교(70. 2. - 72. 4.)
3. 엄기형(72. 9. - 85. 2.)
4. 서재학(85. 3. - 89. 1.)
5. 이종윤(89. 2. - 95. 2.)
6. 김창구(95. 3. - 97. 2.)
7. 정상현(97. 3. - 00. 12.)
8. 배상호(01. 1. - 03. 12.)
9. 이대영(04. 1. - 06. 12.)
10. 최형민(07. 1. - 10. 12.)

#### 심의위원

1. 임광빈(64. 10. - 82. 1.)
2. 한남희(64. 10. - 67. 2.)
3. 권일하(64. 10. - 65. 9.)
4. 박창규(64. 10. - 66. 2.)
5. 최일수(64. 10. - 72. 4.)
6. 김영준(64. 10. - 87. 2.)
7. 김진현(65. 3. - 71. 3.)
8. 박경창(66. 4. - 71. 12.)
9. 서재학(70. 4. - 85. 2.)
10. 김시열(70. 10. - 71. 1.)

11. 이상원(72. 4. - 73. 1.)
12. 고흥욱(73. 1. - 75. 1.)
13. 이명성(76. 11. - 82. 1.)
14. 곽인호(84. 12. - 87. 1.)
15. 이종윤(85. 11. - 89. 1.)
16. 국흥영(87. 2. - 90. 1.)
17. 신동백(87. 5. - 95. 10.)
18. 전병환(89. 4. - 99. 6.)
19. 김창구(90. 2. - 95. 2.)
20. 김영두(90. 7. - 89. 1.)
21. 이관기(95. 10. - 98. 12.)
22. 배상호(94. 3. - 00. 12.)
23. 임병찬(95. 3. - 99. 2.)
24. 이대영(97. 7. - 03. 12.)
25. 최형민(99. 12. - 06. 12.)
26. 박수만(01. 1. - 01. 12.)
27. 오성호(02. 1. - 09. 7.)
28. 최영주(02. 1. - 10. 12.)

### 〈사무국〉

#### 사무국장

1. 김용구
2. 조동건
3. 엄기형(63. . - 70. 1.)
4. 이한용(70. 1. - 76. 11.)
5. 정홍석(76. 12. - 87. 1.)
6. 송기성(87. 2. - 95. 4.)
7. 손선규(95. 5. - 97. 2.)
8. 임병찬(97. 3. - 00. 5.)

#### 제소부장

1. 송주경(64. 10. - 68. 6.)
2. 오소백(68. 6. - 69. 12.)
3. 김진현(70. 1. - 80. )

#### 총무부장

1. 주태형(64. 10. - 67. 2.)
2. 박성만(67. 5. - 71. 2.)
3. 김진현(71. 3. - 84. 2.)
4. 송기성(84. 3. - 87. 1.)
5. 김종원(95. 5. - 00. 5.)

「신문윤리 50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단체지원사업 후원과  
다음의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및 기업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음.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        |      |      |       |
|--------|------|------|-------|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연합뉴스  |
| 국민일보   | 내일신문 | 문화일보 | 서울신문  |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전자신문 | 스포츠조선 |
| 강원도민일보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 광주일보   | 대구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 부산일보   | 영남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  |
| 중도일보   |      |      |       |

**기 업**

|        |          |       |      |
|--------|----------|-------|------|
| 한국신문인크 | IBK 기업은행 | 웅진코웨이 | 삼성전자 |
| (주)SK  | 현대오일뱅크   |       |      |

신문윤리 50년

인 쇄 2011년 11월 18일

발 행 2011년 11월 21일

발행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발행인 김대성

편 집 최영주 최형민

집 필 신민형 함종만

진 행 김종원

디자인 (주)씨마스커뮤니케이션 www.cmass21.com(02-2269-82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5호

전 화 734-3081~3 | 팩 스 720-1176

www.ikpec.or.kr